

ETHER LIBRARY

0015

데미안

Demian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 1919

문학 · 소설

데미안

Demian. Die Geschichte von Emil Sinclairs Jugend

헤르만 헤세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Demian. Die Geschichte von Emil Sinclairs Jugend

부제 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날 이야기

지은이 헤르만 헤세(1877~1962)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919년, S. 피셔(베를린).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처음 펴냈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Demian)》(1919)을 독일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1921년 베를린의 S. 피셔 출판사에서 펴낸 판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1919년 초판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나왔고, 1920년판부터 헤세의 이름을 달았습니다.

서장과 여덟 장, 원문 793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저본에서 제목 없이 시작하는 머리말에는 「서장」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그 앞에 놓인 두 문장의 제사는 서장의 첫 문단으로 실었습니다. 같은 두 문장이 5장에서 이야기 속에 다시 나오며, 두 자리를 같은 글자로 옮겼습니다.

1인칭 회고의 문체

이 소설은 서른 즈음의 에밀 싱클레어가 열 살부터 스무 살 남짓까지를 돌아보며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둘입니다. 그때 일을 겪는 아이와 젊은이의 이야기는 「-었다」로, 지금의 어른이 끼어들어 돌아보고 생각하는 자리는 「-다」로 옮겼습니다. 서장 전체와 본문 곳곳의 「오늘도 나는 …」 같은 문장이 그 자리입니다.

헤세의 긴 문장은 쌍점과 쉼표로 이어지며 한 호흡에 여러 그림을 늘어놓습니다. 문장을 나누어도 그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옮겼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독일어의 du와 Sie만으로는 우리말의 높임과 낮춤을 다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물 관계마다 말의 등급을 미리 정해 두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반말을 씁니다. 다만 싱클레어의 말은 겁먹은 열 살 아이의 말에서, 허세를 부리는 열여섯 살의 말을 지나, 대학생이 되어 대등한 벗의 말로 바뀝니다. 데미안은 소년 때부터 어른 같은 반말을 씁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하게체와 「자네」를 쓰고, 싱클레어는 그에게 하십시오체를 씁니다. 가까워진 뒤에도, 둘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리에서도 이 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해요체를 쓰고, 싱클레어는 부인에게 하십시오체를 씁니다. 아들 막스와 두 젊은이에게는 반말을 씁니다.

서술에서는 부모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사 속에서 부모를 부를 때만 높였습니다.

되풀이에 관하여

「두 세계」, 「표」, 「카인의 표」, 「새」, 「알」, 「꿈」, 「운명」, 「인도자」 같은 말은 책 전체에서 같은 글자로 옮겼습니다. 헤세는 이 말들을 일부러 되풀이해 이야기를 한 줄로 엮기 때문입니다. 집 대문 위의 문장(紋章)에 새겨진 새는 「문장의 새」로, 그 새의 머리는 「새매」로 적었습니다.

성경의 Kain은 개역개정이 「가인」으로 적지만, 이 책에서는 문학에서 굳어진 대로 성경을 인용하는 자리까지 모두 「카인」으로 적었습니다. 김나지움이 있는 도시와 대학이 있는 도시는 원문이 머리글자로만 적었으므로 「S 시」, 「H 시」로 옮겼습니다.

각주와 그 밖의 것

각주 13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모르면 문장이 읽히지 않는 성경과 신화의 전거, 음악가 이름, 역사 어휘에만 달았고, 상징을 풀이하는 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원어는 본문에 덧붙이지 않고, 꼭 필요한 몇 곳만 각주에 적었습니다.

당대 어휘 가운데 오늘날 멸칭으로 쓰이는 낱말은 중립적인 말로 옮겼습니다.

나이와 햇수는 「열 살」, 「두 해」 처럼 한글로, 돈과 시간의 분은 「2마르크」, 「65페니히」, 「15분」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적었습니다.

원문에서 기울여 쓴 두 낱말은 기울임체로 살렸고,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습니다.

차례

서장 8

제1장 두 세계 11

제2장 카인 32

제3장 십자가의 도둑 54

제4장 베아트리체 75

제5장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98

제6장 야곱의 싸움 117

제7장 에바 부인 141

제8장 끝의 시작 168

서장

나는 그저 내 속에서 저절로 솟아 나오려는 것을 살아 보려 했을 따름이다. 그것이 어째서 그토록 어려웠던가?

내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멀리, 어린 시절의 맨 첫 해들까지, 아니 그 너머 내가 비롯한 아득한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면 으레 자기가 신이어서 한 인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훤히 내려다보고 헤아릴 수 있다는 듯이 굴고, 신이 그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듯이 아무 너울도 없이, 어디서나 본질만 짚어 가며 그려 보인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도 그럴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어느 작가에게 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고,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지어낸 인간, 있을 법한 인간, 이상 속의 인간, 그 밖에 어디에도 있지 않은 인간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단 한 번뿐인, 살아 있는 인간의 이야기다. 실제로 살아 있는 인간이 무엇인지,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때보다도 모른다. 그러니 저마다 자연이 단 한 번 해 본 값진 시도인 인간들을 떼로 쏘아 죽인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간 그 이상이 아니라면, 총알 한 방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정말 이 세상에서 깨끗이 지워 버릴 수 있다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은 더는 아무 뜻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일 뿐 아니라, 세상의 온갖 현상이 꼭 한 번 그렇게, 그리고 다시는 없게 엇갈리는 단

하나의,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고 기이한 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영원하며 신성하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서 자연의 의지를 이루어 가는 한 놀라운 존재이며, 온갖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누구 안에서나 정신은 형상이 되었고, 누구 안에서나 피조물이 괴로워하며, 누구 안에서나 한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오늘날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드물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느끼기는 하고, 그래서 조금은 더 쉽게 죽는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써 내고 나면 나도 그렇게 조금은 더 쉽게 죽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아는 자라고 부를 수 없다. 나는 찾는 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다만 이제는 별에서도 책에서도 찾지 않고, 내 안에서 내 피가 웅웅거리며 들려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즐겁지 않다. 지어낸 이야기들처럼 달콤하지도 조화롭지도 않다. 더는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삶이 그렇듯이, 내 이야기에서는 어리석음과 혼란의 맛이, 광기와 꿈의 맛이 난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며, 길을 가 보려는 시도이고, 오솔길 하나를 어렴풋이 가리켜 보이는 일이다. 일찍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는 둔하게, 어떤 이는 조금 더 밝게, 저마다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태어날 때 묻어 온 찌꺼기를, 태고 세계의 점액과 알껍데기를 마지막 날까지 몸에 지니고 간다. 어떤 이는 끝내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로, 도마뱀으로, 개미로 남는다. 어떤 이는 위는 인간이고 아래는 물고기다. 그러나 누구나 자연이 인간을 겨누어 던져 본 한 번의 던짐이다. 우리 모두는 같은 근원에서, 같은 어머니들에게서 왔고, 모두 같은 깊은 목구멍에서 나왔다. 그러나 저마다 깊은 곳에서 던져진 하나의 시도이자 던짐으로서, 제 나름의

목표를 향해 애써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풀어 읽을 수 있는 것은 저마다 자기 자신뿐이다.

제1장 두 세계

나는 내 이야기를, 열 살에서 열한 살쯤 되어 우리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겪은 한 가지 일에서 시작하려 한다.

많은 것이 거기서 내게 향기처럼 밀려와, 어두운 골목과 밝은 골목과, 집과 탑과, 시계 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과, 아늑하고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방과 비밀과 깊은 유령의 두려움이 가득한 방이, 아픔과 기분 좋은 전율로 내 속을 건드린다. 따스하고 비좁은 냄새가,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가, 집에서 쓰는 상비약과 말린 과일의 냄새가 난다. 두 세계가 거기서 뒤섞여 흘렀고, 낮과 밤이 서로 다른 두 극에서 찾아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좁아서 실은 내 부모만을 품고 있었다. 이 세계는 내게 거의 다 낯익었다.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고,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이 세계에는 은은한 광채와 맑음과 깨끗함이 속해 있었고, 여기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말과 씻은 손과 깨끗한 옷과 좋은 예절이 제집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서는 아침 찬송을 불렀고, 여기서는 성탄절을 지냈다. 이 세계에는 미래로 곧게 뻗은 선과 길이 있었고, 의무와 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좋은 결심, 사랑과 공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세계에 속해야 했고, 그러니 미래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반듯해야 했다.

그런데 다른 세계는 바로 우리 집 한가운데서 벌써 시작되었고, 전혀 달랐다. 냄새가 달랐고, 쓰는 말이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이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와 떠돌이 직공, 유령 이야기와 추문이 있었고, 엄청나고 마음을 홀리고 무시무시하고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울긋불긋 넘쳐흘렀다. 도살장과 감옥, 술주정뱅이와 악다구니하는 여편네들, 새끼를 낳는 소, 쓰러진 말,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와 사람을 때려죽였다는 이야기와 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다. 이 모든 아름답고도 소름 끼치는, 사납고 잔혹한 것들이 사방에, 바로 옆 골목에, 바로 옆집에 있었다. 순경과 부랑자가 돌아다녔고, 술주정뱅이들은 제 아내를 때렸고, 저녁이면 공장에서 젊은 처녀들이 실뭉치처럼 엉켜 쏟아져 나왔고, 늙은 여자들은 사람에게 마법을 걸어 병들게 할 수 있었고, 숲에는 도둑들이 살았고, 불을 지른 자들은 헌병에게 붙잡혔다. 어디서나 이 두 번째의 격렬한 세계가 솟아나고 냄새를 풍겼다. 어디서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우리 방들만 빼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고요가, 의무와 떳떳한 양심이,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고, 그 밖의 다른 모든 것, 시끄럽고 요란하고 음울하고 난폭한 모든 것도 있다는 것, 그래도 어머니에게로 한달음에 뛰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달아날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두 세계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였다! 이를테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 예배 때 거실 문가에 앉아 씻은 두 손을 반듯하게 펴 놓은 앞치마 위에 얹고 맑은 목소리로 찬송을 따라 부를 때면 온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우리에게, 밝고 올바른 쪽에 속했다. 그러다 곧이어 부엌이나 장작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나, 푸줏간의 작은 가게에서 이웃 여편네들과 말다툼을 벌일 때면, 리나는 딴사람이 되었고, 다른 세계에 속했고, 비밀에 둘러싸였다. 모든 것이 그랬고, 누구보다 나 자신이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고 내

부모의 아이였다. 그러나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곳마다 다른 것이 있었고, 그것이 자주 낯설고 으스스했어도, 거기 가면 으레 양심이 찔리고 겁이 났어도, 나는 그 다른 것 속에서도 살았다. 때로는 오히려 금지된 세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았고, 밝은 쪽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이었다 해도 덜 아름다운 곳으로, 더 따분하고 더 쓸쓸한 곳으로 돌아가는 일과 거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따금 나는 알았다. 내 삶의 목표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렇게 밝고 깨끗하고 그렇게 의젓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는 데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길이 멀었다. 거기까지 가려면 학교를 오래 다니고 공부하고 갖가지 시험을 치러야 했으며, 그 길은 줄곧 다른 세계, 더 어두운 세계 곁을 지나고 그 한복판을 꿰뚫고 나 있었으니, 그 세계에 눌러앉아 그 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일을 겪은 탕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열을 올려 읽었다. 거기서는 언제나 아버지에게로, 선한 것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그토록 구원 같고 장엄했으며, 나도 그것만이 올바르고 선하고 바랄 만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느꼈다. 그런데도 이야기 가운데 악한 자들과 길 잃은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목이 훨씬 더 마음을 끌었고, 말해도 되고 털어놓아도 된다면, 탕자가 뉘우치고 다시 집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 차라리 아쉬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어딘가에, 예감이나 가능성으로, 느낌의 맨 밑바닥에 있었을 뿐이다. 악마를 떠올릴 때면, 악마가 저 아래 길거리에 변장을 하고 있든 맨얼굴로 있든, 혹은 장터나 술집에 있는 모습은 아주 쉽게 그려 볼 수 있었지만, 우리 집에 있는 모습은 결코 그려지지 않았다.

누이들도 밝은 세계에 속했다. 누이들은 본성이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 가깝다고 나는 자주 느꼈다. 나보다 착하고 얌전하고

흠이 적었다. 누이들에게도 모자란 데가 있고 못된 버릇이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리 깊지 않았고, 악과 닿는 일이 그토록 무겁고 괴로워지는 나와는 달랐다. 내게는 어두운 세계가 훨씬 가까이 서 있었다. 누이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끼고 받들어야 할 사람들이었고, 누이들과 다투고 나면 나중에 제 양심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나쁜 쪽이었고, 먼저 일을 벌인 쪽이었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쪽이었다. 누이들을 모욕하면 곧 부모를, 선하고 다스리는 것을 모욕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누이들보다는 차라리 가장 막돼먹은 골목 녀석들과 훨씬 쉽게 나눌 수 있는 비밀도 있었다. 날이 밝고 양심이 말짱한 좋은 날이면, 누이들과 놀면서 착하고 다정하게 굴고, 스스로가 착하고 고귀한 빛에 싸여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이 더없이 즐거울 때가 많았다. 천사라면 이렇겠지! 그것이 우리가 아는 가장 높은 것이었고, 우리는 성탄절과 행복처럼 밝은 소리와 향기에 둘러싸인 천사가 되는 것을 달콤하고 멋진 일로 여겼다. 아, 그런 시간과 날들은 얼마나 드물게만 찾아왔던가! 착하고 해롭지 않은, 허락된 놀이를 할 때에도 나는 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열을 내고 사납게 굴어 다툼과 불행을 불러오기 일쑤였고, 그러다 분노가 덮치면 끔찍해져서,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못된 짓인지 깊고 뜨겁게 느껴지는 짓을 하고 말을 했다. 그러고 나면 뉘우치며 가슴을 쥐어뜯는 고약하고 캄캄한 시간이 왔고, 용서를 비는 쓰라린 순간이 왔고, 다시 한 줄기 밝은 빛이, 몇 시간이나 몇 순간 동안 아무 갈등 없는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찾아왔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 아들과 산림 감독관 아들이 같은 반이어서 이따금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둘 다 사나운 녀석들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세계, 허락된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우리가 평소에 깔보던 초등학교 다니는 이웃 사내아이들과 가깝게 지냈다. 그 가운데 한 아이 이야기로 나는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학교가 쉬는 어느 날 오후, 나는 고작 열 살을 조금 넘겼을 때였는데, 이웃 사내아이 둘과 어울려 쏘다니고 있었다. 그때 더 큰 아이 하나가 끼어들었다. 열셋쯤 된 억세고 거친 녀석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 애 아버지는 술꾼이었고 온 식구가 평판이 나빴다. 프란츠 크로머를 나는 잘 알았고, 무서워했으며, 그 애가 이제 우리 무리에 끼어든 것이 달갑지 않았다. 크로머는 벌써 어른 남자 같은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고, 공장에 다니는 젊은 녀석들의 걸음걸이와 말버릇을 흉내 냈다. 크로머를 앞세우고 우리는 다리 옆으로 해서 강가로 내려가, 다리의 첫 번째 아치 밑에 세상을 피해 숨어들었다. 둥글게 휜 다리 벽과 느릿느릿 흐르는 물 사이의 좁은 강가는 온통 쓰레기투성이여서, 깨진 그릇 조각과 잡동사니와 녹슨 철사 뭉치가 엉켜 있었고 그 밖의 오물도 널려 있었다. 거기서는 이따금 쓸 만한 물건이 나왔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지휘 아래 그 일대를 뒤져 찾은 것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러면 크로머는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거나 물로 내던졌다. 납이나 놋쇠나 주석으로 된 물건이 섞여 있나 잘 보라고 시켰고, 그런 것은 죄다 챙겼다. 뿔로 만든 낡은 빗 하나도 챙겼다. 크로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몹시 가슴이 답답했다. 아버지가 알면 이런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프란츠 그 애가 무서워서였다. 크로머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끼워 주고 대해 주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크로머가 명령하면 우리는 따랐다. 나는 그 애와 처음 어울린 날이었는데도, 꼭 오래된 관습 같았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프란츠는 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 모습이 꼭 어른 남자 같았다. 이 빠진 틈으로 침을 뱉어 원하는 곳을 정확히 맞혔다.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세운 갖가지 무용담과 못된 장난을 늘어놓으며 뽐내고 으스댔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바로 그 침묵 때문에 눈에 띄어 크로머의 화가 내게로 쏠리지

않을까 겁이 났다. 내 두 동무는 처음부터 내게서 떨어져 크로머 편에 붙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고, 내 옷차림과 몸가짐이 그들 눈에 거슬린다는 것을 느꼈다. 라틴어 학교 학생에다 귀한 집 도련님인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없었고, 나머지 둘도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나를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두고 가리라는 것을 나는 똑똑히 느꼈다.

결국 나는 순전히 겁이 나서 나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엄청난 도둑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고 나 자신을 그 주인공으로 삼았다. 에크뮐레 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한 동무와 함께 밤중에 사과를 한 자루 가득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 레네트니 골드파르메네니 하는 제일 좋은 품종만 골라 훔쳤다고 나는 이야기했다. 당장의 위험을 피해 나는 이 이야기 속으로 달아났다. 이야기를 지어내고 들려주는 일은 내게 익숙했다. 이야기가 금방 끝나 버려 혹시 더 고약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나는 내 솜씨를 한껏 뽐냈다. 우리 가운데 하나는 늘 망을 봐야 했고 그동안 다른 하나는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떨어뜨렸는데,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끝내는 자루를 다시 열고 절반은 두고 와야 했지만, 반 시간 뒤에 다시 가서 그것마저 가져왔다고 나는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얼마쯤 박수를 기대했다. 끝에 가서는 나도 열이 올라 지어내는 재미에 취해 있었다. 어린 두 녀석은 잠자코 눈치만 보았지만, 프란츠 크로머는 눈을 반쯤 가늘게 뜨고 나를 꿰뚫을 듯이 쳐다보더니 위협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정말이야?"

"그럼." 내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틀림없이?"

"응, 진짜로, 틀림없이." 속으로는 겁이 나 숨이 막힐 지경이면서도 나는 고집스럽게 우겼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덜컥 놀랐지만 곧바로 그렇다고 했다.

"그럼 말해 봐. 하느님과 영생을 걸고!"

나는 말했다. "하느님과 영생을 걸고."

"흥, 그래." 크로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고, 크로머가 곧 일어나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자 기뻤다.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쭈뼛쭈뼛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프란츠가 웃었다. "우린 가는 길이 같잖아."

크로머는 느릿느릿 걸어갔고 나는 감히 달아나지 못했는데, 크로머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걸어갔다. 집 앞에 다다라 우리 집 현관문과 두툼한 놋쇠 손잡이가, 창에 비친 햇빛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눈에 들어오자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아, 집에 돌아왔다! 아, 밝은 곳으로, 평화 속으로 돌아오는 좋고 복된 귀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등 뒤로 문을 쾅 닫으려는 참에, 프란츠 크로머가 비집고 같이 들어왔다. 안뜰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둑한 타일 복도에서 크로머는 내 곁에 바싹 서서 내 팔을 붙잡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야!"

나는 질겁해서 크로머를 쳐다보았다. 내 팔을 움켜쥔 손아귀가 쇠처럼 단단했다. 크로머가 무슨 꿍꿍이인지, 혹시 나를 두들겨 패려는 건 아닌지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크게 마구 소리를 지르면, 위층에서 누군가 제때 내려와 나를 구해 줄까? 하지만 나는 그만두었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뭘 어쩌려고?"

"별거 아냐. 너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 딴 놈들은 들을 필요 없어."

"그래? 응, 뭘 더 말해 달라는 건데? 나 위에 올라가 봐야 한단 말이야."

"너 알지?" 프란츠가 나직하게 말했다. "에크뮐레 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 건지."

"아니, 몰라. 방앗간 주인 거 아닐까."

프란츠는 팔로 나를 휘감더니 바짝 끌어당겨서, 나는 바로 코앞에서 그 얼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크로머의 눈은 사악했고, 웃음은 고약했으며, 얼굴에는 잔인함과 힘이 가득했다.

"그래, 애송이, 과수원이 누구 건지 내가 말해 줄 수 있지. 사과를 도둑맞았다는 건 나도 진작부터 알았어. 그리고 그 아저씨가, 누가 과일을 훔쳤는지 일러 주는 사람한테는 누구든 2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지."

"아, 하느님!" 나는 소리쳤다. "그래도 너, 그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할 거지?"

크로머의 명예심에 호소해 봤자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느꼈다. 크로머는 다른 세계에서 온 아이였고, 그 애에게 고자질은 죄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똑똑히 느꼈다. 이런 일에서 '다른' 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달랐다.

"아무 말 안 한다고?" 크로머가 웃었다. "친구야, 내가 무슨 가짜 돈 만드는 놈이라서 2마르크짜리 동전을 내 손으로 찍어 낼 수 있는 줄 아냐?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어. 2마르크를 벌 수 있으면 벌어야지. 어쩌면 더 줄지도 모르고."

크로머가 갑자기 내 팔을 놓았다. 우리 집 복도에서는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았고, 세계가 내 둘레에서 무너져 내렸다. 크로머는 나를 고발할 것이고, 나는 범죄자였고, 누군가 아버지에게 그 일을 알릴 것이고, 어쩌면 경찰까지 올지도 몰랐다. 혼돈의 온갖 공포가 나를 덮치려 했고, 추하고 위험한 모든 것이 나를 치려고 늘어섰다. 내가

실제로는 훔치지 않았다는 건 아무 상관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맹세까지 했다. 아, 하느님, 하느님!

눈물이 솟았다. 돈을 치르고라도 풀려나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미친 듯이 주머니란 주머니를 다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시계가 떠올랐다. 낡은 은시계였는데 가지 않아서 그냥 '멋으로' 차고 다니던 것이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시계였다. 나는 얼른 그것을 꺼냈다.

"크로머." 내가 말했다. "있잖아, 날 일러바치면 안 돼. 그러면 너 나쁜 거야. 내 시계 줄게, 자, 봐.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 가져도 돼. 은으로 만든 거고 속도 좋아. 조금 고장 난 데가 있을 뿐이야. 고치기만 하면 돼."

크로머는 빙긋 웃으며 시계를 커다란 손에 받아 들었다. 나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내게 뼛속 깊이 적대적인지, 그 손이 내 삶과 평화를 어떻게 움켜쥐려 하는지 느꼈다.

"그거 은이야…" 나는 쭈뼛거리며 말했다.

"네 은 따위, 그 낡아 빠진 시계 따위 알 게 뭐야!" 크로머가 한껏 깔보며 내뱉었다. "너나 가서 고쳐!"

"하지만 프란츠." 크로머가 가 버릴까 봐 겁에 질려 떨면서 나는 소리쳤다. "조금만 기다려! 시계 가져가! 정말 은이란 말이야, 진짜로, 정말로. 그리고 나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크로머는 차갑고 깔보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갈지 알겠지. 아니면 경찰한테 말해도 되고. 경사 아저씨랑 나는 잘 아는 사이거든."

크로머가 가려고 돌아섰다. 나는 소매를 붙잡았다. 그래서는 안 됐다. 크로머가 이대로 가 버리면 닥쳐올 그 모든 일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았다.

"프란츠." 나는 흥분으로 목이 쉰 채 애원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그렇지, 그냥 장난이지?"

"그래, 장난이지. 하지만 너한테는 비싼 장난이 될 수도 있어."

"프란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 줘! 뭐든지 할게!"

크로머는 가늘게 뜬 눈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또 웃었다.

"바보처럼 굴지 마!" 크로머가 짐짓 사람 좋은 척하며 말했다. "너도 나만큼 잘 알잖아. 나는 2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돈을 내다 버릴 만큼 부자가 아니야. 그건 너도 알지. 그런데 넌 부자잖아. 시계까지 있고. 나한테 2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다 괜찮아."

나는 그 셈법을 알아들었다. 하지만 2마르크라니! 그것은 내게 10마르크나 100마르크나 1,000마르크만큼이나 엄청나고 손에 닿지 않는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곁에 작은 저금통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는 삼촌들이 다녀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받은 10페니히, 5페니히짜리 동전이 몇 닢 들어 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이에는 아직 용돈도 받지 않았다.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풀이 죽어 말했다. "돈은 하나도 없어. 그 대신 다른 건 뭐든지 줄게. 인디언 책도 있고, 장난감 병정도 있고, 나침반도 있어. 가져다줄게."

크로머는 대담하고 사악한 입을 한 번 실룩거리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크로머가 명령하듯 말했다. "그 고물 나부랭이는 너나 가져. 나침반이라니! 이제 나 더 화나게 하지 마, 알아들어? 돈이나 내놔!"

"하지만 없단 말이야. 난 돈을 받아 본 적이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내일 2마르크 가져와. 학교 끝나고 저 아래 장터에서 기다릴게. 그걸로 끝. 돈 안 가져오면, 두고 봐!"

"응, 하지만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맙소사, 나 정말 없는데…"

"너네 집엔 돈이 넉넉하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그리고 말해 두는데, 안 가져오면…" 크로머는 무시무시한 눈길을 내 눈에 쏘아 박더니 다시 한 번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삶은 부서졌다. 달아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렷한 그림이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우리 집 계단 맨 아랫단에 걸터앉아 몸을 잔뜩 웅크리고 불행에 나를 내맡겼는데, 장작을 가지러 바구니를 들고 내려온 리나가 거기서 울고 있는 나를 찾아냈다.

나는 리나에게 위에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올라갔다. 유리문 옆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고, 그 모든 물건에서 고향과 다정함이 내게로 흘러와서, 내 마음은 탕자가 오래된 고향 집 방들의 모습과 냄새를 반기듯 애원하며 고마워하며 그것들을 반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더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고, 나는 죄를 짊어진 채 낯선 물결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모험과 죄악에 얽혀 들었으며, 원수에게 위협받고 있었고, 위험과 두려움과 수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정다운 오래된 사암 바닥, 복도 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그리고 안쪽 거실에서 들려오는 큰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소중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안도 든든한 재산도 아니었고 온통 나를 꾸짖었다. 이 모든 것은 더는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 밝음과 고요에 함께할 수 없었다. 내 발에는 매트에 문질러도 닦이지 않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나는 고향 세계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몸에 달고 들어왔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었고 얼마나 많은 불안을 겪었던가. 하지만 오늘 내가 이 방들에 끌고 들어온 것에 비하면 모두 놀이요 장난이었다. 운명이 나를 뒤쫓아 왔고, 어머니도 막아 줄 수 없는, 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손들이 나를 향해 뻗쳐 있었다. 내 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나는 하느님과 영생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내 죄는 이것이나 저것이 아니었다. 내 죄는 악마에게 손을 내주었다는 데 있었다. 나는 왜 따라갔던가? 왜 크로머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어느 때보다 더 고분고분 복종했던가? 왜 그런 도둑질 이야기를 거짓으로 지어냈던가? 왜 범죄를 무슨 무용담처럼 자랑했던가?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쥐고 있었고, 이제 원수가 내 뒤를 쫓고 있었다.

한순간 나는 더는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 그보다 내 길이 이제 점점 더 내리막으로, 어둠 속으로 이어지리라는 끔찍한 확신이 무엇보다 무서웠다. 내 잘못에서 새로운 잘못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누이들 앞에 나타나는 일도 부모에게 건네는 인사와 입맞춤도 거짓이라는 것, 내가 부모에게 숨기는 운명과 비밀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바라보다가 한순간 믿음과 희망이 번쩍 일었다. 아버지에게 다 말하고, 아버지의 판결과 벌을 달게 받고, 아버지를 내 비밀을 함께 아는 사람이자 나를 구해 줄 사람으로 삼자. 그것은 그저 지금껏 여러 번 치러 낸 것과 같은 속죄, 무겁고 쓰라린 한 시간, 뉘우침으로 가득한 무거운 용서 빌기에 지나지 않을 터였다.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던가! 얼마나 아름답게 마음을 끌었던가! 그러나 그것은 될 일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제 내게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나 혼자 스스로 삼켜 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나는 바로 지금 갈림길에 서 있었고, 어쩌면 이 시간부터 영영 나쁜 것에 속하게 되어 악한 자들과 비밀을 나누고, 그들에게 매이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끝내 그들과 같은 무리가 되어야 할지도 몰랐다. 나는 어른 남자 노릇을, 영웅 노릇을 했고, 이제 거기서 비롯된 일을 짊어져야 했다.

내가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내 젖은 신발을 두고 나무란 것이 차라리 반가웠다. 그 덕에 아버지의 눈길이 딴 데로 쏠려 더 고약한 일을 알아채지 못했고, 나는 꾸지람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것을 그 다른 일에다 슬쩍 갖다 붙였다. 그러는 동안 내 안에서 이상하게 새로운 느낌 하나가 번득였다. 미늘이 잔뜩 달린 사악하고 날카로운 느낌, 나는 아버지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이었다! 한순간 나는 아버지의 무지를 얼마쯤 경멸했고, 젖은 장화를 두고 꾸짖는 것이 쩨쩨해 보였다. '아버지가 아시기만 한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살인을 자백해야 할 판에 훔친 빵 하나 때문에 심문받는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추하고 역겨운 느낌이었지만, 강했고 깊은 매혹이 있었으며, 그 어떤 생각보다도 단단히 나를 내 비밀과 내 죄에 묶어 두었다. 어쩌면 크로머는 지금쯤 벌써 경찰에 가서 나를 일러바쳤고, 사람들이 여기서 나를 어린애처럼 바라보는 동안 내 머리 위로는 폭풍우가 몰려들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체험 전체에서 오래도록 중요하게 남은 것은 이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함에 난 첫 번째 금이었고, 내 어린 시절의 삶이 기대어 서 있던 기둥들, 누구든 자기 자신이 되기 전에 부서뜨려야만 하는 그 기둥들에 들어간 첫 칼자국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체험들이 모여 우리 운명의 안쪽 선, 본질의 선을 이룬다. 그런 칼자국과 금은 다시 아물고, 나아서 잊히지만, 가장 은밀한 방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서 피를 흘린다.

나 자신도 곧바로 그 새로운 느낌에 소름이 끼쳤고, 그것을 용서받으려고 당장이라도 아버지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용서를 빌어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어떤 현자 못지않게 아이도 깊이 느끼고 안다.

나는 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일 빠져나갈 길을 궁리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내내 나는 오로지 달라진 거실 공기에 익숙해지는 일만으로도 벅찼다. 벽시계와 식탁, 성경과 거울, 책꽂이와 벽에 걸린 그림들이 말하자면 내게 작별을 고했고, 나는 얼어붙는 가슴으로 내 세계가, 착하고 행복했던 내 삶이 과거가 되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으며, 내가 새로 돋은,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뿌리로 저 바깥 어둡고 낯선 곳에 박혀 붙들려 있다는 것을 느껴야 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그리고 죽음은 쓰다. 죽음은 태어남이며, 무시무시한 새로움 앞의 두려움이고 불안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기뻤다! 그 전에 마지막 연옥처럼 저녁 예배를 치러야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를 불렀다. 아, 나는 따라 부르지 않았고, 음 하나하나가 내게는 쓸개즙이요 독이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때도 나는 따라 기도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소서!" 하고 끝맺자 경련 같은 것이 일어 나를 그 둥근 자리에서 떼어 냈다. 하느님의 은총은 그들 모두와 함께했지만, 더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식고 몹시 지쳐서 자리를 떴다.

침대에 누워 한참이 지나고 따스함과 아늑함이 다정하게 나를 감싸자, 내 마음은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한 번 뒤로 헤매어 가 지나간 일 둘레를 불안하게 퍼덕였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내게 잘 자라고 인사했고, 어머니의 발소리는 아직 방 안에 울리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든 촛불 빛은 아직 문틈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제,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머니가 한 번 더 돌아올 거야. 어머니는 알아챘어. 내게 입을 맞추고 물어볼 거야. 다정하게, 무언가 약속하듯이 물어볼 거야. 그러면 나는 울 수 있고, 목에 걸린 돌이 녹아 버리고,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다 말할 거야. 그러면 다 괜찮아지고, 구원이 올 거야! 그리고 문틈이 벌써 어두워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며, 그 일이 꼭, 꼭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나는 현실로 돌아와 내 원수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애가 똑똑히 보였다. 한쪽 눈을 가늘게 찡그리고, 입은 거칠게 웃고 있었다. 그 애를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일을 꾸역꾸역 속으로 삼키는 사이, 크로머는 점점 더 커지고 추해졌고, 그 사악한 눈은 악마처럼 번득였다. 크로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바로 곁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꿈에서는 그 애도 오늘 일도 나오지 않았고, 부모와 누이들과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휴일의 평화와 광채만이 우리를 감싸는 꿈을 꾸었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나는 아직 그 복된 기쁨의 뒷맛을 느꼈고, 누이들의 하얀 여름옷이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아직 눈에 선했는데, 그 모든 낙원에서 굴러떨어져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돌아와서는 사악한 눈을 한 원수와 다시 마주 섰다.

아침에 어머니가 서둘러 들어와 벌써 늦었는데 왜 아직 누워 있느냐고 소리쳤을 때 나는 안색이 나빴고,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나는 토했다.

그것으로 무언가 얻은 듯싶었다. 나는 조금 아파서 카밀레 차를 마시며 한나절 누워 있어도 되는 것을, 어머니가 옆방에서 정리하는 소리와 리나가 바깥 복도에서 푸줏간 사람을 맞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학교 가지 않는 오전은 마법에 걸린 듯한 동화 같은 시간이었다. 그럴 때면 햇살이 방 안으로 장난치듯 들어왔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초록 커튼을 내려 가리던 그 햇살과 같은 햇살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도 아무 맛이 없었고, 어딘가 거짓된 소리가 났다.

아, 내가 죽어 버렸다면! 그러나 나는 여느 때처럼 조금 몸이 좋지 않을 뿐이었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학교는 피할 수 있었지만, 열한 시에 장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로머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다정함도 이번에는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귀찮았고 아팠다. 나는 곧 다시 잠든 척하며 궁리했다. 아무리 궁리해도 소용없었다. 나는 열한 시에 장터에 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열 시에 살그머니 일어나 이제 다시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이럴 때 늘 그렇듯이, 다시 침대에 눕든지 아니면 오후에 학교에 가든지 하라는 말이 떨어졌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계획을 하나 세워 두었던 것이다.

돈 없이 크로머에게 갈 수는 없었다. 내 것인 작은 저금통을 손에 넣어야 했다. 거기 든 돈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하지만 그래도 얼마쯤은 되었고, 얼마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며 적어도 크로머의 비위만큼은 맞춰 놓아야 한다고 어떤 직감이 냄새를 맡듯 내게 일러 주었다.

양말 바람으로 어머니 방에 살금살금 들어가 어머니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꺼낼 때는 기분이 고약했다. 그러나 어제만큼 고약하지는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려 목이 졸리는 것 같았고, 아래층 계단참에서 처음 살펴보다가 저금통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나아지지

않았다. 저금통을 비틀어 여는 것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철 창살 하나만 찢으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찢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그제야 나는 도둑질을 저지른 셈이었다. 그때까지는 설탕 조각이나 과일 같은 것을 몰래 집어 먹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훔친 것이었다. 비록 내 돈이었는데도. 나는 내가 다시 한 걸음 크로머와 그 애의 세계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렇게 한 수 한 수 차근차근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오기를 부려 거기 맞섰다. 악마가 나를 잡아가든 말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겁에 질려 돈을 셌다. 저금통 안에서는 그렇게 가득 찬 소리가 났는데, 손에 쏟아 놓고 보니 비참하리만큼 적었다. 65페니히였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복도에 숨기고 돈을 꼭 쥔 채, 지금껏 그 문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위층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아직 시간이 넉넉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로, 나를 쳐다보는 집들과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 곁을 지나, 달라져 버린 도시의 골목골목을 에돌아 슬금슬금 걸었다. 가는 길에, 학교 동무 하나가 언젠가 가축 시장에서 탈러 은화 한 닢을 주웠던 일이 떠올랐다. 하느님이 기적을 베풀어 나에게도 그런 것을 줍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나는 이제 기도할 자격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해도 저금통이 다시 멀쩡해지지는 않을 터였다.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보았지만, 아주 느릿느릿 내게로 다가오면서 나를 본 체도 하지 않았다. 가까이 오자 크로머는 따라오라고 명령하듯 눈짓을 하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태연히 걸어갔다. 슈트로 골목을 내려가 작은 다리를 건너, 마지막 집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짓다 만 새 건물 앞에 멈췄다. 거기서는 일하는 사람이 없었고, 문도 창도 없는 벽만 휑하니 서 있었다. 크로머는 주위를

둘러보고 문간으로 들어갔고, 나도 뒤따랐다. 크로머는 벽 뒤로 들어서더니 나를 손짓해 부르고는 손을 내밀었다.

"가져왔어?" 크로머가 차갑게 물었다.

나는 주먹 쥔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크로머가 펼친 손바닥에 돈을 쏟았다. 마지막 5페니히짜리가 짤랑 소리를 다 내기도 전에 크로머는 벌써 다 세어 놓았다.

"65페니히잖아." 크로머가 그렇게 말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응." 나는 쭈뼛거리며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모자란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게 다야. 더는 없어."

"너 좀 더 똑똑한 줄 알았는데." 크로머가 거의 부드럽다 싶은 투로 나무랐다. "신사들 사이에선 질서가 있어야지. 난 정당하지 않은 건 하나도 받을 생각 없어. 너도 알잖아. 네 푼돈 도로 가져가, 자! 다른 사람은, 누군지 알지? 나랑 값을 깎자고 들지 않아. 그 사람은 제값을 쳐줘."

"하지만 정말, 정말 더는 없단 말이야! 그건 내 저금통이었어."

"그건 네 사정이고. 하지만 나도 널 불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히 빚졌어. 그건 언제 받을 수 있어?"

"아, 틀림없이 줄게, 크로머! 지금은 모르겠지만… 곧 돈이 더 생길지도 몰라. 내일이나 모레쯤.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건 내 알 바 아냐. 난 너한테 해코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놈이 아니야. 알다시피 난 점심 전에라도 내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난 가난해. 넌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점심도 나보다 좋은 걸 먹잖아. 하지만 아무 말 안 할게. 좋아, 조금 기다려 주지. 모레 오후에 휘파람으로 부를 테니 그때 정리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크로머가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여러 번 들은 소리였다.

"응." 내가 말했다. "알아."

크로머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가 버렸다. 우리 사이에 거래가 하나 있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

오늘도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갑자기 다시 듣는다면 나는 소스라칠 것 같다. 그때부터 나는 그 소리를 자주 들었고, 언제나 끊임없이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휘파람이 파고들지 않는 곳도, 놀이도, 일도, 생각도 없었다. 그 소리가 나를 매이게 했고, 그 소리가 이제 내 운명이었다. 부드럽고 빛깔 고운 가을 오후면 나는 내가 무척 좋아하던 우리 집의 작은 꽃밭에 나가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 기이한 충동이 일어 지나간 시절의 사내아이 놀이를 다시 하곤 했다. 말하자면 나보다 어린 아이, 아직 착하고 자유롭고 죄 없고 안전한 아이 노릇을 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로, 늘 기다리면서도 늘 소스라치게 훼방 놓고 불시에 덮쳐 오는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어디선가 울려 와서 실을 끊고 상상을 부서뜨렸다. 그러면 나는 가야 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애를 따라 고약하고 추한 곳으로 가서 그간의 일을 고하고 돈 독촉을 받아야 했다. 그 모든 일은 아마 몇 주 동안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몇 해,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다. 돈이 있을 때는 드물었다. 리나가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에 놓아둘 때 거기서 훔친 5페니히나 10페니히짜리 동전 하나가 고작이었다. 그때마다 크로머는 나를 꾸짖고 경멸을 퍼부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채려는 것도 나였고, 자기 것을 훔치는 것도 나였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나라고 했다! 살면서 곤궁이 그토록 가슴 가까이 차오른 적은 많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절망과 더 큰 굴종을 느껴 본 적은 드물다.

저금통은 놀이용 칩으로 채워 제자리에 갖다 두었고, 아무도 그것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도 언제 내게 들이닥칠지 몰랐다. 크로머의 거친 휘파람 소리보다도, 어머니가 조용히 내게 다가올 때가 더 무서울 때가 많았다. 혹시 저금통 일을 물으러 오는 건 아닐까?

내가 여러 번 돈 없이 내 악마 앞에 나타나자, 크로머는 다른 수를 써서 나를 괴롭히고 부려 먹기 시작했다. 나는 크로머 대신 일을 해야 했다. 크로머는 제 아버지 심부름을 다녀야 했는데, 그것을 내가 대신 다녀와야 했다. 아니면 크로머는 내게 어려운 일을 해내라고 시켰다. 10분 동안 한 발로 깡충깡충 뛰라거나, 지나가는 사람의 웃옷에 종잇조각을 붙이라거나. 여러 밤 꿈속에서도 나는 이 고역을 이어 갔고, 가위에 눌려 땀에 젖은 채 누워 있었다.

한동안 나는 앓았다. 자주 토했고 쉽게 오한이 났으며, 밤이면 땀을 흘리며 열에 들떠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나를 무척 걱정해 주었는데, 나는 그 걱정을 믿음으로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괴로웠다.

한번은 저녁에 내가 벌써 침대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 한 조각을 가져왔다. 착하게 군 날 저녁이면 잠들기 전에 그런 위로의 한 입을 자주 받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었다. 이제 어머니는 거기 서서 초콜릿 조각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너무 괴로워서 고개만 저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겨우 이렇게 내뱉을 수 있었다. "싫어요! 싫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초콜릿을 머리맡 탁자에 올려놓고 나갔다. 이튿날 어머니가 그 일을 캐물으려 하자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척했다. 한번은 어머니가 의사를 데려왔는데, 의사는 나를 진찰하더니 아침마다 찬물로 몸을 닦으라고 처방했다.

그 무렵 내 상태는 일종의 광기였다. 우리 집의 반듯한 평화 한가운데서 나는 유령처럼 겁에 질려 괴로워하며 살았고, 다른 식구들의 삶에 끼지 못했으며, 단 한 시간이라도 나를 잊는 일이 드물었다. 짜증이 나서 자주 나를 다그치던 아버지에게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차갑게 굴었다.

제2장 카인

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낸 구원은 전혀 뜻밖의 쪽에서 왔고, 그와 함께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내 삶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내 안에서 계속 힘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새 학생이 하나 들어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 온 넉넉한 과부의 아들이었고, 소매에 검은 상장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 애는 나보다 높은 학년이었고 나이도 몇 살 위였지만, 모두가 그랬듯 나도 곧 그 애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 기이한 학생은 겉보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았고 누구에게도 사내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으며, 유치한 우리 사내아이들 사이에서 그 애는 어른 남자처럼, 아니 신사처럼 낯설고 이미 다 자란 모습으로 움직였다. 인기는 없었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에는 더더욱 끼지 않았으며, 다만 선생들을 대할 때의 자신만만하고 단호한 말투만은 다른 아이들 마음에 들었다. 그 애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에서 이따금 있는 일이었지만, 어느 날 무슨 까닭인지 아주 넓은 우리 교실에 다른 반이 하나 더 들어와 앉게 되었다.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꼬마들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큰 아이들은 작문을 써야 했다. 선생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두들겨 넣는 동안 나는 자꾸만 데미안 쪽을 건너다보았는데, 그 얼굴이 묘하게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영리하고 밝고 더없이 단단한 그 얼굴이 정신을 모아 주의 깊게 과제 위에 숙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애는 숙제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 제 문제를 파고드는 연구자처럼 보였다. 사실 나는 그 애가 그리 달갑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 반감이 있었다. 그 애는 내게 너무 우월하고 차가웠고, 그 됨됨이가 너무 도전적으로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 눈에는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어른의 표정이, 조금 슬프면서 그 속에 조롱이 번득이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좋든 싫든 나는 그 애를 줄곧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그 애가 한 번이라도 나를 쳐다보면 깜짝 놀라 눈길을 거두었다. 오늘 그때 학생이던 그 애의 모습을 곰곰이 떠올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애는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아이와 달랐고, 철저히 저만의 개성이 찍혀 있었으며, 그래서 눈에 띄었다. 그러면서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고, 농부 아이들 사이에 섞여 그들과 같아 보이려고 갖은 수고를 다하는 변장한 왕자처럼 옷을 입고 행동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애가 내 뒤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흩어지고 나자 그 애는 나를 앞질러 와서 인사를 했다. 그 인사도 우리 학생들 말투를 흉내 내긴 했지만, 아주 어른스럽고 정중했다.

"같이 좀 걸을까?" 그 애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우쭐해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집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었다.

"아, 거기?" 데미안이 웃으며 말했다. "그 집이라면 알아. 너희 집 현관문 위에 기이한 게 하나 붙어 있잖아, 그걸 보자마자 관심이 가더라."

나는 그 애가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듣지 못했고, 그 애가 나보다 우리 집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놀랐다. 아치형 대문 꼭대기에 쐐기돌로 일종의 문장(紋 章)이 박혀 있기는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닳아 납작해지고 여러 번 페인트가 덧칠되어 있었으며, 내가 아는 한 우리나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난 그거 잘 몰라." 나는 쭈뼛거리며 말했다. "새인가 뭐 그런 건데, 아주 오래된 거래. 이 집이 옛날에 수도원에 딸린 집이었다나 봐."

"그럴 수도 있지."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한번 잘 봐 둬! 그런 건 꽤 재미있을 때가 많거든. 내 생각엔 새매 같아."

우리는 계속 걸었고, 나는 몹시 쑥스러웠다. 갑자기 데미안이 무언가 우스운 것이 떠오른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아까 너희 수업을 나도 들었지." 데미안이 활기차게 말했다. "이마에 표를 달고 다닌 카인[1] 이야기 말이야, 그렇지? 그 이야기 마음에 들어?"

아니, 우리가 배워야 했던 것 가운데 무엇이든 마음에 든 적은 거의 없었지만, 꼭 어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아서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나는 그 이야기가 꽤 마음에 든다고 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한테 그런 척 안 해도 돼, 이 친구야.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말 꽤 기이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 대부분보다 훨씬 더 기이한 것 같아. 선생님은 별말 안 하고 그냥 신이니 죄니 하는 뻔한 얘기만 했잖아. 그런데 내 생각엔…" 데미안은 말을 끊고 빙긋 웃더니 물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 관심 있어?"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엔," 데미안이 말을 이었다. "카인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물론 옳고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걸 전부 선생들하고는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대개 훨씬 더 그럴듯한 뜻이 나와. 이를테면 이 카인 말이야, 그리고 그 이마의 표 말이야. 우리가 배운 설명으로는 영 개운하지가 않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누가 싸우다가 제 형제를 때려죽이는 일이야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겁이 나서 꼬리를 내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비겁함 때문에 일부러 훈장까지 받는다는 건, 그 훈장이

그 사람을 지켜 주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겁먹게 한다는 건 꽤 이상하지 않아?"

"그러네." 나는 흥미가 생겨 말했다. 그 이야기가 나를 붙들기 시작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데미안이 내 어깨를 탁 쳤다.

"아주 간단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그 이야기가 시작된 바탕은 표였어.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얼굴에 다른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감히 그 남자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 남자한테,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기가 눌렸지. 그런데 그건 아마, 아니 틀림없이, 우체국 소인처럼 정말로 이마에 찍힌 표는 아니었을 거야. 살다 보면 그렇게 거칠게 돌아가는 일은 드물거든. 오히려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 으스스한 것, 사람들이 늘 보아 익숙한 것보다 눈빛에 정신과 대담함이 조금 더 담겨 있는 것이었겠지. 그 남자에게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남자를 꺼렸어. 그 남자에게는 '표'가 있었던 거지. 그걸 사람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가 옳다고 해 주는 쪽을 원하거든. 사람들은 카인의 자식들이 무서웠어, 그들에게는 '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표를 있는 그대로, 남보다 뛰어나다는 영예로 설명하지 않고 그 반대로 설명한 거야. 그 표를 단 녀석들은 으스스하다고 했지. 실제로도 그랬고. 용기와 기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언제나 몹시 으스스하거든. 겁이 없고 으스스한 한 족속이 돌아다닌다는 건 아주 불편한 일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족속에게 앙갚음하려고, 그동안 견뎌 온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벌충해 보려고, 그 족속에게 별명과 꾸며 낸 이야기를 덧씌운 거야. 알겠어?"

"응… 그러니까… 그럼 카인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다 사실은 참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렇게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은 언제나 참말이야. 하지만 언제나 올바르게 기록되거나 올바르게 설명되는 건 아니지. 간단히 말해, 내 생각에 카인은 멋진 녀석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덧씌운 거야. 그 이야기는 그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벌리는 그런 소문이었는데, 카인과 그 자식들이 정말로 일종의 '표'를 달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점에서는 아주 참말이었지."

나는 몹시 놀랐다.

"그럼 사람을 죽인 그 일도 참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마음이 흔들려서 물었다.

"아니, 그건 참말이야! 틀림없이 참말이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죽였어. 그게 정말 제 형제였는지는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은 형제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죽인 거야. 어쩌면 영웅다운 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어쨌든 다른 약한 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크게 불평했는데, 누가 그들한테 '왜 너희도 그냥 그자를 때려죽이지 않느냐?' 하고 물으면, '우리는 겁쟁이니까'라고는 하지 않고 '그럴 수 없다. 그자에게는 표가 있다. 신이 그자에게 표를 찍었다!' 했지. 속임수는 대충 그렇게 생겨났을 거야. 아, 내가 너를 너무 붙잡아 두었네. 그럼 잘 가!"

데미안은 알트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나를 혼자 남겨 두었고, 나는 어느 때보다도 어리둥절했다. 그 애가 가 버리자마자, 그 애가 한 말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카인이 고귀한 사람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가 영예라니! 터무니없었고, 신을 모독하는 불경한 소리였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잖아, 아벨을 사랑하셨잖아? 아니, 말도 안 돼!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리면서 살얼음판 위로 꾀어내 미끄러지게

하려 했던 게 아닐까 하고 짐작했는데, 그 애는 지독하게 영리한 녀석이었고, 말솜씨도 대단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니…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든 다른 이야기든 이토록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프란츠 크로머를 이렇게 까맣게, 몇 시간 동안, 저녁 내내 잊은 적도 없었다. 집에서 나는 성경에 실린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았는데, 이야기는 짧고 분명했고, 거기서 특별하고 은밀한 해석을 찾는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다. 그렇다면 살인자는 누구나 자기가 하느님의 총애를 받는 자라고 우길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건 헛소리였다. 다만 데미안이 그런 것을 말하는 품만은 근사했다.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가볍고 멋들어지게, 게다가 그런 눈을 하고서!

물론 나 자신에게도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 몹시 어긋난 것이 있었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았고, 나 자신도 일종의 아벨이었는데, 이제는 그토록 깊이 '다른' 세계에 빠져 그토록 타락하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내 탓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 그때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라 한순간 숨이 막힐 뻔했다. 지금의 비참함이 시작된 그 고약한 저녁, 아버지와 그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한꺼번에 꿰뚫어 보고 경멸했다! 그래, 그때 카인이고 표를 단 나 자신이, 이 표는 치욕이 아니라 영예이며 나는 내 악함과 내 불행 덕분에 아버지보다,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이 서 있다고 상상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이렇게 또렷한 생각의 모습으로 겪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으니, 그것은 그저 느낌들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자부심으로 가득 채우는 이상한 마음의 움직임들이 한꺼번에 확 타올랐을 뿐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데미안은 겁 없는 자들과 겁쟁이들을 두고 얼마나 이상하게 말했던가! 카인의 이마에 있는 표를 얼마나 묘하게 풀이했던가! 그러면서 그 애의 눈, 어른의 것 같은 그 기이한 눈은 얼마나 기이하게 빛났던가! 그리고 흐릿하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 애 자신이, 이 데미안이 일종의 카인이 아닐까? 자기가 카인과 닮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왜 카인을 편들까? 그 애 눈빛에는 왜 저런 힘이 있으며, 따지고 보면 경건하고 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인 '다른 사람들', 그 겁 많은 사람들을 두고 왜 저렇게 비웃듯이 말할까?

나는 이 생각들을 끝맺지 못했다. 우물에 돌 하나가 떨어졌다. 그 우물은 내 어린 영혼이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카인과 살인과 표에 얽힌 이 일은 깨달음과 의심과 비판을 향한 내 모든 시도가 저마다 출발하는 지점이었다.

◆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아챘다. 카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도 데미안에게 마음이 쏠려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새로 온 애'를 두고 숱한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들을 지금 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하나가 그 애를 비추는 빛이 될 테고, 하나하나 풀이해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처음에 데미안의 어머니가 아주 부자라는 말이 돌았다는 것뿐이다. 또 그 어머니는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아들도 가지 않는다고들 했다. 유대인이라고 아는 체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몰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그다음에는 막스 데미안이 장사라는 옛날이야기 같은 소문이 돌았다. 확실한 것은, 데미안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겁쟁이라고 부른 그 반에서 제일 힘센 아이를 데미안이

무시무시하게 꺾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 말로는, 데미안이 한 손으로 그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꽉 누르기만 했는데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아이는 나중에 슬그머니 자리를 떴으며 며칠 동안 팔을 쓰지 못했다고 했다. 하룻저녁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까지 돌았다. 한동안은 무슨 말이든 떠돌았고, 무슨 말이든 믿었으며, 모든 것이 흥미진진하고 신기했다. 그러다 한동안은 다들 시들해졌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우리 학생들 사이에 새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데미안이 여자애들과 가깝게 어울리고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사이 프란츠 크로머와 얽힌 내 일은 피할 수 없는 길을 따라 계속 흘러갔다. 나는 크로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크로머가 중간중간 며칠씩 나를 내버려 둘 때도 나는 여전히 그 애에게 묶여 있었다. 꿈속에서 크로머는 내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살았고, 현실에서 내게 하지 않은 일을 내 상상은 꿈속에서 크로머에게 시켰으며, 그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크로머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현실보다 이런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고(나는 늘 꿈을 많이 꾸는 아이였다), 이 그림자들에게 힘과 생명을 빼앗겼다. 무엇보다 크로머가 나를 학대하는 꿈을, 나에게 침을 뱉고 내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앉는 꿈을 자주 꾸었고, 더 고약하게는 크로머가 나를 꾀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꿈, 아니 꾀는 것이 아니라 그 막강한 힘으로 그냥 억지로 시키는 꿈을 꾸었다. 이런 꿈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꿈, 반쯤 미쳐서 깨어난 그 꿈은 내 아버지를 죽이려 덤비는 꿈이었다. 크로머는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여 주었고, 우리는 가로수 길의 나무들 뒤에 서서 누군가를 노리며 숨어 있었다. 누구를 노리는지 나는 몰랐다. 그런데 누군가 걸어오고, 크로머가 내 팔을 꾹 눌러 내가 찔러야 할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알려 주었을 때, 그것은 내 아버지였다. 그때 나는 잠에서 깼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나는 카인과 아벨은 아직 생각했지만, 데미안은 거의 떠올리지 않았다. 데미안이 처음으로 다시 내게 다가온 것은, 기이하게도 역시 꿈속에서였다. 나는 또 내가 학대당하고 폭행당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크로머가 아니라 데미안이 내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새로운 일이었고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크로머에게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당했던 모든 것을 나는 데미안에게서는 기꺼이, 두려움만큼이나 큰 환희가 담긴 느낌으로 당했다. 이 꿈을 나는 두 번 꾸었고, 그 뒤로는 다시 크로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꿈속에서 겪은 일과 현실에서 겪은 일을 나는 이제 더는 정확히 가르지 못한다. 어쨌든 크로머와의 고약한 관계는 제 길을 갔고, 마침내 자잘한 도둑질로 모은 돈으로 그 애에게 빚진 액수를 다 갚았을 때에도 끝나기는커녕 이어졌다. 아니, 이제 크로머는 그 도둑질을 알고 있었다.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늘 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때보다도 크로머의 손아귀에 있었다. 크로머는 아버지에게 다 말하겠다고 자주 위협했고, 그럴 때면 두려움보다도, 처음부터 내가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깊은 후회가 더 컸다. 그렇지만 그토록 비참했으면서도 나는 모든 것을 뉘우치지는 않았다. 적어도 늘 뉘우치지는 않았고, 이따금 모든 것이 이래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내 위에 액운이 드리워 있었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 해 봐야 소용없었다.

아마 부모는 내 이런 상태로 적잖이 괴로워했을 것이다. 낯선 정신이 나를 덮쳤고, 나는 그토록 정답던 우리 식구들 사이에 더는 어울리지 못했다. 그런데도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듯 미칠 듯한 향수가 자주 나를 덮쳤다. 사람들은, 특히 어머니는 나를 악당보다는 환자처럼 대했다. 그러나 사정이 실제로 어떤지는 두 누이의 태도에서 가장 잘 보였다. 몹시 조심스러우면서도 나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그 태도에는, 내가

일종의 무엇에 쓴 아이여서 꾸짖기보다는 딱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 안에 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또렷이 드러났다. 사람들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나는 느꼈고, 그 기도가 헛되다는 것도 느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은 그리움, 제대로 고해하고 싶은 갈망이 자주 불타올랐지만,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모든 것을 제대로 말하고 설명하지는 못하리라는 것도 미리 느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정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무척 아끼고, 아니 딱하게 여겨 주겠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일종의 탈선으로 여기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것은 운명이었는데도.

아직 열한 살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사람도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을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자기 감정의 일부를 생각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어른은 아이에게서 그런 생각을 찾아보다가 찾지 못하면, 아이에게는 체험도 없다고 여겨 버린다. 그러나 나는 살면서 그때만큼 깊이 겪고 괴로워한 적이 드물다.

◆

비 오는 어느 날이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애가 성터 광장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는 거기 서서 기다리며, 시커멓게 물이 뚝뚝 듣는 나무들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젖은 밤나무 잎을 발로 헤집고 있었다. 돈은 없었지만 크로머에게 무엇이라도 줄 수 있도록 케이크 두 조각을 몰래 챙겨 지니고 있었다. 나는 진작부터 이렇게 어딘가 구석에 서서 그 애를 기다리는 데, 그것도 자주 아주 오래 기다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듯 그것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크로머가 왔다. 오늘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크로머는 내 옆구리를 몇 번 쿡쿡 쥐어박고, 웃고, 케이크를 빼앗아 가고, 심지어 눅눅한 담배 한 개비를 권하기까지 했는데(나는 받지 않았다), 여느 때보다 다정했다.

"참." 크로머가 가면서 말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 두는데, 다음번엔 네 누나를 데려와도 되겠다. 큰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랬지?"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리둥절해서 크로머를 쳐다보기만 했다.

"못 알아들어? 네 누나를 데려오라고."

"응, 크로머, 하지만 그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되고, 누나도 따라오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이 또 하나의 괴롭힘이자 핑계일 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크로머는 자주 그랬다. 무언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나를 겁에 질리게 하고 모욕을 준 다음, 못 이기는 척하며 조금씩 흥정에 응해 주는 것이 크로머의 오랜 버릇이었다. 그러면 나는 돈이나 다른 것을 바쳐서 풀려나야 했다.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크로머는 거의 화를 내지 않았다.

"흥, 그래." 크로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잘 생각해 봐. 난 네 누나랑 알고 지내고 싶어. 언젠간 될 거야. 그냥 누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면, 내가 거기 끼어들게. 내일 휘파람으로 부를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

크로머가 가고 나자 문득 그 애가 바라는 것의 뜻이 어렴풋이 짐작되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아이였지만, 사내아이와 여자아이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서로 무언가 은밀하고 상스럽고 금지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더러…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갑자기 또렷해졌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곧바로 섰지만,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크로머가 내게 어떻게 앙갚음할지는 감히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나를 위한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로는 아직 모자랐던 것이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텅 빈 광장을 하염없이 걸었다. 새로운 괴로움, 새로운 노예살이!

그때 싱그럽고 낮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화들짝 놀라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뒤따라 달려왔고, 손 하나가 뒤에서 부드럽게 나를 붙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순순히 붙잡혔다.

"너였어?"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깜짝 놀랐잖아!"

데미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길이 지금처럼 어른의 것, 위에 서서 꿰뚫어 보는 사람의 것이었던 적은 없었고, 우리는 그동안 오래 서로 말을 나누지 않은 터였다.

"미안해." 데미안이 정중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그 말투로 말했다. "그런데 있잖아, 그렇게 쉽게 놀라면 안 돼."

"그래도 놀랄 수도 있잖아."

"그런 것 같네. 그런데 봐.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한 사람 앞에서 네가 그렇게 움찔하면, 그 사람은 생각하기 시작해. 이상하게 여기고 궁금해하면서, 네가 참 기이하게 잘 놀란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은 겁을 먹고 있을 때만 그렇게 움찔한다고 생각하지. 겁쟁이들은 늘 겁을 먹고 있거든. 그런데 내 생각에 넌 사실 겁쟁이는 아니야. 그렇지? 아, 물론 영웅도 아니지. 네가 무서워하는 일들이 있고,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건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래, 사람을 무서워하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 너 나는 안 무섭지? 아니면 무서워?"

"아, 아니, 전혀."

"그거 봐. 그런데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있지?"

"모르겠어… 날 좀 내버려 둬.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데미안은 나와 걸음을 맞추었다(나는 달아날 생각에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옆에서 그 애의 눈길이 느껴졌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 데미안이 다시 말을 꺼냈다. "내가 너한테 좋은 뜻으로 이러는 거라고. 어쨌든 나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너랑 실험을 하나 해 보고 싶어. 재미도 있고, 너도 거기서 아주 쓸모 있는 걸 하나 배울 수 있을 거야. 잘 봐! 그러니까 나는 가끔 독심술이라는 재주를 부려 보는데, 마법 같은 건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 아주 묘해 보여서 사람들을 꽤 놀라게 할 수 있어. 자,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나는 네가 좋거나, 네게 관심이 있어서, 네 속이 어떤지 알아내고 싶은 거야. 그러려고 벌써 첫걸음을 뗐어. 내가 너를 놀라게 했고, 그러니까 넌 잘 놀라는 아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네가 무서워하는 일과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 올까? 사람은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면, 그건 그 누군가에게 자기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내주었기 때문이야. 이를테면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해 봐.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휘두를 힘을 갖게 되지. 알아듣겠어? 뻔하잖아, 그렇지?"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그 애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했고 너그럽기도 했지만, 다정한 기색은 조금도 없이 오히려 엄했으며, 거기에는 정의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애는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알아들었어?" 데미안이 한 번 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했잖아, 독심술은 우스워 보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이를테면 내가 언젠가 너한테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 줬을 때 네가 나를 두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나는 꽤 정확히 말해 줄 수 있어. 뭐,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네가 언젠가 내 꿈을 꾸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그냥 두자! 넌 영리한 애야. 대부분은 너무 멍청하거든! 나는 믿을 만한 영리한 애하고 가끔 이야기하는 게 좋아. 너도 괜찮지?"

"응, 그럼. 그런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그 재미있는 실험이나 계속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건 이거야. 소년 S는 잘 놀란다. 누군가를 무서워한다. 아마 그 다른 사람과 자기한테 몹시 거북한 비밀을 하나 나눠 갖고 있다. 대충 맞아?"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 애의 목소리에, 그 애의 힘에 굴복해 고개만 끄덕였다. 저건 나 자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닐까? 모든 것을 아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나 자신보다 더 잘, 더 또렷하게 아는 목소리가?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껏 쳤다.

"그러니까 맞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딱 하나만 더 묻자. 아까 저기서 가 버린 녀석 이름이 뭔지 알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건드려진 내 비밀이 아프게 몸을 웅크리며 안으로 움츠러들었고, 빛 속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무슨 녀석? 아무도 없었어. 나 혼자였어."

데미안이 웃었다.

"그냥 말해!" 데미안이 웃으며 말했다. "이름이 뭐야?"

나는 속삭였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데미안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눈치가 빠르구나. 우린 친구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너한테 말해 줄 게 있어. 그 크로머인지 뭔지 하는 녀석은 나쁜 놈이야. 얼굴만 봐도 불한당이라는 걸 알겠어! 넌 어떻게 생각해?"

"응, 맞아." 나는 한숨을 토했다. "그 애는 나빠. 사탄이야! 하지만 그 애가 아무것도 알면 안 돼! 제발, 그 애가 아무것도 알면 안 돼. 너 그 애 알아? 그 애도 너 알아?"

"걱정 마! 그 녀석은 갔고, 나를 몰라. 아직은. 하지만 꼭 한번 알고 지내고 싶긴 해. 초등학교 다니지?"

"응."

"몇 학년?"

"5학년. 하지만 그 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걱정 마, 너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마 그 크로머 얘기를 좀 더 해 줄 생각은 없겠지?"

"못 해! 싫어, 날 내버려 둬!"

데미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쉽네." 그러다 데미안이 말했다. "실험을 더 해 볼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널 괴롭힐 생각은 없어. 그래도 그 녀석을 무서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너도 알지, 그렇지?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니까 떨쳐 내야지, 네가 제대로 된 사내가 되고 싶으면 그걸 꼭 떨쳐 내야 하거든. 알겠어?"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하지만 안 돼. 넌 모르잖아…"

"내가 꽤 많은 걸 안다는 건 봤잖아.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혹시 그 녀석한테 돈을 빚졌어?"

"응, 그것도 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말할 수 없어, 못해!"

"그러니까 네가 그 녀석한테 빚진 만큼 내가 돈을 줘도 소용없다는 거지? 그 정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그리고 부탁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한마디도! 그러면 난 불행해진단 말이야!"

"나를 믿어, 싱클레어. 너희 비밀은 나중에 언젠가 나한테 털어놓게 될 거야…"

"절대, 절대 안 해!" 나는 격하게 소리쳤다.

"네 마음대로 해. 내 말은 그냥, 어쩌면 나중에 언젠가 나한테 더 말해 줄지도 모른다는 거야. 물론 네가 원해서. 설마 내가 크로머 그 녀석처럼 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 아니… 하지만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전혀 몰라. 그냥 생각해 볼 뿐이야. 그리고 나는 절대 크로머처럼 굴지 않을 거야. 그건 믿어도 돼. 넌 나한테 빚진 것도 없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나는 차츰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데미안이 아는 것은 갈수록 더 수수께끼 같았다.

"이제 집에 갈게." 데미안이 그렇게 말하고 빗속에서 로덴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만 다시 말해 둘게. 그 녀석을 떨쳐 내야 해! 정 다른 수가 없으면 때려죽여 버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감탄할 거고, 그게 마음에 들 거야. 나도 도와줄게."

나는 다시 겁이 났다. 카인 이야기가 갑자기 다시 떠올랐다. 내 둘레에 으스스한 것이 너무 많았고, 나는 으스스해져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래, 좋아." 막스 데미안이 빙그레 웃었다. "그냥 집에 가! 그건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때려죽이는 게 제일 간단하겠지만. 이런

일에서는 제일 간단한 게 언제나 제일 좋거든. 네 친구 크로머 손에 붙들려 있어 봐야 좋을 게 없어."

집에 돌아오니 꼭 한 해 동안 떠나 있었던 것만 같았고,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머 사이에 미래 같은 것, 희망 같은 것이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몇 주 몇 주 동안 내 비밀을 안고 얼마나 끔찍하게 혼자였는지 알았다. 그리고 곧바로, 부모 앞에서 고해하면 마음은 가벼워지겠지만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하리라는, 여러 번 곰곰이 생각했던 일이 떠올랐는데,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낯선 남에게 거의 고해를 한 셈이었고,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내게로 훅 날아왔다!

◆

그래도 내 두려움은 아직 한참 가시지 않았고, 나는 원수와 길고 무시무시한 실랑이를 벌여야 하리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토록 조용히, 완전히 은밀하고 잠잠하게 흘러가서 그만큼 더 기이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리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그쳤다. 하루, 이틀, 사흘, 한 주 내내. 나는 감히 그것을 믿지 못했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을 바로 그때 크로머가 갑자기 다시 거기 서 있지 않을까 속으로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러나 크로머는 사라졌고,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 얻은 자유를 미심쩍어하며 나는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프란츠 크로머와 마주쳤다. 크로머는 자일러 골목을 내려오다가 곧장 나와 맞닥뜨렸는데, 나를 보자 움찔하더니 얼굴을 험하게 일그러뜨리고는,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두말없이 휙 돌아서 오던 길로 도로 가 버렸다.

그것은 내게 듣도 보도 못한 순간이었다! 내 원수가 내게서 달아났다! 나의 사탄이 나를 무서워했다! 기쁨과 놀라움이 온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싱클레어. 네가 어떻게 지내나 한번 들어 보고 싶었어. 이제 크로머가 너를 가만 내버려 두지, 그렇지?"

"네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도무지 모르겠어. 그 애가 아예 나타나지 않아."

"잘됐네. 혹시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면(안 그럴 것 같지만, 워낙 뻔뻔한 녀석이니까) 데미안을 생각하라고만 해."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 애한테 싸움을 걸어서 두들겨 팼어?"

"아니,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너하고 이야기하듯이 그 녀석하고도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러면서 너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라는 걸 깨우쳐 줄 수 있었지."

"아, 설마 그 애한테 돈을 준 건 아니지?"

"아니, 이 녀석아. 그 길은 네가 이미 가 봤잖아."

내가 아무리 캐물으려 해도 데미안은 몸을 빼고 가 버렸고, 나는 그 애에게 품었던 예전의 그 답답한 감정, 고마움과 꺼림, 감탄과 두려움, 호감과 마음속의 거부감이 기이하게 뒤섞인 감정과 함께 남겨졌다.

나는 머지않아 데미안을 다시 만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그리고 카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리라 마음먹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고마움이란 애초에 내가 믿는 덕목이 결코 아니며, 그것을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하기에,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보인 그 철저한 배은망덕에도 그리 놀라지 않는다. 그 애가 나를 크로머의 발톱에서 풀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병들고 망가진 채 살았으리라고 오늘 나는 확신한다. 이 해방을 그때도 나는 이미 내 어린 삶의 가장 큰 체험으로 느꼈지만, 나는 그 애가 기적을 이루어 내자마자, 나를 풀어 준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쪽에 내버려 두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배은망덕은 내게 기이하지 않다. 내게 이상한 것은 오직 그때 내가 보인 호기심의 결여뿐이다. 데미안 덕분에 처음 닿게 된 그 비밀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단 하루라도 태연히 계속 살아갈 수 있었으며, 카인에 대해, 크로머에 대해, 독심술에 대해 더 듣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누를 수 있었을까?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랬다. 나는 갑자기 악마의 그물에서 풀려난 나를 보았고, 세상이 다시 밝고 즐겁게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으며, 더는 두려움의 발작과 목을 조르는 가슴 두근거림에 시달리지 않았다. 주문이 풀렸다. 나는 더는 고통받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다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학생이었다. 내 본성은 되도록 빨리 다시 균형과 평온을 찾으려 했고, 그래서 무엇보다 그 숱한 추하고 위협적인 것을 멀리 밀어내 잊으려 애썼다. 내 죄와 두려움의 그 길고 긴 이야기가 놀랍도록 빨리 기억에서 빠져나갔고, 겉보기에는 아무 흉터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고 구해 준 이를 그만큼 빨리 잊으려 했던 까닭도 오늘 나는 이해한다. 저주받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크로머 밑에서 겪은 끔찍한 노예살이에서, 나는 다친 영혼의 모든 충동과 힘을 다해 예전에 행복하고 만족했던 곳으로 달아났다. 다시 열린 잃어버린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로, 깨끗함의 향기로, 하느님의 마음에 들던 아벨의 경건함으로.

데미안과 짧은 대화를 나눈 바로 이튿날, 되찾은 자유를 마침내 완전히 믿게 되어 더는 다시 빠질까 두렵지 않게 되자, 나는 그토록 자주 간절히 바랐던 일을 했다. 고해를 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서 자물쇠가 망가지고 돈 대신 놀이용 칩이 든 작은 저금통을 보여 주었고, 내 잘못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악한 괴롭힘꾼에게 묶여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금통을 보았고, 달라진 내 눈빛을 보았고, 달라진 내 목소리를 들었고, 내가 나았다는 것을, 내가 어머니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벅찬 감정으로 내가 다시 받아들여지는 잔치를, 탕자의 귀향을 치렀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 데려갔고, 이야기는 되풀이되었으며, 물음과 놀라움의 외침이 쏟아졌고, 부모는 둘 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 근심에서 풀려나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근사했고, 모든 것이 이야기책에서처럼 되었으며, 모든 것이 놀라운 조화 속으로 풀려 들어갔다.

이 조화 속으로 나는 이제 진정한 열정으로 달아났다. 다시 평화를 찾고 부모의 믿음을 되찾았다는 것을 나는 아무리 누려도 모자랐다. 나는 집안의 모범 소년이 되었고, 어느 때보다 누이들과 많이 놀았으며, 예배 때면 구원받고 회심한 자의 환희에 찬 마음으로 정다운 옛 찬송을 따라 불렀다. 진심이었고, 거짓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것은 전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내가 데미안을 잊어버린 일을 참되게 설명해 주는 단 하나의 지점이 있다. 나는 데미안에게 고해를 했어야 했다! 그 고해는 덜 그럴싸하고 덜 감동적이었겠지만, 내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모든 뿌리로 예전의 낙원 같은 세계에 매달렸고, 집에 돌아와

은총 속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 애 역시, 크로머와는 달랐지만 그래도 역시, 그 애 역시 유혹하는 자였고, 그 애 역시 나를 두 번째 세계, 악하고 나쁜 세계와 이어 주었는데, 나는 이제 그 세계를 영영 알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이 방금 다시 아벨이 된 지금, 나는 아벨을 저버리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을 거들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사정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이랬다. 나는 크로머와 악마의 손에서 구원받았지만, 내 힘과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길을 걸어 보려 했지만, 그 길은 내게 너무 미끄러웠다. 이제 다정한 손 하나가 붙잡아 나를 구해 주자, 나는 더는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어머니의 품으로, 울타리 쳐진 경건하고 온순한 어린 시절의 아늑함 속으로 달려 돌아갔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더 의존적이고 더 아이답게 굴었다. 크로머에게 매였던 것을 새로운 매임으로 바꾸어야 했다. 혼자서 걸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눈먼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옛날의 사랑하는 '밝은 세계'에 매이는 쪽을 골랐다. 그것이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데미안 곁에 머물며 그 애에게 나를 맡겨야 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때는 그 애의 낯선 생각을 정당하게 불신해서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두려움일 뿐이었다. 데미안은 부모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요구했을 것이고, 부추기고 타이르고 비웃고 빈정거려 가며 나를 더 홀로 서게 하려 했을 것이다. 아, 오늘 나는 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길을 걷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반년쯤 뒤에 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산책길에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들이 카인을 아벨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무척 놀라더니, 그것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견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 생각은 이미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에 나타났고 여러 종파에서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를 '카인파'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러나 물론 이 터무니없는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을 부서뜨리려는 악마의 시도일 뿐이라고 했다. 카인이 옳고 아벨이 그르다고 믿는다면, 거기서 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그러니까 성경의 신은 올바르고 유일한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카인파도 그와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이단은 오래전에 인류에게서 사라졌으며, 내 학교 동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아무튼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그만두라고 나를 엄하게 타일렀다.

---

1. 창세기 4장 15절의 「표」. 개역개정은 「가인」으로 적으나 이 책은 문학의 관용대로 「카인」으로 적는다.

제3장 십자가의 도둑

내 어린 시절에 대해서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서 누린 아늑함에 대해서, 아이다운 사랑과 부드럽고 정답고 밝은 둘레 속에서 소박하게 놀며 지낸 나날에 대해서 들려줄 만한 아름답고 여리고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넉넉히 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게 이르려고 내 삶에서 내디딘 걸음들뿐이다. 그 마법을 나도 모르지 않는 그 모든 아름다운 쉼터와 행복의 섬과 낙원을 나는 먼 데서 빛나는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 들어가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년 시절에 아직 머무는 동안에는, 내게 새로 다가온 것, 나를 앞으로 몰아대고 떼어 낸 것만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떠밂은 언제나 '다른 세계'에서 왔고, 언제나 두려움과 억지와 양심의 가책을 함께 몰고 왔으며, 언제나 뒤엎는 힘이 있어서 내가 기꺼이 계속 머물고 싶던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

내 안에 하나의 근원적 충동이, 허락된 밝은 세계에서는 기어들어 숨어 있어야 하는 그 충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새로 발견해야 하는 몇 해가 찾아왔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서서히 깨어나는 성의 감각이 원수이자 부서뜨리는 자로, 금지된 것으로, 유혹이자 죄로 나에게도 덤벼들었다. 내 호기심이 찾는 것, 내게 꿈과 쾌락과 두려움을 지어내는 것, 사춘기의 그 커다란 비밀은 울타리 쳐진 내 어린 시절 평화의 행복에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남들이 하는 대로 했다. 더는 아이가 아닌

아이의 이중생활을 했다. 내 의식은 익숙하고 허락된 것 안에서 살았고, 어렴풋이 떠오르는 새 세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 곁에서 나는 땅 밑 같은 꿈과 충동과 소망 속에서도 살았고, 그 위로 의식의 삶은 갈수록 더 불안한 다리를 놓았다. 내 안의 어린 시절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내 부모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그 깨어나는 생명의 충동을 돕지 않았다. 부모는 그저 지칠 줄 모르는 정성으로, 현실을 부인하고 갈수록 비현실적이고 거짓스러워지는 어린아이의 세계에 계속 눌러살려는 내 가망 없는 시도를 도왔을 뿐이다. 부모가 이런 일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모르며, 내 부모를 탓하지도 않는다. 나 자신과 결판을 내고 내 길을 찾는 것은 내 몫이었고, 좋은 가정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나는 내 몫을 서툴게 해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어려움을 겪는다. 평범한 사람에게 이것은 자기 삶의 요구가 바깥 세계와 가장 거세게 다투는 지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장 쓰라리게 싸워서 얻어 내야 하는 지점이다. 많은 이들은 우리의 운명인 죽음과 새로 태어남을 평생 이 한 번만 겪는다. 어린 시절이 썩어 들며 천천히 무너질 때, 정든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려 하고 우리가 갑자기 우주 공간의 고독과 죽음 같은 냉기를 둘레에서 느낄 때. 그리고 아주 많은 이들은 이 암초에 영영 걸린 채, 되찾을 수 없는 지나간 것에, 잃어버린 낙원의 꿈에 평생 아프게 들러붙어 산다. 그 꿈이야말로 모든 꿈 가운데 가장 고약하고 가장 사람을 죽이는 꿈이다.

이야기로 돌아가자. 어린 시절의 끝을 내게 알려 온 감정들과 꿈의 영상들은 이야기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 '다른 세계'가 다시 와 있었다는 것이다. 한때 프란츠 크로머였던 것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깥에서도 '다른 세계'가 다시 나를 휘두를 힘을 얻었다.

크로머와의 일이 있은 지 몇 해가 지났다. 내 삶의 그 극적이고 죄 많던 시절은 그 무렵 내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짧은 악몽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프란츠 크로머는 진작 내 삶에서 사라졌고, 어쩌다 마주쳐도 나는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러나 내 비극의 다른 한 중요한 인물, 막스 데미안은 더는 내 둘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그 애는 오랫동안 저 멀리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보이기는 했지만 힘을 미치지는 않았다. 차츰 그 애는 다시 가까이 다가왔고, 다시 힘과 영향을 내뿜었다.

그 무렵 데미안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떠올려 보려 한다. 한 해 넘게 그 애와 한 번도 말을 나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애를 피했고, 그 애도 결코 다가오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치면 그 애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럴 때 나는 이따금 그 다정함 속에 조롱이나 빈정거리는 나무람의 가는 울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내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 애와 겪은 이야기도, 그때 그 애가 내게 미친 기이한 힘도, 그 애에게나 나에게나 잊힌 듯했다.

나는 그 애의 모습을 찾아본다. 그리고 이제 그 애를 떠올려 보니, 그 애가 그래도 거기 있었고 내가 그 애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겠다. 그 애가 혼자서, 또는 다른 상급생들 사이에 섞여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이고, 낯설고 외롭고 고요하게, 별처럼 그들 사이를 거니는 모습이, 저만의 공기에 둘러싸여 저만의 법칙대로 사는 모습이 보인다. 아무도 그 애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애와 가깝지 않았다. 어머니만은 예외였는데, 어머니와도 그 애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지내는 것 같았다. 선생들은 되도록 그 애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 애는 좋은 학생이었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따금 우리는 그 애가 어느 선생에게 했다는 무슨 말, 무슨 비꼼이나

말대꾸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퉁명스러운 도전으로 보나 빈정거림으로 보나 더할 나위가 없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니, 그 애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디였던가? 그래, 이제 다시 보인다. 우리 집 앞 골목이었다. 어느 날 나는 거기 서 있는 그 애를 보았다. 손에 수첩을 들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 애는 우리 집 현관문 위에 새가 새겨진 오래된 집안 문장을 베껴 그리고 있었다. 나는 커튼 뒤에 숨어 창가에 서서 그 애를 지켜보았는데, 깊이 놀라며 바라보니 문장을 향한 그 애의 얼굴은 주의 깊고 차갑고 밝았으며, 어른 남자의, 연구자나 예술가의 얼굴, 우월하고 의지로 가득한 얼굴, 기이하게 밝고 차가운 얼굴이었고, 무언가를 아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애가 보인다. 조금 뒤의 일이었다. 길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던 우리는 모두 쓰러진 말 한 마리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말은 아직 끌채에 매인 채 농부의 수레 앞에 쓰러져, 벌름거리는 콧구멍으로 무언가 찾듯 애처롭게 허공에 콧김을 내뿜었고,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피를 흘려 말 옆의 하얀 길바닥 먼지가 천천히 검게 젖어 들었다. 속이 메슥거려 그 광경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데미안의 얼굴이 보였다. 그 애는 앞으로 비집고 나오지 않고, 그 애답게 편안하고 제법 우아한 모습으로 맨 뒤에 서 있었다. 그 애의 눈길은 말의 머리를 향해 있는 듯했고, 다시 그 깊고 고요한, 거의 광신적이면서도 열정은 없는 주의를 띠고 있었다. 나는 그 애를 오래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아직 의식과는 먼 곳에서 무언가 아주 묘한 것을 느꼈다.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것이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어른 남자의 얼굴이라는 것만 본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한 것을 보았다. 그것이 어른 남자의 얼굴도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아니, 느낀 것 같았다. 그 속에 여자의 얼굴 같은 것도 조금 들어 있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 얼굴은 한순간 남자답지도 아이답지도 않고, 늙지도 젊지도 않고,

어딘가 천 년 묵은 듯, 어딘가 시간을 벗어난 듯, 우리가 사는 것과는 다른 시대의 흐름이 찍혀 있는 듯 보였다. 짐승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 아니면 나무나, 별이. 나는 그것을 몰랐다. 어른이 된 내가 지금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 애는 아름다웠는지도, 어쩌면 내 마음에 들었는지도, 어쩌면 싫었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가를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은 다만 이것이었다. 그 애는 우리와 달랐다. 짐승 같았고, 혼령 같았고, 그림 같았다. 그 애가 어땠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애는 달랐다. 우리 모두와 상상도 못 할 만큼 달랐다.

기억이 내게 말해 주는 것은 그 이상은 없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도 일부는 이미 나중에 받은 인상에서 길어 온 것인지도 모른다.

몇 해가 더 지나 나이를 더 먹고서야 나는 마침내 다시 그 애와 가까이 닿게 되었다. 데미안은 관습이 요구하는 대로 같은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견신례를 받지 않았고, 거기에도 곧 다시 소문이 엉겨 붙었다. 학교에서는 또다시 그 애가 사실은 유대인이라느니, 아니 이교도라느니 하는 말이 돌았고, 어떤 아이들은 그 애가 어머니와 함께 아무 종교도 없거나 무슨 터무니없고 고약한 종파에 속해 있다고 아는 체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애가 어머니와 연인처럼 산다는 의심을 들은 기억도 나는 것 같다. 아마 그 애는 그때까지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않고 자랐는데, 이제 그것이 앞날에 무슨 불이익을 가져올까 걱정하게 된 모양이었다. 어쨌든 그 애의 어머니는 이제라도 또래보다 두 해 늦게 그 애를 견신례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서 그 애는 몇 달 동안 견신례 수업에서 내 동무가 되었다.

한동안 나는 그 애를 완전히 멀리했다. 그 애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 애는 너무 많은 소문과 비밀에 싸여 있었고, 무엇보다 크로머 사건 이후 내 안에 남아 있던 빚진 느낌이 거슬렸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나는 내 비밀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내게 견신례 수업은 성에 관한 결정적인 깨우침을 얻는 시기와 겹쳤고,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경건한 가르침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들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고요하고 거룩한 비현실 속에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마 아름답고 값진 것이었겠지만 조금도 절박하거나 가슴 뛰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 다른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더할 나위 없이.

이런 상태 때문에 수업에 무심해질수록 내 관심은 다시 막스 데미안에게로 다가갔다. 무언가가 우리를 이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실을 되도록 정확히 따라가 보아야 한다. 기억하는 한, 그것은 아직 교실에 불이 켜져 있던 이른 아침의 어느 수업 시간에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치던 목사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졸려서 거의 귀 기울이지 않았고 거의 듣지 않았다. 그때 목사가 목소리를 높여 카인의 표에 대해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닿는 듯한, 일깨우는 듯한 것을 느꼈고, 고개를 들어 보니 앞쪽 줄에서 데미안의 얼굴이 내 쪽으로 돌아와 있었다. 무언가 말하는 듯한 밝은 눈이었는데, 그 표정은 조롱일 수도 진지함일 수도 있었다. 그 애는 한순간 나를 보았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목사의 말에 귀를 바짝 기울였고, 목사가 카인과 그 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내 깊은 곳에서 그것이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 다르게도 볼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앎이 느껴졌다!

이 순간부터 데미안과 나 사이에 다시 이어짐이 생겼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처럼 서로 한데 속한다는 느낌이 영혼 속에 생기자마자 그것이 마법처럼 공간으로도 옮아가는 것이 보였다. 그 애가 스스로 그렇게 꾸밀 수 있었는지, 아니면 순전한 우연이었는지 나는 몰랐다. 나는 그때만 해도 우연을 굳게 믿었다. 며칠 뒤 데미안이 갑자기 종교 시간에 자리를 바꾸어 바로 내 앞에 앉았고(아침이면 꽉 들어찬 교실의

비참한 구빈원 같은 공기 한가운데서, 그 애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여리고 산뜻한 비누 냄새를 내가 얼마나 즐겨 들이마셨는지 아직도 기억한다!), 다시 며칠 뒤 그 애는 또 자리를 바꾸어 이제 내 옆에 앉았으며, 거기 그대로 앉아 겨울 내내, 봄 내내 지냈다.

아침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는 졸리고 따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때로 우리 둘은 더없이 주의 깊게 목사의 말을 들었고, 옆자리 동무의 눈짓 하나면 기이한 이야기나 묘한 구절에 내 주의를 돌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애의 다른 눈짓 하나, 아주 분명한 눈짓 하나면 나를 일깨워 내 안에 비판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아주 자주 우리는 나쁜 학생이었고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데미안은 선생에게나 학생들에게나 늘 예의 발랐고, 학생다운 바보짓을 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그 애가 크게 웃거나 떠드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고, 그 애는 한 번도 선생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조용히, 속삭이는 말보다는 손짓과 눈짓으로 그 애는 나를 자기 일에 끼워 줄 줄 알았다. 그 일들은 더러 기이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 애는 학생들 가운데 누가 자기 관심을 끄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내게 말해 주었다. 몇몇은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수업 전에 그 애는 내게 말했다. "내가 엄지로 신호를 보내면, 아무개가 우리 쪽을 돌아보거나 목덜미를 긁거나 할 거야." 그러다 수업 중에 내가 그 일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을 때쯤이면, 막스는 갑자기 눈에 띄는 몸짓으로 엄지를 내 쪽으로 돌렸고, 나는 얼른 그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 아이는 매번 줄에 끌려가는 인형처럼 그 몸짓을 해 보였다. 나는 선생님한테도 한번 해 보라고 막스를 졸랐지만, 그 애는 그러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번은 내가 교실에 들어가면서 오늘 숙제를 못 해 왔으니 목사가 오늘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그 애가 나를 도와주었다. 목사는 교리문답 한 대목을 외우게 할 학생을 찾고 있었는데, 두리번거리던 눈길이 죄지은 기색이 역력한 내 얼굴에 멈췄다. 목사는 천천히 다가와 나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고, 내 이름이 이미 입술에 걸려 있었다. 그때 목사는 갑자기 정신이 흐트러진 듯, 혹은 불안한 듯 칼라를 매만지더니, 자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데미안에게로 다가가 무언가 물으려는 것 같다가, 뜻밖에도 다시 몸을 돌려 한동안 기침을 하고는 다른 학생을 불러냈다.

이런 장난이 무척 재미있었지만, 내 벗이 나에게도 자주 같은 놀이를 한다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아챘다. 학교 가는 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조금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돌아보면, 정말로 그 애가 거기 있곤 했다.

"너 정말로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는 걸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 내가 물었다.

데미안은 기꺼이,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 애다운 어른스러운 태도로 알려 주었다.

"아니." 데미안이 말했다. "그건 안 돼. 목사님은 그런 척하지만, 사람한테는 자유 의지라는 게 없거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게 만들 수도 없어. 하지만 누군가를 잘 관찰할 수는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꽤 정확히 말할 수 있을 때가 많고, 그러면 대개 그 사람이 다음 순간 무엇을 할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아주 간단한 일인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야. 물론 연습이 필요하지."

"이를테면 나비 가운데 어떤 나방들은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드물어. 나방도 다른 모든 동물과 똑같이 번식해서,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지. 그런데 네가 이 나방의 암컷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박물학자들이 여러 번 해 본 실험이야) 밤에 이 암컷한테로 수컷

나방들이 날아와. 그것도 몇 시간 거리에서! 몇 시간 거리라니, 생각해 봐!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수컷들이 모두 그 일대에 단 한 마리 있는 암컷을 알아채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설명해 보려 하지만 쉽지 않아. 좋은 사냥개가 알아챌 수도 없는 흔적을 찾아내 쫓아갈 수 있듯이, 일종의 후각 같은 거겠지. 알겠어? 그런 것들이 있어. 자연은 그런 걸로 가득하고, 아무도 그걸 설명하지 못해. 그런데 내 말은 이거야. 이 나비들의 암컷이 수컷만큼 흔했다면, 수컷들한테 그런 예민한 코는 없었을 거야! 그쪽으로 스스로를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코가 생긴 거지.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떤 일에 온 주의와 온 의지를 쏟으면 그걸 이루게 돼. 그게 다야. 네가 말하는 것도 바로 그래. 한 사람을 충분히 자세히 들여다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 자신보다 더 많이 알게 돼."

'독심술'이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와서, 하마터면 그 말로 그 애에게 그토록 오래전 크로머와 있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할 뻔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둘 사이의 이상한 일이었다. 그 애가 몇 해 전 한 번 그토록 진지하게 내 삶에 끼어들었다는 것을, 그 애도 나도 결코, 단 한 번도 아주 희미하게라도 넌지시 비친 적이 없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고, 아니면 우리 둘 다 상대가 그 일을 잊었으리라 굳게 믿는 것 같았다. 한두 번은 함께 길을 걷다가 프란츠 크로머와 마주친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눈길 한 번 주고받지 않았고, 그 애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물었다. "너는 사람한테 자유 의지가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또 의지를 어떤 일에 단단히 쏟기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내 의지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걸 마음대로 여기로든 저기로든 쏟을 수도 없잖아."

데미안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그 애를 기쁘게 할 때면 늘 그렇게 했다.

"잘 물었어!" 데미안이 웃으며 말했다. "늘 물어야지. 늘 의심하고. 그런데 그건 아주 간단해. 이를테면 그런 나방이 별이나 다른 어디에 의지를 쏟으려 한다면 그렇게는 못 할 거야. 다만, 나방은 그런 건 아예 해 보지도 않아. 자기에게 뜻과 값어치가 있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꼭 가져야만 하는 것만 찾지. 그런데 바로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일도 해내는 거야. 다른 어떤 짐승에게도 없는 마법 같은 여섯째 감각을 키워 내거든! 우리 같은 사람은 물론 짐승보다 운신의 폭이 넓고 관심도 더 많아. 하지만 우리도 비교적 꽤 좁은 테두리에 묶여 있어서 그 밖으로는 나가지 못해. 이런저런 걸 공상할 수는 있지. 이를테면 꼭 북극에 가고 싶다고 상상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걸 해내고 충분히 강하게 원할 수 있는 건 그 소망이 온전히 내 안에 있을 때, 정말로 내 존재가 온통 그 소망으로 차 있을 때뿐이야. 그렇게만 되면, 네 안에서 너한테 명령하는 걸 해 보기만 하면, 그때는 돼. 그때는 네 의지를 좋은 말처럼 수레에 매어 부릴 수 있지. 이를테면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안경을 안 쓰시게 만들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건 안 돼. 그건 그냥 장난이니까. 하지만 지난가을 내가 저 앞자리에서 옮겨 앉겠다는 단단한 의지를 품었을 때는 아주 잘됐어. 그때 갑자기 알파벳 순서로 나보다 앞서는 아이가 하나 나타났지. 그동안 앓아누워 있던 아이였는데, 누군가 그 아이한테 자리를 내줘야 했으니 당연히 내가 그렇게 했어. 바로 내 의지가 그 기회를 당장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 내가 말했다. "그때 나도 아주 묘했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넌 자꾸만 나한테 가까이 다가왔지.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엔 곧바로 내 옆에 와서 앉지 않았잖아. 처음 몇 번은 내 앞자리에 앉았지, 그렇지?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이랬어. 처음 자리에서 옮기고 싶어 했을 때 나 자신도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잘 몰랐어. 그저 더 뒤에 앉고 싶다는 것만 알았지. 너한테

가고 싶다는 게 내 의지였는데, 그게 아직 의식되지 않았던 거야. 그와 동시에 네 의지도 함께 끌어당겨서 나를 도왔어. 그러다 네 앞에 앉고 나서야 내 소원이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사실 나는 네 옆에 앉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런데 그때는 새로 들어온 애가 없었잖아."

"없었지. 그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대뜸 네 옆에 앉아 버렸어. 나랑 자리를 바꾼 녀석은 그저 어리둥절해하면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뒀고. 그리고 목사님도 한번은 거기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아채긴 했어. 사실 목사님은 나를 대할 때마다 남모르게 뭔가에 시달려. 내 이름이 데미안이라는 걸, 이름이 D로 시작하는 내가 저 뒤 S 줄에 앉아 있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 하지만 그게 목사님 의식에까지는 닿지 않아. 내 의지가 거기 맞서고, 내가 계속 그걸 막으니까. 목사님은 이따금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고는 나를 쳐다보면서 궁리를 시작해, 그 착한 양반이. 그런데 나한테는 간단한 수가 있어. 그럴 때마다 그 눈을 아주, 아주 똑바로 들여다보는 거야. 거의 모든 사람이 그걸 잘 견디지 못해. 다들 불안해하지. 누군가한테서 뭘 얻어 내고 싶은데, 뜻밖에 그 사람 눈을 아주 똑바로 들여다봤는데도 그 사람이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만둬! 그 사람한테서는 아무것도 얻어 내지 못해, 절대로!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 사실 그게 통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몰라."

"누군데?" 내가 얼른 물었다.

데미안은 생각에 잠길 때면 짓는 조금 가늘어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다 눈길을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다시 묻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애가 그때 자기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라고 믿는다. 그 애는 어머니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나를 자기 집에 데려간 적도 없었다. 나는 그 애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거의 몰랐다.

◆

그 무렵 나는 이따금 그 애를 흉내 내어,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만 하도록 내 의지를 거기에 모아 보려고 해 보았다. 충분히 절박해 보이는 소망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데미안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엄두는 나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애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애도 묻지 않았다.

종교 문제에서 내 믿음에는 그사이 군데군데 구멍이 났다. 그래도 철저히 데미안의 영향을 받은 내 생각은, 완전한 불신앙을 내보이는 학교 동무들과는 크게 달랐다. 그런 아이들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이따금 신을 믿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인간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느니, 삼위일체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 같은 이야기는 그냥 웃음거리라느니, 오늘날에도 그런 잡동사니를 팔러 다니는 것은 수치라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의심이 드는 자리에서도, 나는 어린 시절의 온 경험으로 경건한 삶이, 이를테면 내 부모가 사는 그런 삶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품위 없는 것도 위선도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오히려 나는 종교적인 것 앞에서 여전히 가장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다만 데미안 덕분에 나는 성경 이야기와 교리를 더 자유롭고 개인적으로, 더 놀이하듯, 더 상상력을 펼쳐 바라보고 풀이하는 데 익숙해졌다. 적어도 그 애가 넌지시 일러 주는 풀이를 나는 늘 기꺼이, 즐겨 따랐다. 물론 많은 것은 내게 너무 퉁명스러웠고, 카인 이야기도 그랬다. 그리고 한번은 견신례 수업 중에 그 애가 어쩌면 그보다 더 대담한 견해로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이 골고다 이야기를 했다.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을 전하는 성경 이야기는 아주 어릴 적부터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어린 소년이던 시절, 이를테면 성금요일에 아버지가 수난 이야기를 읽어 주고 나면, 나는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고통스럽게 아름답고 창백하고 유령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생생한 그 세계 속에서 가슴 깊이 감동하며 살았고,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들을 때면 이 비밀스러운 세계의 음울하고 힘찬 고난의 광채가 온갖 신비로운 전율과 함께 나를 덮쳐 왔다. 나는 오늘도 이 음악에서, 그리고 〈악투스 트라기쿠스〉에서 모든 시와 모든 예술적 표현의 정수를 찾는다.

그 수업이 끝날 무렵 데미안이 생각에 잠겨 내게 말했다. "여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 싱클레어.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고 혀끝으로 맛을 봐. 싱거운 맛이 나는 데가 있어. 바로 십자가의 두 도둑[1] 이야기 말이야. 언덕 위에 세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장엄하지! 그런데 그 고분고분한 도둑 이야기는 전도지에나 나올 감상적인 이야기야! 처음엔 범죄자로 온갖 몹쓸 짓을,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서, 이제 와서는 녹아내리듯 눈물을 짜며 개과천선과 뉘우침의 잔치를 벌이잖아! 무덤에서 두 걸음 떨어진 데서 그런 뉘우침이 무슨 뜻이 있겠어, 응? 이것도 또 순 성직자 나부랭이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달짝지근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감동의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더없이 교훈적인 배경을 깔고 있지. 네가 오늘 두 도둑 가운데 하나를 친구로 골라야 한다면, 아니면 둘 중 누구를 더 믿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 눈물 짜는 회개자는 아닐 거야. 아니, 다른 쪽이야. 그쪽은 사내답고 기개가 있어. 그 처지에서는 그저 그럴싸한 빈말일 수밖에 없는 회개 따위에는 콧방귀를 뀌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가고, 그때까지 자기를 도와준 악마를 마지막 순간에 비겁하게 저버리지 않아. 그 사람은 기개가 있는 사람이고, 기개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에서 손해를 보기 일쑤야. 어쩌면 그 사람도 카인의 후손인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몹시 당황했다. 십자가 이야기라면 아주 잘 안다고 믿었는데, 이제야 내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마나 상상력도 공상도 없이 듣고 읽었는지 깨달았다. 그런데도 데미안의 새 생각은 불길하게 들렸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내 안의 개념들을 뒤엎으려 했다. 아니, 모든 것을, 가장 거룩한 것까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다.

그 애는 늘 그렇듯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곧바로 내 반발을 알아챘다.

"알아." 데미안이 체념한 듯 말했다. "늘 듣던 얘기지. 진지하게 따지지만 말라는 거. 그래도 하나 말해 둘게. 여기가 이 종교의 결함이 아주 똑똑히 보이는 지점 가운데 하나야. 문제는 이거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 신이라는 존재는 훌륭한 인물이긴 한데, 원래 나타내야 할 것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거지. 신은 선한 것, 고귀한 것, 아버지다운 것, 아름답고 또 높은 것, 감상적인 것이야. 그건 맞아! 하지만 세상은 다른 것으로도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그건 몽땅 그냥 악마에게 떠넘겨지고, 세상의 이 부분 전체, 이 절반 전체가 슬쩍 빼돌려져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게 되지. 사람들이 신을 모든 생명의 아버지로 찬양하면서, 생명이 바탕을 두고 있는 성생활 전체는 그냥 입에 올리지 않고, 될 수만 있으면 악마의 짓이자 죄라고 하는 것과 꼭 같아! 나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신을 섬기는 데 반대하지 않아. 조금도. 하지만 내 생각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섬기고 거룩하게 여겨야 해. 온 세상을, 인위적으로 떼어 낸 이 공식적인 절반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신을 섬기는 예배 곁에 악마를 섬기는 예배도 있어야 하지. 나는 그게 옳다고

봐. 아니면 악마까지 자기 안에 품는 신을,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눈을 감지 않아도 되는 신을 지어내든지."

그 애는 평소답지 않게 거의 격해져 있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고 더는 나를 몰아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서 이 말들은 소년 시절 내내 매시간 품고 다니면서도 누구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수수께끼에 가 닿았다. 데미안이 신과 악마에 대해, 신적이고 공식적인 세계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악마적인 세계에 대해 한 말은 바로 내 생각, 나만의 신화, 두 세계 또는 세계의 두 반쪽, 곧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대한 생각이었다. 내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이고, 모든 삶과 생각의 문제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거룩한 그림자처럼 내 위를 스쳐 지나갔고, 나만의 가장 개인적인 삶과 생각이 위대한 이념들의 영원한 흐름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는지 보고 갑자기 느꼈을 때 두려움과 경외가 나를 덮쳤다. 그 깨달음은 어딘지 나를 확인해 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즐겁지는 않았다. 그것은 단단했고 거친 맛이 났다. 그 안에 책임의 울림이, 더는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울림이, 홀로 서야 한다는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그토록 깊은 비밀을 털어놓으며, 아주 어린 시절부터 품어 온 '두 세계'에 대한 생각을 내 동무에게 이야기했다. 그 애는 그로써 내 가장 깊은 느낌이 자기에게 동의하고 자기가 옳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 애답지 않았다. 그 애는 어느 때보다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 내 말을 들었고, 내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때까지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애의 눈길에서 다시 그 묘한, 짐승 같은 시간 없음을, 상상할 수 없는 나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얘긴 다음에 더 하자." 데미안이 나를 아끼듯 말했다. "보니까 넌 남한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넌 네가 생각한 것을 한 번도 온전히 살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알 거야. 그건 좋지 않아. 우리가 살아 내는 생각만이 값어치가 있거든. 넌 네 '허락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도 목사들이나 선생들이 하듯이 나머지 절반을 슬쩍 감추려고 했지. 그건 잘 안 될 거야! 한번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아무도 그게 잘되지 않아."

그 말이 깊이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나는 거의 소리치다시피 했다. "그래도 정말로, 실제로 금지된 추한 것들이 있잖아. 그건 너도 부정할 수 없잖아! 그리고 그런 건 어쨌든 금지된 거고, 우리는 그걸 단념해야 해. 살인이니 온갖 악덕이니 하는 게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다고 그런 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서 범죄자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건 오늘 결판이 나지 않을 거야." 막스가 달래듯 말했다. "물론 넌 사람을 때려죽이거나 여자애를 욕보이고 죽이면 안 되지. 그래, 그건 안 돼. 하지만 넌 아직 '허락된'과 '금지된'이 사실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오지 않았어. 넌 이제 겨우 진실의 한 조각을 느꼈을 뿐이야. 나머지도 곧 올 테니, 두고 봐! 이를테면 지금 네 안에는 한 해쯤 전부터 다른 모든 충동보다 센 충동이 하나 있고, 그건 '금지된' 것으로 여겨지지.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나 다른 많은 민족은 거꾸로 이 충동을 신으로 모시고 큰 축제를 열어 섬겼어. 그러니까 '금지된'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야. 바뀔 수 있어. 오늘날에도 누구든 어떤 여자와 함께 목사한테 가서 결혼만 하면 같이 잘 수 있잖아. 다른 민족들한테서는 그게 달라,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금지되었는지, 자기에게 금지되었는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해. 금지된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도 큰 불한당일

수 있어.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건 편하냐 마냐의 문제일 뿐이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재판관이 되기에는 너무 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금지에 몸을 맞추지. 그런 사람은 편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계명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점잖은 신사라면 누구나 날마다 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손가락질받는 일이 허락되어 있기도 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해."

그 애는 갑자기 그렇게 많은 말을 한 것을 후회하는 듯 말을 끊었다. 그때도 나는 그 애가 무엇을 느꼈는지 느낌으로 얼마쯤 알 수 있었다. 그 애는 자기 생각을 늘 기분 좋게, 겉보기에는 가볍게 늘어놓곤 했지만, 언젠가 그 애가 말했듯이 '그저 말하기 위한' 대화만큼은 죽어도 견디지 못했다. 그런데 내게서 그 애는 진짜 관심 말고도 너무 많은 장난을, 영리한 수다에서 얻는 너무 많은 즐거움 같은 것을, 한마디로 완전한 진지함의 결여를 느꼈다.

◆

방금 쓴 마지막 말, '완전한 진지함'을 다시 읽으니, 아직 반쯤 아이였던 그 시절에 막스 데미안과 겪은 가장 강렬한 다른 장면 하나가 갑자기 다시 떠오른다.

우리의 견신례가 다가왔고, 종교 수업의 마지막 시간들은 성찬을 다루었다. 목사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겨 애를 썼고, 그 시간들에서는 거룩함과 경건한 분위기 같은 것이 제법 느껴졌다. 그러나 바로 이 마지막 몇 시간의 가르침 동안 내 생각은 다른 것에, 바로 내 벗이라는 사람에게 묶여 있었다. 교회 공동체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이라고 배운 견신례를 앞두고, 나는 반년쯤 받은 이 종교 수업의 값어치가

여기서 배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미안이 곁에 있으며 내게 미친 힘에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가 이제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곳은 교회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 이 땅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생각과 인격의 결사였고, 나는 내 벗을 그 결사의 대리인이나 전령으로 느꼈다.

나는 이 생각을 밀어내려 애썼다. 그래도 견신례 의식만큼은 어느 정도 품위를 갖추어 치르고 싶은 진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새 생각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그 생각은 거기 있었고, 차츰 가까이 다가온 교회 의식에 대한 생각과 이어져서, 나는 그 의식을 남들과는 다르게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은 내게 데미안에게서 알게 된 그런 생각의 세계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어야 했다.

그 무렵 나는 다시 한 번 그 애와 열띠게 논쟁했다. 바로 수업 시간 직전이었다. 내 벗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아마 꽤 애늙은이처럼 잘난 체하는 내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우린 말이 너무 많아." 데미안이 여느 때 없이 진지하게 말했다. "영리한 말은 아무 값어치도 없어, 전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질 뿐이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건 죄야. 거북이처럼 자기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어 갈 수 있어야 해."

곧이어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집중하려고 애썼으며, 데미안은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얼마쯤 지나자 그 애가 앉아 있는 옆쪽에서 무언가 묘한 것이, 공허함이나 서늘함 같은 것이, 마치 그 자리가 어느새 텅 비어 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 느낌이 숨 막히기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거기 내 벗이 여느 때처럼 꼿꼿하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 애는 여느 때와 전혀 달라 보였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 애에게서 뿜어져 나와 그 애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 애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보고 있지 않았다. 굳어서 안으로, 또는 아득히 먼 곳으로 향해 있었다. 그 애는 완전히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입은 나무나 돌로 깎아 놓은 것 같았다. 얼굴은 창백했다. 돌처럼 고르게 핏기가 없었고, 그 애에게서 가장 살아 있어 보이는 것은 갈색 머리카락이었다. 두 손은 앞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물건처럼, 돌이나 과일처럼 생기 없고 고요하고 창백하고 움직임이 없었지만, 축 늘어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강한 생명을 감싼 단단하고 좋은 껍데기 같았다.

그 광경에 나는 몸이 떨렸다. 죽었어! 하고 생각했고, 하마터면 소리 내어 말할 뻔했다. 그러나 그 애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넋이 나간 눈길로 그 얼굴에, 그 창백한 돌 가면에 매달렸고, 이것이 데미안이라고 느꼈다! 나와 함께 걷고 이야기할 때의 그 애는 반쪽짜리 데미안, 한동안 역할을 하며 남에게 맞춰 주고 호의로 장단을 맞춰 주는 데미안일 뿐이었다. 그러나 진짜 데미안은 이렇게, 이 모습처럼 보였다. 이렇게 돌 같고, 태곳적부터 있었던 듯하고, 짐승 같고, 바위 같고, 아름답고 차갑고, 죽은 듯하면서도 남몰래 듣도 보도 못한 생명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이 고요한 공허, 이 에테르와 별의 공간, 이 고독한 죽음!

'이제 저 애는 완전히 자기 안으로 들어갔구나.' 나는 전율하며 그렇게 느꼈다. 그토록 외로웠던 적은 없었다. 나는 그 애에게 끼어들 수 없었다. 그 애는 내게 닿을 수 없었고, 세상에서 가장 먼 섬에 있을 때보다도 더 멀리 있었다.

나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모두가 이쪽을 보아야 했고, 모두가 전율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애는 그림처럼,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상하게도 우상처럼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파리 한 마리가 그 애 이마에 앉더니 천천히 코와 입술 위를 기어갔지만 그 애는 주름 하나 움찔하지 않았다.

어디, 그 애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그것을 그 애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그 애가 다시 살아서 숨 쉬는 것이 보이고 그 애의 눈길이 내 눈길과 마주쳤을 때, 그 애는 예전 그대로였다. 어디서 온 걸까? 어디 갔다 온 걸까? 그 애는 지쳐 보였다.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았고 손도 다시 움직였지만, 갈색 머리카락은 이제 윤기를 잃고 지친 듯했다.

그 뒤 며칠 동안 나는 내 침실에서 여러 번 새로운 연습에 몰두했다. 의자에 꼿꼿이 앉아 눈을 고정하고 완전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러는 동안 무엇을 느끼게 될지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그저 피곤해졌고 눈꺼풀이 몹시 가려웠을 뿐이었다.

곧이어 견신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억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린 시절이 내 둘레에서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 부모는 어딘지 난처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누이들은 내게 완전히 낯설어졌다. 환멸이 익숙했던 감정과 기쁨을 비틀고 빛바래게 했다. 정원에는 향기가 없었고, 숲은 나를 부르지 않았고, 세상은 낡은 물건을 떨이로 파는 가게처럼 싱겁고 재미없이 내 둘레에 서 있었으며, 책은 종이였고, 음악은 소음이었다. 가을 나무 둘레에서 그렇게 잎이 진다.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비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리고, 햇빛이나 서리가 내리고, 그 안에서 생명은 천천히 가장 좁고 가장 깊은 곳으로 물러난다. 나무는 죽지 않는다. 기다린다.

방학이 끝나면 내가 다른 학교로 가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기로 정해졌다. 이따금 어머니가 유난히 다정하게 다가왔다. 미리 작별하면서, 사랑과 그리움과 잊지 못할 것을 내 가슴에 마법처럼 불어넣으려 애썼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나고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

1. 누가복음 23장 39~43절.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죄인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조롱하고 하나는 뉘우쳤다.

제4장 베아트리체

내 벗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방학이 끝나자 나는 S 시로 떠났다. 부모가 둘 다 함께 와서, 김나지움 선생 한 사람이 꾸리는 소년 하숙집에 갖은 정성을 다해 나를 맡겼다. 이제 자기들이 나를 어떤 일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내버려 두는지 알았다면, 부모는 경악해서 그 자리에 굳어 버렸을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세월이 지나면 내가 착한 아들이자 쓸모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 본성이 다른 길로 몰려갈지였다. 아버지의 집과 정신의 그늘 아래서 행복해 보려던 내 마지막 시도는 오래 이어졌고, 한때는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끝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견신례 뒤의 방학 동안 처음으로 느끼게 된 기이한 공허와 외로움은 (이 공허, 이 희박한 공기를 나는 나중에 얼마나 더 알게 되었던가!) 그리 빨리 지나가지 않았다. 고향과의 작별은 이상하리만큼 쉬웠다. 더 서글퍼하지 않는 것이 사실 부끄러웠다. 누이들은 까닭 없이 울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나는 언제나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고, 근본은 꽤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바깥 세계에 아무 관심도 없었고, 며칠이고 내 안에 귀를 기울여, 거기 땅 밑에서 웅웅거리는 금지되고 어두운 물줄기들을 듣는 일에만 매달렸다. 나는 아주 빨리, 그것도 지난 반년 사이에야 부쩍 자라서, 키만 껑충하고 마르고 덜 여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소년다운 사랑스러움은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고,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느꼈으며, 나도 나 자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 막스 데미안이 몹시 그리울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 애를 미워할 때도 적지 않았고, 내 삶이 가난해진 것을 그 애 탓으로 돌렸다. 나는 그 가난을 추한 병처럼 떠안았다.

우리 하숙집에서 나는 처음에 사랑도 존중도 받지 못했다. 다들 처음에는 나를 놀려 대다가 이윽고 내게서 물러났고, 나를 겉으로만 얌전한 음흉한 녀석, 불쾌한 괴짜로 여겼다.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어 오히려 부풀렸고, 겉으로는 늘 더없이 사내다운 세상 경멸처럼 보이는 고독 속으로 앙심을 품고 틀어박혔다. 그러면서 남몰래 나를 갉아먹는 서글픔과 절망의 발작에 자주 시달렸다. 학교에서는 집에서 쌓아 둔 지식을 밑천 삼아 버틸 수 있었다. 반이 예전 학교보다 조금 뒤처져 있었고, 나는 또래들을 아이들이라며 조금 깔보는 버릇이 들었다.

그렇게 한 해 남짓이 흘러갔다. 방학에 처음 집에 다니러 가서도 새로운 울림은 없었다. 나는 기꺼이 다시 떠났다.

11월 초였다. 나는 어떤 날씨에도 생각에 잠겨 잠깐씩 산책하는 버릇이 들었는데, 그런 산책길에서 자주 일종의 환희를, 우울과 세상 경멸과 자기 경멸로 가득한 환희를 맛보았다. 그렇게 어느 날 저녁, 나는 축축하게 안개 낀 어스름 속에 도시 근교를 거닐었다. 한 공원의 넓은 가로수 길은 완전히 텅 비어 나를 불러들였고, 길에는 떨어진 잎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나는 어두운 쾌감에 젖어 발로 그 잎을 헤집었으며, 축축하고 쓴 냄새가 났고, 멀리 있는 나무들이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크게, 그림자처럼 솟아 나왔다.

가로수 길 끝에서 나는 망설이며 멈춰 서서 시커먼 잎을 응시했고, 풍화와 시듦의 젖은 냄새를 게걸스럽게 들이마셨다. 내 안의 무언가가 그 냄새에 화답하며 그것을 반겼다. 아, 삶은 얼마나 싱거운 맛이었던가!

옆길에서 깃 달린 외투를 펄럭이며 누군가 걸어왔다. 내가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가 나를 불렀다.

"어이, 싱클레어!"

그가 다가왔다. 우리 하숙집 최고참인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늘 베크를 보는 것이 좋았고, 다만 다른 모든 어린 녀석들에게 하듯 나에게도 늘 빈정거리며 아저씨 노릇을 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아무 불만이 없었다. 베크는 곰처럼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었고, 하숙집 주인을 꽉 쥐고 흔든다는 말이 있었으며, 김나지움 학생들 사이에 도는 숱한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너 여기서 뭐 하나?" 큰 학생들이 어쩌다 우리 같은 어린 녀석에게 몸을 낮춰 줄 때 쓰는 말투로 베크가 너그럽게 소리쳤다. "자, 내기할까? 시 쓰고 있었지?"

"그럴 리가." 나는 퉁명스럽게 잘라 말했다.

베크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 옆에서 걸으며 수다를 떨었다. 나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겪는 일이었다.

"내가 그런 걸 모를까 봐 걱정할 건 없어, 싱클레어. 저녁에 안개 속을 이렇게 가을 생각에 잠겨 걷다 보면 뭔가 있지. 그럴 땐 시를 쓰고 싶어지는 법이야, 나도 알아. 죽어 가는 자연이니, 그걸 닮은 잃어버린 청춘이니 하는 것 말이야, 당연히. 하인리히 하이네를 보시라, 이거지."

"난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나는 버텼다.

"흠, 됐어! 하지만 이런 날씨엔 말이지, 포도주 한 잔쯤 하는 조용한 곳을 찾는 게 사람한테 좋을 것 같군. 잠깐 같이 가겠나? 마침 나 혼자거든. 아니면 싫은가? 네가 모범생이라면야, 이 친구야, 내가 너를 꾀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지."

곧 우리는 변두리의 작은 술집에 앉아 미심쩍은 포도주를 마시며 두툼한 잔을 부딪쳤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무튼

새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곧 포도주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무척 말이 많아졌다. 내 안에 창문 하나가 활짝 열려 세상이 비쳐 드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끔찍하게 오랫동안 나는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도 털어놓지 못했던가! 나는 공상에 빠져들었고, 그 한가운데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바탕 늘어놓았다!

베크는 즐겁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내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베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를 대단한 녀석, 천재적인 악동이라고 불렀고, 쌓이고 쌓인 말하고 털어놓고 싶은 욕구를 한껏 쏟아 내고, 인정받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언가로 여겨지는 기쁨에 내 가슴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베크가 나를 천재적인 악동이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은 달콤하고 독한 포도주처럼 내 영혼으로 흘러들었다. 세상은 새로운 빛깔로 불탔고, 생각들이 수백 갈래의 대담한 샘에서 흘러들었으며, 정신과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들과 동무들 이야기를 했고, 나는 우리가 서로를 멋지게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리스 사람들과 이교 이야기를 했고, 베크는 기어이 나에게서 연애 모험을 털어놓게 하려 했다. 거기서 나는 끼어들 수가 없었다. 겪은 것이 없었고, 이야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느끼고, 지어내고, 공상한 것은 뜨겁게 들어앉아 있었지만, 포도주로도 풀려 나와 남에게 전할 수 있게 되지는 않았다. 여자애들에 대해서는 베크가 훨씬 많이 알았고, 나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에 달아올라 귀를 기울였다. 거기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한 번도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밋밋한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와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알폰스 베크는 아마 열여덟 살쯤이었는데 벌써 경험을 쌓았다. 그 가운데 하나로, 여자애들이란 다 그렇고 그래서 그저 아양 떨고 정중한 대접만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꽤 괜찮기는 하지만 진짜는 아니라고 했다. 성숙한 여자들에게서 성공을

기대하는 편이 낫고, 여자들이 훨씬 영리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공책과 연필을 파는 가게를 하는 야겔트 부인, 그 부인과는 이야기가 통한다고, 그 가게 계산대 뒤에서 이미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어떤 책에도 다 담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깊이 홀리고 멍해져 앉아 있었다. 물론 나라면 야겔트 부인을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다. 적어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꿈도 꾸지 못한 샘들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거기에는 거짓된 울림이 섞여 있었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맛보다 하찮고 평범한 맛이 났다. 그래도 어쨌든 그것은 현실이었고, 삶이자 모험이었으며, 그것을 겪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 무언가를 잃었다. 나도 이제는 천재적인 꼬마가 아니라, 그저 어른 남자의 말을 듣는 소년일 뿐이었다. 그래도 몇 달 몇 달 동안 내 삶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감미로웠고, 낙원 같았다. 게다가 차츰 느끼기 시작했지만, 술집에 앉아 있는 것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까지, 이것은 금지된 일, 아주 금지된 일이었다. 어쨌든 나는 거기서 정신을 맛보았고, 혁명을 맛보았다.

그날 밤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난다. 늦은 시각, 흐릿하게 타는 가스등 곁을 지나 서늘하고 축축한 밤길을 둘이 함께 걸어 돌아올 때, 나는 처음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았고, 몹시 괴로웠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무언가가 있었다. 매력이, 달콤함이 있었고, 반란이자 광란이었으며, 삶이자 정신이었다. 베크는 나를 풋내기라고 매섭게 나무라면서도 꿋꿋이 나를 돌보았고, 반쯤 업다시피 해서 하숙집으로 데려가서는, 열려 있는 복도 창문으로 나와 자기를 몰래 들여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죽은 듯한 잠 끝에 아파하며 깨어나 술이 깨자, 터무니없는 비탄이 나를 덮쳤다. 나는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낮에 입던 셔츠를 아직 입고 있었고, 옷과 신발은 바닥에 흩어져 담배와 토사물 냄새를 풍겼다. 두통과 메스꺼움과 미칠 듯한 갈증 사이로, 오랫동안 마주 보지 않았던 그림 하나가 영혼 앞에 떠올랐다. 고향과 부모의 집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이들과 정원이 보였고, 고향의 고요한 내 침실이 보였고, 학교와 장터 광장이 보였고, 데미안과 견신례 수업이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밝았고, 모든 것이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모든 것이 놀랍고 신성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이제 나는 알았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 시간에야 가라앉고 저주받아 더는 내 것이 아니었고, 나를 내쫓았고, 역겨워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득히 먼 가장 황금빛 어린 시절의 정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스럽고 다정한 모든 것, 어머니의 입맞춤 하나하나, 성탄절 하나하나, 집에서 맞던 경건하고 밝은 일요일 아침 하나하나, 정원의 꽃 한 송이 한 송이, 그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발로 짓밟았다! 지금 누가 나를 잡으러 와서 나를 묶고 인간쓰레기이자 성전을 더럽힌 자로 교수대에 끌고 간다 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기꺼이 갔을 것이며, 그것을 옳고 좋은 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속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세상을 경멸하며 돌아다니던 내가! 정신으로 자부하며 데미안의 생각을 함께 생각하던 내가! 이게 나였다. 인간쓰레기에 돼지 새끼, 술에 취해 더럽혀지고, 역겹고 비열하고, 소름 끼치는 충동에 덜미를 잡힌 거친 짐승이! 이게 나였다. 모든 것이 깨끗함과 광채와 사랑스러운 여림이었던 그 정원들에서 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했던 내가! 술에 취해 걷잡을 수

없이, 툭툭 바보같이 터져 나오던 내 웃음소리가 아직도 역겨움과 분노 속에 귀에 들렸다. 그게 나였다!

그런데도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거의 쾌락이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는 눈멀고 무디게 기어 다녔고, 그토록 오랫동안 내 가슴은 말없이 가난해진 채 구석에 앉아 있었기에, 이런 자기 고발도, 이 전율도, 영혼의 이 모든 소름 끼치는 느낌도 반가웠다. 그래도 그것은 느낌이었고, 그래도 불꽃이 솟았고, 그래도 거기서 심장이 꿈틀댔다! 혼란스럽게도 나는 비참함 한가운데서 해방 같은 것, 봄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러는 동안 겉으로 보면 나는 제법 내리막을 달리고 있었다. 첫 도취는 곧 첫 도취가 아니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술판과 말썽이 잦았는데, 나는 거기 끼는 아이들 가운데 가장 어린 축이었고, 곧 마지못해 끼워 주는 꼬마가 아니라 우두머리이자 별이, 이름난 대담한 술집 단골이 되었다. 나는 다시 한 번 완전히 어두운 세계에, 악마에게 속했고, 그 세계에서 멋진 녀석으로 통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비참한 기분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부서뜨리는 광란 속에 살았고, 동무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이자 대단한 녀석, 지독하게 배짱 좋고 재치 있는 놈으로 통하는 동안, 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에 찬 영혼이 불안에 떨며 퍼덕이고 있었다. 언젠가 일요일 오전 술집을 나서다가 길에서 갓 빗은 머리에 나들이옷을 입고 밝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고 눈물이 났던 일을 나는 아직 기억한다. 그리고 싸구려 술집의 더러운 탁자에서 엎질러진 맥주 웅덩이 사이로, 듣도 보도 못한 냉소로 친구들을 즐겁게 하고 때로는 기겁하게 만드는 동안, 숨은 가슴속에서 나는 내가 비웃는 모든 것을 경외했고, 속으로 울면서 내 영혼 앞에, 내 과거 앞에, 내 어머니 앞에,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동무들과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서 외로운 채로 남았던 것, 그래서 그토록 괴로워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나는 가장 거친 녀석들의 마음에 쏙 드는 술집 영웅이자 독설가였다. 선생과 학교와 부모와 교회에 대한 생각과 말에서 나는 정신을 보였고 용기를 보였으며, 음담패설도 견뎌 냈고 어쩌다 직접 하나 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동무들이 여자를 찾아갈 때 나는 한 번도 끼지 않았다. 말로만 보면 닳고 닳은 난봉꾼이어야 했는데도, 나는 혼자였고, 사랑을 향한 뜨거운 그리움, 가망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나보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은 없었고, 나보다 수줍은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이따금 젊은 시민 집안의 처녀들이 예쁘고 깔끔하게, 밝고 우아하게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들은 내게 놀랍고 깨끗한 꿈이었고, 나에게는 천 배나 과분하고 깨끗했다. 한동안은 야겔트 부인의 문방구에도 갈 수 없었다. 부인을 보며 알폰스 베크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면 얼굴이 붉어졌기 때문이다.

새로 어울린 무리 속에서도 늘 외롭고 다르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 무리에서 더 벗어나지 못했다. 퍼마시고 허풍 치는 것이 정말로 즐거웠던 적이 있는지 나는 정말 이제 모르겠다. 또 나는 술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매번 그 뒤끝을 괴롭게 치렀다. 모든 것이 억지 같았다. 나는 해야만 하는 것을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고, 늘 나를 사로잡는 숱한 여리고 수줍고 다정한 마음의 움직임이 두려웠으며, 그토록 자주 찾아오는 여린 사랑의 생각이 두려웠다.

무엇보다 내게 없는 것은 하나, 벗이었다. 무척 좋아하는 학교 동무가 두셋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착한 아이들 축에 속했고, 내 악덕은 오래전부터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다들 나를 발밑 땅이 흔들리는 구제 불능의 노름꾼으로 여겼다. 선생들은 내

사정을 많이 알고 있었고, 나는 여러 번 엄한 벌을 받았으며, 결국 내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다들 기다리는 일이었다. 나 자신도 그것을 알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더는 좋은 학생이 아니었고, 이대로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느낌 속에 이리저리 빠지고 속여 가며 간신히 버텨 나갔다.

신이 우리를 외롭게 하여 우리 자신에게로 이끌 수 있는 길은 많다. 그때 신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었다. 그것은 고약한 꿈 같았다. 오물과 끈적거림을 지나, 깨진 맥주잔과 냉소적인 수다로 지새운 밤들을 지나, 넋이 나간 몽상가 하나가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추하고 더러운 길을 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게 나다. 공주에게 가는 길에 똥물 웅덩이에,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뒷골목에 빠져 꼼짝 못 하게 되는 그런 꿈이 있다. 내가 그랬다. 이렇게 그리 고상하지 못한 길을 거쳐 나는 외로워지고, 나와 어린 시절 사이에 무자비하게 빛나는 파수꾼들이 지키는 잠긴 에덴의 문을 세우게 될 운명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었고, 나 자신을 향한 그리움의 깨어남이었다.

하숙집 주인의 편지를 받고 놀란 아버지가 처음으로 S 시에 나타나 불시에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아직 소스라치며 몸을 떨었다. 그해 겨울이 끝나 갈 무렵 아버지가 두 번째로 왔을 때 나는 이미 굳어지고 무심해져서, 아버지가 꾸짖든 사정하든 어머니를 들먹이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아버지는 끝내 몹시 화를 내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망신과 치욕 속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하고 감화원에 처넣겠다고 했다. 그러라지! 그때 아버지가 떠날 때 나는 아버지가 딱했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나에게 이르는 길을 더는 찾지 못했으며, 순간순간 나는 아버지가 그런 꼴을 당해도 싸다고 느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술집에 눌러앉고 허세를 부리는, 내 나름의 기이하고 그리 보기 좋지 않은 꼴로 나는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항의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다 나 자신이 망가졌고, 이따금

일은 대충 이렇게 보였다. 세상이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없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더 나은 자리도 더 높은 과제도 없다면,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망가질 수밖에. 손해는 세상이 보라지.

그해 성탄 방학은 무척 우울했다. 어머니는 나를 다시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더 자라 있었고, 여윈 얼굴은 잿빛으로 망가져 보였으며, 얼굴 근육은 늘어지고 눈가는 벌겋게 짓물러 있었다. 막 돋기 시작한 콧수염과 얼마 전부터 쓴 안경 때문에 어머니 눈에 나는 더욱 낯설었다. 누이들은 뒤로 물러서서 킥킥거렸다. 모든 것이 언짢았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눈 대화도 언짢고 쓰라렸고, 친척 몇 사람과 나눈 인사도 언짢았으며, 무엇보다 성탄 전야가 언짢았다. 내가 태어난 뒤로 성탄 전야는 우리 집의 큰 날, 축제와 사랑과 감사의 저녁, 부모와 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저녁이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그저 답답하고 거북하기만 했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들에서 밤에 자기 양 무리를 지키던 목자들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를 읽었고, 여느 때처럼 누이들은 선물 탁자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즐겁지 않게 울렸고, 그 얼굴은 늙고 옹색해 보였으며, 어머니는 슬퍼했고, 나에게는 선물도 축하 인사도, 복음서도 촛불 켠 나무도 모두 똑같이 괴롭고 달갑지 않았다. 생강빵은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더 달콤한 추억을 구름처럼 짙게 뿜어냈다. 전나무는 향기를 풍기며 이제는 없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 저녁과 명절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랐다.

겨울 내내 그렇게 흘러갔다. 얼마 전에는 교사 회의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고 퇴학시키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 오래가지 않을 터였다. 뭐,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게 유난히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동안 그 애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S 시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그 애에게 두 번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방학 때도 그 애를 찾아가지 않았다.

◆

가을에 알폰스 베크와 마주쳤던 바로 그 공원에서, 이른 봄 가시덤불이 막 푸르러지기 시작할 무렵, 한 처녀가 내 눈에 띄었다. 나는 역겨운 생각과 근심을 가득 안고 혼자 산책하고 있었다. 건강이 나빠졌고, 게다가 늘 돈에 쪼들려서, 동무들에게 빚을 지고, 집에서 다시 돈을 받아내려고 꼭 필요한 지출을 지어내야 했으며, 여러 가게에 엽궐련이니 그 비슷한 것들의 외상값이 불어나게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런 근심이 아주 깊이 파고든 것은 아니었다. 머지않아 이곳 생활이 끝나 내가 물에 빠져 죽거나 감화원에 끌려가게 된다면, 그런 자잘한 일쯤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테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보기 싫은 일들과 줄곧 얼굴을 마주하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

그 봄날 공원에서 나는 한 젊은 숙녀와 마주쳤는데, 그 처녀에게 몹시 끌렸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우아하게 차려입었으며, 영리해 보이는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곧바로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그 처녀는 내 공상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나보다 그리 나이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훨씬 더 다 자라 있었고, 우아하고 윤곽이 또렷했으며, 벌써 거의 숙녀였지만, 얼굴에 장난기와 소년 같은 기색이 살짝 비쳐서 나는 그것이 더없이 좋았다.

나는 사랑에 빠진 처녀에게 다가가는 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 처녀에게도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인상은 지금까지의 어느 것보다 깊었고, 이 사랑이 내 삶에 미친 힘은 엄청났다.

갑자기 내 앞에 다시 하나의 그림이, 높고 우러르는 그림이 서 있었다. 아, 내 안에서 경외하고 숭배하고 싶은 소망만큼 깊고 격렬한 욕구, 격렬한 충동은 없었다! 나는 그 처녀에게 베아트리체[1]라는 이름을 붙였다. 단테를 읽은 적은 없었지만, 복제화를 간직해 두었던 영국 그림 한 점에서 베아트리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그림 속의 베아트리체는 영국 라파엘전파의 처녀상이었는데, 팔다리가 아주 길고 날씬했으며, 좁고 긴 머리에 정신이 깃든 손과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아름다운 젊은 처녀는 그 그림과 꼭 닮지는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날씬함과 소년 같은 몸매를 지녔고, 얼굴에도 정신이 깃든, 혼이 서린 기색이 얼마쯤 있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때 베아트리체는 내게 가장 깊은 힘을 미쳤다. 베아트리체는 자기 그림을 내 앞에 세웠고, 내게 성소를 열어 주었으며, 나를 신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루아침에 나는 술판과 밤의 쏘다님을 끊었다. 나는 다시 혼자 있을 수 있었고, 다시 즐겨 책을 읽었고, 다시 즐겨 산책을 했다.

갑작스러운 개심 때문에 나는 놀림을 꽤 받았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는 사랑하고 숭배할 것이 있었고, 다시 이상이 생겼으며, 삶은 다시 예감과 알록달록한 신비로운 어스름으로 가득했으니, 그 덕에 놀림쯤은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 안에 집을 찾았다. 비록 우러르는 그림의 노예요 종으로서였지만.

그 시절을 나는 어떤 감동 없이는 떠올릴 수 없다. 다시 나는 무너져 버린 한 시기의 잔해로 '밝은 세계'를 지어 보려고 온 힘을 다해 애썼고, 다시 내 안의 어둡고 악한 것을 떨쳐 버리고 온전히 밝은 곳에, 신들 앞에 무릎 꿇고 머물고 싶다는 단 하나의 갈망 속에 살았다. 그래도 이번의 '밝은 세계'는 얼마쯤 내가 지어낸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로, 책임 없는 아늑함 속으로 도망쳐 기어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어내고 스스로에게 요구한, 책임과 자기 단련이 따르는 새로운 섬김이었다. 내가 괴로워하며 늘 달아나기만 하던 성의 충동은 이제 이 거룩한 불 속에서 정신과 경건함으로 정화되어야 했다. 이제 캄캄한 것도, 추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신음하며 지새우는 밤도, 음란한 그림 앞에서 두근거리는 가슴도, 금지된 문 앞에서 엿듣는 일도, 음탕함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 모든 것 대신 나는 베아트리체의 그림을 모신 제단을 차렸고, 베아트리체에게 나를 바치면서 정신과 신들에게 나를 바쳤다. 어두운 힘들에게서 빼낸 삶의 몫을 나는 밝은 힘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내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깨끗함이었고,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이었다.

베아트리체를 섬기는 이 제의로 내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숙한 냉소가였던 내가 이제 성자가 되기를 목표로 삼은 신전지기가 되었다. 나는 익숙해졌던 고약한 생활을 끊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려 했고, 모든 것에 깨끗함과 고귀함과 품위를 들이려 했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서도, 말과 옷차림에서도 그것을 생각했다. 나는 아침을 찬물로 몸을 씻는 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그렇게 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고, 몸을 꼿꼿이 세웠고, 걸음을 더 느리고 점잖게 했다. 보는 사람에게는 우스워 보였을지도 모른다. 내 안에서는 온통 예배였다.

새 마음가짐을 드러내려고 찾아낸 갖가지 새로운 수련 가운데 하나가 내게 중요해졌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영국의 베아트리체 그림이 그 처녀와 충분히 닮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된 일이었다. 나는 그 처녀를 나를 위해 그려 보고 싶었다. 아주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안고 나는 내 방에(얼마 전부터 내 방이 따로 생겼다) 좋은 종이와 물감과 붓을 모았고, 팔레트와 물컵과 사기 접시와 연필을

갖추었다. 작은 튜브에 든 고운 템페라 물감을 사 왔는데 그것이 나를 황홀하게 했다. 그 가운데 불타는 듯한 산화크롬 초록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고 하얀 접시에서 처음 빛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 같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얼굴을 그리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먼저 다른 것으로 연습해 보고 싶었다. 무늬와 꽃과 공상으로 지어낸 작은 풍경을, 예배당 옆의 나무 한 그루를, 사이프러스가 서 있는 로마식 다리를 그렸다. 때로는 이 놀이 같은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물감 상자를 받은 아이처럼 행복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몇 장은 완전히 망쳐서 치워 버렸다. 이따금 길에서 마주치는 그 처녀의 얼굴을 떠올리려 하면 할수록 그림은 더 안 되었다. 마침내 나는 그것을 단념하고, 그냥 공상을 따라, 이미 그리기 시작한 것에서, 물감과 붓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이끄는 손길을 따라 얼굴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꿈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고, 나는 그것이 그리 불만스럽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곧바로 시도를 이어 갔고, 새로 그리는 장마다 조금씩 더 또렷하게 말을 걸어왔으며, 결코 현실에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유형에는 가까워졌다.

나는 점점 더, 꿈꾸는 듯한 붓으로 본보기 없는 선을 긋고 면을 채우는 데 익숙해졌다. 놀이하듯 더듬어 가는 손에서, 무의식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선과 면이었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거의 정신이 없는 채로 얼굴 하나를 다 그렸는데, 그 얼굴은 앞의 것들보다 더 강하게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것은 그 처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럴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 그것은 다른 것,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덜 소중하지는 않았다. 처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젊은 남자의 머리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내 예쁜 처녀처럼 밝은 금발이 아니라 붉은 기가

감도는 갈색이었고, 턱은 강하고 단단했지만 입은 붉게 피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조금 뻣뻣하고 가면 같았지만 인상이 강했고 숨은 생명으로 가득했다.

다 그린 그림 앞에 앉아 있자니 묘한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일종의 신상이나 거룩한 가면 같았다.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이며, 나이가 없고, 꿈꾸는 만큼 의지가 굳세고, 굳어 있는 만큼 남몰래 살아 있었다. 이 얼굴은 내게 할 말이 있었다. 그것은 내게 속해 있었고, 내게 무언가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와 닮아 있었다. 누구와 닮았는지는 몰랐다.

그 초상은 한동안 내 모든 생각과 함께했고 내 삶을 나누었다. 나는 그것을 서랍 속에 숨겨 두었다. 아무도 그것을 찾아내 나를 비웃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작은 내 방에 혼자 있게 되면 나는 곧바로 그림을 꺼내 그것과 사귀었다. 저녁이면 침대 맞은편 벽지에 핀으로 꽂아 놓고 잠들 때까지 바라보았고, 아침에 맨 처음 눈길이 닿는 곳도 거기였다.

바로 그 무렵 나는 어릴 때 늘 그랬듯이 다시 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다. 몇 해 동안 꿈을 하나도 꾸지 않은 것 같았다. 이제 꿈이 다시 찾아왔다. 전혀 새로운 그림들이었는데, 그림으로 그린 그 초상이 거기 자꾸자꾸 나타나서 살아 움직이며 말을 했고, 내게 다정하기도 하고 적대적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일그러져 괴물 같은 얼굴이 되었고 때로는 한없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고귀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그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갑자기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기막히게 낯익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처럼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아득한 옛날부터 내게로 향해 있었던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나는 그 그림을, 갈색의 숱 많은 머리카락을, 반쯤 여자 같은 입을, 기이하게 밝은 기운이 도는 강한 이마를(물감이 마르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응시했고, 그러는 동안 내 안에서 깨달음이, 다시 찾아냄이, 앎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그 얼굴 앞에 서서 바로 코앞에서 들여다보았다. 크게 뜬, 초록빛이 도는, 꼼짝 않는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는데, 오른쪽 눈이 다른 눈보다 조금 높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 오른쪽 눈이 움찔했다. 가볍고 섬세하게, 그러나 똑똑히 움찔했고, 그 움찔함으로 나는 그 그림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그것을 이토록 늦게야 알아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나중에 나는 그 그림을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데미안의 실제 얼굴과 자꾸자꾸 견주어 보았다. 비슷하기는 했지만 전혀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것은 데미안이었다.

어느 초여름 저녁, 서쪽으로 난 내 창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붉게 비쳐 들었다. 방 안이 어둑해졌다. 그때 나는 베아트리체의 초상을, 아니 데미안의 초상을 창살에 핀으로 꽂아 놓고 저녁 해가 그것을 꿰뚫고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자는 생각을 했다. 얼굴은 윤곽 없이 흐려졌지만, 붉은 테를 두른 눈과 이마의 밝음과 강렬하게 붉은 입이 화면에서 깊고 거칠게 타올랐다. 그 빛이 이미 꺼진 뒤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차츰 이것은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림은 나와 닮지 않았다. 닮아서도 안 된다고 나는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내 안의 것, 내 운명, 혹은 내 다이몬[2]이었다. 내가 언젠가 다시 벗을 찾는다면 내 벗은 이런 모습일 것이었다. 내가 언젠가 연인을 얻는다면 내 연인은 이런 모습일 것이었다. 내 삶이 이러하고 내 죽음이 이러할 것이었다. 이것이 내 운명의 울림이고 리듬이었다.

그 몇 주 동안 나는 책을 하나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읽은 어떤 책보다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뒤로도 책을 그렇게 체험한 일은 드물었다. 어쩌면 니체 정도일까. 그것은 노발리스[3]의 책 한 권으로, 편지와 잠언이 실려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를 끌어당기고 휘감았다. 그 잠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펜으로 초상 아래에 적었다. "운명과 심성은 한 개념의 두 이름이다." 이제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내가 베아트리체라고 부른 그 처녀와는 그 뒤에도 자주 마주쳤다. 이제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부드러운 어울림을, 느낌 같은 예감을 느꼈다. 너는 나와 이어져 있다. 그러나 네가 아니라 네 그림만이. 너는 내 운명의 한 조각이다.

◆

막스 데미안을 향한 그리움이 다시 거세졌다. 몇 해째 나는 그 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방학 때 딱 한 번 그 애와 마주친 일이 있었다. 이제 보니 나는 이 짧은 만남을 내 기록에서 빼먹었고, 그것이 부끄러움과 허영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겠다. 그것을 지금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방학 때, 술집을 드나들던 시절의 그 싫증 난 듯하고 늘 조금 지친 얼굴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향 도시를 어슬렁거리면서, 예전 그대로인, 내가 경멸하는 속물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전의 내 벗이 맞은편에서 걸어왔다. 그 애를 보자마자 나는 움찔했다. 그리고 번개처럼 프란츠 크로머가 떠올랐다. 데미안이 그 이야기를 정말로 잊어버렸으면! 그 애에게 그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몹시 거북했다. 사실 바보 같은 어린애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빚은 빚이었다…

그 애는 내가 인사를 할지 기다리는 것 같았고, 내가 되도록 태연하게 인사하자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다시 그 애의 악수였다! 그토록 단단하고, 따뜻하면서도 서늘하고, 사내다운!

그 애는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많이 컸군, 싱클레어." 그 애 자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언제나처럼 똑같이 늙었고, 똑같이 젊었다.

그 애는 나와 함께 걸었다. 우리는 산책을 하며 하찮은 이야기만 했고, 그때 일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내가 그 애에게 여러 번 편지를 쓰고도 답장을 받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다. 아, 그 애가 그것도, 그 멍청하고 멍청한 편지들도 잊어버렸으면! 그 애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아직 베아트리체도 초상도 없었고, 나는 아직 거친 시절 한가운데 있었다. 도시 밖에서 나는 그 애에게 함께 술집에 가자고 했다. 그 애는 따라왔다. 나는 허세를 부리며 포도주 한 병을 시켜 따르고는 그 애와 잔을 부딪쳤고, 대학생들의 술 마시는 관습에 아주 익숙한 체하며 첫 잔도 단숨에 비웠다.

"술집에 자주 다니나 봐?" 데미안이 물었다.

"아, 그렇지 뭐." 나는 나른하게 말했다. "달리 뭘 하겠어? 그래도 결국은 이게 제일 재미있거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거기엔 아주 아름다운 데가 있긴 해. 도취, 바쿠스적인 것 말이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술집에 자주 눌러앉는 사람들 대부분한테서는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오히려 술집을 드나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속물스러운 일 같거든. 그래, 하룻밤 내내, 횃불을 밝히고, 진짜 아름다운 도취와 비틀거림에 빠지는 거라면 몰라! 하지만 그렇게 늘, 한 잔 또 한 잔, 그건 진짜가 아니지 않아? 이를테면 파우스트가 저녁마다 단골 술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나는 술을 마시며 적의를 품고 그 애를 쳐다보았다.

"그거야 누구나 파우스트는 아니잖아." 나는 짧게 내뱉었다.

그 애는 조금 멈칫하며 나를 보았다.

그러다 예전의 그 싱그러움과 여유로운 우월함으로 웃었다.

"자, 그런 걸 두고 다퉈서 뭐 하겠어? 어쨌든 술꾼이나 난봉꾼의 삶이 흠잡을 데 없는 시민의 삶보다는 아마 더 살아 있을 거야. 그리고, 어디선가 읽은 건데, 난봉꾼의 삶은 신비가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 가운데 하나래. 예언자가 되는 건 늘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도 그 전에는 쾌락을 즐기는 한량이었지."

나는 의심이 들었고, 그 애에게 가르침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래,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지 뭐! 솔직히 말해서, 난 예언자니 뭐니 하는 게 되는 데는 전혀 관심 없거든."

데미안은 살짝 가늘게 뜬 눈으로 다 안다는 듯 나를 번득 쏘아보았다.

"싱클레어, 이 친구야." 그 애가 천천히 말했다. "너한테 언짢은 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런데 말이야, 네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그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지는 우리 둘 다 모르잖아. 네 안에서 네 삶을 만드는 그것은 벌써 알고 있지. 그걸 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말이야. 아, 미안. 이제 집에 가 봐야 해."

우리는 짧게 작별했다. 나는 몹시 언짢은 기분으로 그대로 앉아 남은 포도주를 다 마셨고, 나가려다가 데미안이 벌써 값을 치른 것을 알고 더욱 화가 났다.

이 작은 일에서 내 생각은 다시 멈춰 섰다. 생각은 데미안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도시 밖의 그 술집에서 그 애가 한 말이 기이하리만큼 싱싱하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걸

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말이야!"

나는 창에 걸려 이제 완전히 빛이 꺼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이 아직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길이었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누군가의 눈길이었다. 모든 것을 아는 그 누군가의.

데미안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나는 그 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 애에게 닿을 수 없었다. 다만 그 애가 아마 어디선가 대학에 다니고 있으리라는 것, 그 애가 김나지움을 마친 뒤 그 애의 어머니가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것만 알았다.

크로머와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한 모든 기억을 내 안에서 끄집어냈다. 그 애가 언젠가 내게 했던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다시 울려 왔던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도 여전히 뜻이 있었고, 절실했고, 나와 상관이 있었다! 그리 즐겁지 않았던 마지막 만남에서 그 애가 난봉꾼과 성자에 대해 한 말도 갑자기 내 영혼 앞에 환히 떠올랐다. 내게도 꼭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 새로운 삶의 충동과 함께 바로 그 반대의 것이, 깨끗함을 향한 갈망이, 거룩한 것을 향한 그리움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까지, 나는 도취와 오물 속에서, 마비와 길 잃음 속에서 살지 않았던가?

그렇게 나는 계속 기억을 더듬었다. 어느새 밤이 깊었고 밖에서는 비가 내렸다. 기억 속에서도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젠가 그 애가 밤나무 아래서 프란츠 크로머 일로 나를 캐묻고 내 첫 비밀을 알아맞혔던 그 시간이었다. 학교 가는 길에 나눈 이야기들이, 견신례 수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스 데미안과의 맨 처음 만남이 떠올랐다. 그때 무엇이 문제였던가? 곧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고 완전히 그 안에 잠겨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다시 떠올랐다. 그 애가 카인에 대한 생각을 들려준 뒤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애는 우리 집 대문 위,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쐐기돌에 박힌 오래되고 닳은 문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관심을 끈다고, 그런 것은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 꿈을 꾸었다. 문장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작고 잿빛일 때도 많았고, 엄청나게 크고 빛깔이 여럿일 때도 많았지만, 그 애는 그것이 언제나 하나요 같은 것이라고 내게 설명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애는 나에게 그 문장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것을 삼키자, 삼켜 버린 문장의 새가 내 안에서 살아나 나를 가득 채우고 안에서부터 나를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져 나는 엄청나게 놀랐다. 죽을 듯한 두려움에 휩싸여 나는 벌떡 일어나며 잠에서 깼다.

정신이 들고 보니 한밤중이었고,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다가 바닥에 놓인 무언가 밝은 것을 밟았다. 아침에 보니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었다. 젖은 바닥에 떨어져 울퉁불퉁 부풀어 올라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말리려고 압지 사이에 끼워 무거운 책에 넣어 두었다. 이튿날 다시 보니 그림은 말라 있었다. 그러나 달라져 있었다. 붉은 입이 빛이 바래고 조금 가늘어졌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데미안의 입이었다.

이제 나는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장의 새였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더는 또렷이 알지 못했고, 그 물건이 오래되고 여러 번 페인트가 덧칠된 탓에 몇몇 부분은 가까이서 보아도 잘 알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새는 무언가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어쩌면 꽃 위에, 어쩌면 바구니나 둥지 위에, 아니면 나무 우듬지 위에. 나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어렴풋한 욕구에 이끌려 나는 처음부터 강한 색을 썼고, 내

그림 속 새의 머리는 누런 금빛이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계속 그려 며칠 만에 그 그림을 다 그렸다.

이제 그것은 날카롭고 대담한 새매의 머리를 한 맹금이었다. 새는 푸른 하늘을 바탕으로, 몸의 반쯤을 어두운 둥근 세계 속에 박은 채, 거대한 알에서 나오듯 그 세계에서 몸을 빼내며 위로 솟고 있었다.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볼수록 그것이 내 꿈에 나왔던 그 빛깔 고운 문장인 것만 같았다.

데미안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해도 내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무렵 모든 일을 할 때 그랬던 꿈결 같은 예감 속에서, 그것이 그 애에게 닿든 닿지 않든 새매를 그린 그 그림을 그 애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림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내 이름도 적지 않았다. 가장자리를 정성껏 잘라 내고, 큰 종이 봉투를 사서 내 벗의 예전 주소를 적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부쳤다.

시험이 다가왔고, 나는 여느 때보다 학교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 내가 갑자기 고약한 행실을 고친 뒤로 선생들은 나를 다시 너그럽게 받아 주었다. 지금도 나는 좋은 학생은 아니었겠지만, 반년 전만 해도 내가 벌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이 누구에게나 뻔해 보였다는 것을 나도 다른 누구도 더는 떠올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제 다시 예전 같은 어조로, 꾸짖음도 위협도 없이 편지를 써 보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든 누구에게든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 변화가 부모와 선생들의 바람과 맞아떨어진 것은 우연이었다. 그렇게 달라졌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 곁으로 다가서지 못했고,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외로워질 뿐이었다. 나는 어딘가를 향해, 데미안을 향해, 먼 운명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나 자신도 알지 못했다. 나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으니까. 모든 것은 베아트리체에서

시작되었지만, 얼마 전부터 나는 내가 그린 그림들과 데미안 생각에 파묻혀 너무나 비현실적인 세계에 살았고, 그래서 베아트리체마저 눈에서도 생각에서도 완전히 놓쳐 버렸다. 내 꿈과 기대와 내면의 변모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설령 내가 그러고 싶었더라도.

하지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랄 수 있었겠는가?

---

1. 단테 『신곡』에서 단테를 천국으로 이끄는 인도자. 단테가 평생 우러른 여인이다.

2. 그리스어 daimon. 소크라테스가 자기 안에서 들린다고 한 내면의 목소리.

3. 노발리스(1772~1801). 독일 낭만주의 시인. 『밤의 찬가』와 소설 『푸른 꽃』을 썼다.

제5장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내가 그린 꿈의 새는 길을 떠나 내 벗을 찾아가고 있었다. 답은 더없이 기이하게 돌아왔다.

어느 날 두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실의 내 자리로 돌아와 보니, 책 속에 쪽지 한 장이 꽂혀 있었다. 반 아이들이 이따금 수업 중에 몰래 서로 쪽지를 건넬 때 우리끼리 늘 접던 모양 그대로 접혀 있었다. 누가 내게 그런 쪽지를 보냈는지, 그것만이 의아했다. 나는 반 아이 누구와도 그런 것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적이 없었다. 어차피 끼지도 않을 무슨 장난에 함께하자는 이야기겠거니 하고 읽지도 않은 채 쪽지를 책 앞쪽에 끼워 두었는데, 그러다 수업 도중에야 우연히 그것이 다시 손에 잡혔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별생각 없이 펼쳐 보니 몇 마디가 적혀 있었다. 슬쩍 눈길을 주었다가 한 낱말에 걸려 흠칫 놀랐고, 그러고는 운명 앞에서 지독한 추위를 만난 듯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 글을 읽어 내려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부서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1]다."

그 몇 줄을 거듭 읽고 나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데미안이 보낸 답이었다. 나와 데미안 말고는 아무도 그 새를 알 수 없었다. 그 애는 내 그림을 받았다. 그리고 알아들었고, 내가 그 뜻을

풀도록 돕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진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물음, 아브락사스란 무엇인가? 그런 말은 들어 본 적도, 읽어 본 적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 시간은 수업 내용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지나갔다. 다음 시간이 시작되었다. 오전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대학을 갓 나온 아주 젊은 보조 교사가 맡은 수업이었는데, 우리는 그가 그렇게 젊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서 거짓 위엄을 꾸며 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를 좋아했다.

우리는 폴렌 박사와 함께 헤로도토스를 읽고 있었다. 이 강독은 내가 흥미를 느끼던 몇 안 되는 과목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만은 마음이 거기 없었다. 책은 기계처럼 펴 놓았지만, 번역해 나가는 대목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든 충분히 강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 데미안이 그때 견신례 수업에서 내게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옳은지 나는 그사이 여러 번 겪어 본 터였다. 수업 중에 내 생각에 아주 깊이 빠져 있으면, 선생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리라고 마음 놓아도 되었다. 물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거나 졸고 있으면 선생은 어느새 곁에 와 서 있었고, 그런 일도 이미 겪었다. 하지만 정말로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로 깊이 잠겨 있을 때는 보호를 받았다. 단단히 쏘아보는 일도 시험해 보았는데 효험이 있었다. 데미안과 지내던 시절에는 잘되지 않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눈길과 생각만으로도 아주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자주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앉아, 헤로도토스에게서도 학교에서도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생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의식에 내리꽂혀 나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바로 내 옆에 서 있었고, 나는 그가 벌써 내 이름을 부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숨을 돌렸다.

그때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그 낱말을 크게 소리 내어 말했다. "아브락사스."

앞부분은 놓쳐 버린 설명을 이어 가며 폴렌 박사가 말했다. "우리는 고대의 그 종파들과 신비주의 결사들의 생각을,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 소박하게 상상해서는 안 된다. 고대는 우리가 말하는 뜻의 학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대신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진리를 깊이 파고드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은 아주 높은 수준까지 발달해 있었다. 거기서 일부는 마술과 허황한 장난이 생겨났고, 그것이 사기와 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술 역시 고귀한 내력과 깊은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아까 예로 든 아브락사스의 가르침이 그렇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문과 함께 불리며 흔히 오늘날에도 미개한 민족들이 섬기는 것과 같은 어떤 마귀의 이름으로 여겨지지만, 아브락사스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뜻하는 듯하다. 우리는 이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하나로 결합하는 상징적 과제를 지닌 어떤 신격의 이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몸집이 작은 그 학자는 섬세하고 열띤 목소리로 말을 이어 갔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 이름이 더는 나오지 않자 내 주의도 곧 다시 내 안으로 가라앉았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하나로 결합한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울렸다. 여기서 실마리를 이을 수 있었다. 우리 우정의 맨 마지막 무렵에 데미안과 나눈 이야기들 덕분에 이미 낯익은 생각이었다. 그때 데미안은, 우리에게는 섬기는 신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신은 세계에서 제멋대로 떼어 낸 절반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했다(그것은 공인되고 허락된 "밝은" 세계였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계를 섬길 수 있어야 하므로, 악마이기도 한 신을 모시든지 아니면 신을 섬기는 예배

곁에 악마를 섬기는 예배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보니 아브락사스가 바로 신이면서 악마이기도 한 그 신이었다.

한동안 나는 대단한 열의로 그 흔적을 뒤쫓았지만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아브락사스를 찾아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뒤졌으나 허사였다. 하지만 내 본성은 애초에 이렇게 곧바로, 의식하며 찾아 나서는 일에 맞게 생겨 먹지 않았다. 그렇게 찾아서는 대개 손에 쥐는 순간 돌멩이로 남는 진리밖에 얻지 못한다.

한동안 그토록 많이, 그토록 깊이 마음을 쏟았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이제 차츰 가라앉았다. 아니, 가라앉았다기보다는 천천히 내게서 물러나 점점 지평선 쪽으로 다가가더니, 갈수록 그림자처럼 엷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희미해졌다. 그 모습으로는 이제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다.

몽유병자처럼 이상하게 내 안에 고치를 치고 틀어박힌 채 이어 가던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빚어지기 시작했다. 삶을 향한 그리움이 내 안에서 피어났다. 아니, 사랑을 향한 그리움이었다. 한동안 베아트리체를 우러르는 마음속으로 녹여 낼 수 있었던 성의 충동이 새로운 영상과 목표를 요구했다. 여전히 아무런 충족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리움을 속여 넘기는 일, 동무들이 행복을 찾던 그런 아가씨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도 불가능했다. 나는 다시 격렬하게 꿈을 꾸었는데, 그것도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이 꾸었다. 상상이며 영상이며 소망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 나를 바깥 세계에서 끌어냈고, 그래서 나는 내 실제 주변과 지낼 때보다 내 안의 이 영상들, 이 꿈이나 그림자들과 더 실감 나고 생생하게 어울리며 살았다.

어떤 꿈 하나, 혹은 늘 되풀이되던 공상의 놀이 하나가 내게 큰 뜻을 띠게 되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남은 이 꿈은 대략 이러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대문 위에서는 문장의 새가 파란 바탕 위에 누렇게 빛나고 있었다. 집 안에서 어머니가

나를 맞으러 나왔다. 그런데 내가 들어서서 어머니를 껴안으려 하자,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형상이었다. 크고 힘찬 그 형상은 막스 데미안과도, 내가 그린 그림과도 닮았지만 또한 달랐고, 그 힘찬 기운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 여자였다. 이 형상은 나를 끌어당겨 깊고 몸서리치는 사랑의 포옹 속에 품었다. 환희와 몸서리가 뒤섞였다. 그 포옹은 예배였고, 똑같이 범죄였다. 나를 감싸 안은 그 형상 속에는 어머니의 기억이 너무 많이, 내 벗 데미안의 기억이 너무 많이 유령처럼 깃들어 있었다. 그 포옹은 모든 경외를 거스르면서도 지복이었다. 이 꿈에서 깨어날 때면 깊은 행복감에 잠겨 있을 때도 많았고,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뒤처럼 죽을 듯한 두려움과 지독히 괴로운 양심에 시달릴 때도 많았다.

이 철저히 내면의 영상과, 찾아야 할 신에 관해 바깥에서 내게 온 눈짓 사이에, 아주 서서히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연결이 생겨났다. 그 연결은 점점 더 긴밀하고 깊어졌고, 나는 바로 이 예감의 꿈속에서 내가 아브락사스를 부르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환희와 몸서리, 남자와 여자가 뒤섞이고,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끔찍한 것이 한데 엉키고, 깊은 죄가 더없이 여린 무구함을 뚫고 번득이는 것, 내가 꿈꾸던 사랑의 영상은 그러했고, 아브락사스도 그러했다. 사랑은 이제, 처음에 내가 겁에 질려 느꼈던 짐승처럼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베아트리체의 모습에 바쳤던, 경건하게 정신으로 승화된 우러름도 이제는 아니었다. 사랑은 그 둘 다였다. 둘 다이면서 훨씬 그 이상이었다. 천사의 모습이자 사탄이었고, 한 몸 안의 남자와 여자, 사람과 짐승, 지고의 선이자 극한의 악이었다. 이것을 살아 내는 일이 내게 정해진 듯했고, 이것을 맛보는 일이 내 운명인 듯했다. 나는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두려워했고, 꿈속에서 그것을 좇으면서 그것에게서 달아났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고, 언제나 내 위에 있었다.

이듬해 봄에는 김나지움을 떠나 대학에 가야 했는데, 어디서 무엇을 공부할지는 아직 몰랐다. 입술 위로 작은 수염이 돋았다. 나는 다 자란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무력했고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단단한 것은 하나뿐이었다. 내 안의 목소리, 그 꿈의 영상. 나는 이 인도를 눈먼 듯 따라야 한다는 과제를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힘들었고, 나는 날마다 반항했다. 어쩌면 내가 미친 건 아닐까,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드물지 않게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해내는 일이라면 나도 다 할 수 있었다. 조금만 부지런히 애쓰면 플라톤을 읽을 수 있었고, 삼각법 문제를 풀거나 화학 분석을 따라갈 수도 있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 내 안에 어둡게 숨어 있는 목표를 끄집어내어 어딘가 내 앞에 그려 놓는 일,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되겠다고, 그러려면 얼마나 걸리고 그것이 어떤 이득을 줄지 정확히 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었다. 그것만은 내게 불가능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 그런 무엇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어쩌면 나는 몇 해고 찾고 또 찾아야 할지도, 그러고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어떤 목표에도 이르지 못할지도 몰랐다. 어쩌면 어떤 목표에 이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악하고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목표일 것이었다.

나는 그저 내 속에서 저절로 솟아 나오려는 것을 살아 보려 했을 따름이다. 그것이 어째서 그토록 어려웠던가?

나는 꿈에 나온 그 힘찬 사랑의 형상을 그려 보려고 여러 번 애썼다. 그러나 한 번도 되지 않았다. 그게 되었다면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 애는 어디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애가 나와 이어져 있다는 것만은 알았다. 언제 그 애를 다시 보게 될까?

베아트리체 시절 그 몇 주, 몇 달의 다정한 고요는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 그때 나는 섬에 닿아 평화를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늘

그랬다. 어떤 상태가 마음에 들 만하면, 어떤 꿈이 나를 달래 줄 만하면, 그것은 어느새 시들고 흐려져 버렸다. 그것을 두고 한탄해 봐야 소용없었다! 이제 나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팽팽한 기다림의 불길 속에서 살았고, 그 불길 속에서 자주 완전히 사나워지고 미쳐 버릴 것 같았다. 꿈속 연인의 영상이 살아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내 손보다도 훨씬 또렷하게 눈앞에 보일 때가 많았다. 나는 그 영상과 이야기했고, 그 앞에서 울었고, 그것을 저주했다. 그것을 어머니라 부르며 눈물 속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연인이라 부르며 모든 것을 채워 줄 무르익은 입맞춤을 예감했고, 악마라고, 창녀라고, 흡혈귀이자 살인자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를 더없이 여린 사랑의 꿈으로도, 난잡한 파렴치로도 꾀어 들였다. 그것에게는 너무 좋고 귀한 것도, 너무 나쁘고 천한 것도 없었다.

그해 겨울 내내 나는 말로 그리기 어려운 내면의 폭풍 속에서 살았다. 외로움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했고,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도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새매와, 그리고 내 운명이자 내 연인인 커다란 꿈의 형상을 눈앞에 그리며 그것들과 함께 살았고, 그것만으로도 살아가기에는 넉넉했다. 모든 것이 크고 넓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아브락사스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꿈들 가운데 어느 것도, 내 생각들 가운데 어느 것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것 하나 불러낼 수 없었고,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색을 입힐 수 없었다. 그것들이 찾아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받았고, 그것들이 나를 살았다.

바깥으로는 물론 안전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반 아이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게 은근한 존경을 보냈는데, 나는 그것을 보며 자주 웃음을 지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 대부분의 속을 아주 잘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이따금 그것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다만

그럴 마음이 드는 일은 드물었다. 아니, 거의 없었다. 나는 늘 나 자신에게 몰두해 있었다. 언제나 나 자신에게만. 그리고 이제는 한 번쯤 정말로 삶의 한 조각을 살아 보고 싶었고, 나에게서 무언가를 세상으로 내보내 세상과 관계를 맺고 맞붙어 싸워 보고 싶어 애가 탔다. 저녁에 거리를 쏘다니다가 마음이 들떠 자정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면, 이따금 바로 지금, 바로 다음 순간 내 연인이 나와 마주치리라고, 다음 모퉁이에서 곁을 지나가리라고, 다음 창문에서 나를 부르리라고 생각하곤 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언젠가는 내 손으로 목숨을 끊을 각오까지 했다.

그 무렵 나는 독특한 피난처를 하나 찾았다.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우연"으로. 그러나 그런 우연은 없다. 무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필요한 것을 찾아낸다면, 그것을 그에게 건네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이고, 그 자신의 갈망과 그 자신의 어쩔 수 없음이 그를 그리로 이끈다.

시내를 거닐다가 변두리의 작은 교회당에서 오르간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두세 번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발을 멈추지는 않았다. 다음번에 그 앞을 지날 때 다시 그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바흐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문으로 가 보니 잠겨 있었다. 골목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므로 나는 교회당 옆 차막이 돌 위에 앉아 외투 깃을 여미고 귀를 기울였다. 크지는 않아도 좋은 오르간이었다. 연주는 기이했다. 훌륭하고 거의 대가다운 솜씨였지만, 거기에는 기도처럼 들리는 독특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지와 끈기가 배어 있었다. 저기서 연주하는 사람은 이 음악 속에 보물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보물을 얻으려고 목숨이라도 걸린 듯 구애하고 두드리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음악을 잘 모른다. 그러나

바로 이런 영혼의 표현만은 어릴 때부터 본능으로 알아들었고, 음악적인 것을 내 안에 당연히 있는 무엇으로 느껴 왔다.

연주자는 이어서 현대 음악도 한 곡 쳤는데, 레거[2]의 곡인 듯했다. 교회당 안은 거의 완전히 캄캄했고, 가장 가까운 창으로 아주 가느다란 빛줄기 하나가 새어 들 뿐이었다. 나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르간 연주자가 나오는 것이 보일 때까지 이리저리 서성였다. 아직 젊은 사람이었지만 나보다는 나이가 위였고 몸집이 다부지고 땅딸막했는데, 그는 힘차면서도 어딘지 마지못한 듯한 걸음으로 빠르게 걸어가 버렸다.

그 뒤로 나는 가끔 저녁 시간이면 교회당 앞에 앉아 있거나 그 앞을 오락가락했다. 한번은 문이 열려 있어서, 오르간 연주자가 위에서 희미한 가스등 불빛 아래 연주하는 동안 반 시간을 신도석에 앉아 떨면서도 행복하게 보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내가 들은 것은 그 사람 자신만이 아니었다. 그가 연주하는 것은 모두 서로 닮아 있고 남모르는 연관을 지닌 것 같았다. 그가 연주하는 것은 하나같이 믿음에 차 있었고, 헌신적이고 경건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신도나 목사들처럼 경건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순례자나 거지처럼, 모든 교파의 신앙 고백을 넘어선 세계를 느끼는 어떤 감정에 거침없이 몸을 내맡기며 경건했다. 바흐 이전의 거장들이 부지런히 연주되었고, 옛 이탈리아 음악가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 음악가의 영혼에 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움, 세계를 더없이 깊이 끌어안는 일과 세계에서 더없이 거칠게 다시 떨어져 나오는 일, 제 어두운 영혼에 타오르듯 귀 기울이는 일, 헌신의 도취, 그리고 경이로운 것을 향한 깊은 호기심.

한번은 오르간 연주자가 교회당을 떠난 뒤 몰래 그 뒤를 밟았는데, 그는 도시 변두리 저 바깥의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참지 못하고

따라 들어갔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를 똑똑히 보았다. 그는 좁은 방 한구석의 술집 탁자 앞에 검은 펠트 모자를 쓴 채 포도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고, 그 얼굴은 내가 짐작한 그대로였다. 못생기고 어딘가 거칠었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하면서도 한 가지에 꽉 틀어박혀 있었고, 고집스럽고 의지에 차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입가는 부드럽고 아이 같았다. 남자답고 강한 것은 모두 눈과 이마에 모여 있었고, 얼굴 아래쪽은 여리고 덜 다듬어졌으며 다잡히지 않은 채 얼마간 나약했다. 망설임이 가득한 턱은 이마와 눈빛에 맞서는 모순처럼 소년같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자부심과 적의가 가득한 짙은 갈색 눈이 나는 좋았다.

나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나를 쫓아내려는 듯 번득이는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그를 줄곧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가 퉁명스럽게 투덜거렸다. "뭘 그렇게 지독하게 쳐다보나?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

"아무 볼일도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래, 자네 음악에 들뜬 사람인가? 나는 음악에 들떠 열을 올리는 게 역겹네."

나는 기죽지 않았다.

"저기 바깥 교회당에서 벌써 여러 번 연주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귀찮게 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무언가를,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차라리 아예 듣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당에서 들으면 됩니다."

"나는 늘 문을 잠그네."

"얼마 전에는 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밖에 서 있거나 차막이 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 다음엔 들어와도 되네. 안이 더 따뜻하니까. 문만 두드리게. 다만 세게 두드리고, 내가 연주할 때는 말게. 자, 그럼…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인가? 자네는 아주 젊은 친구로군. 아마 김나지움 학생이거나 대학생이겠지. 음악을 하나?"

"아닙니다. 음악 듣기를 좋아하지만, 연주하시는 그런 음악, 아무 조건도 붙지 않은 음악,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뒤흔드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만 좋아합니다. 저는 음악이 무척 좋습니다. 아마 음악이 도덕과 별 상관이 없어서일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도덕적이고, 저는 그렇지 않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늘 도덕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만 했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말로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가는 챙 넓은 모자를 조금 뒤로 젖히고 넓은 이마에 흘러내린 검은 머리칼을 털어 넘겼고, 그러면서 꿰뚫어 보듯 나를 바라보며 탁자 너머 내 쪽으로 얼굴을 기울였다.

그가 낮고 팽팽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말하는 그 신의 이름이 뭔가?"

"안타깝게도 그 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이름밖에 모릅니다. 아브락사스라고 합니다."

음악가는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 봐 미심쩍은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바싹 다가앉아 속삭였다. "그럴 줄 알았네. 자네는 누군가?"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아브락사스는 어떻게 알았나?"

"우연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가 탁자를 내리치는 바람에 포도주 잔이 넘쳤다.

"우연이라니! 개… 같은 소리 말게, 젊은 친구! 아브락사스는 우연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닐세. 그걸 명심하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야기해 주겠네. 나도 조금은 아네."

그는 입을 다물고 의자를 뒤로 물렸다. 내가 기대에 차서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여기서는 안 되네! 다음에. 자, 이거나 받게!"

그러면서 그는 벗지 않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군밤 몇 알을 꺼내 내게 던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고, 몹시 흐뭇했다.

"자, 그럼!" 한참 뒤에 그가 속삭였다. "어디서 알게 됐나, 그…분을?"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털어놓았다.

"저는 외롭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다. "그때 예전에 사귀던 친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많은 것을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둥근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새였습니다. 그것을 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얼마 뒤, 더는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무렵,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부서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 껍질을 까서 포도주에 곁들여 먹었다.

"한 잔 더 하겠나?" 그가 물었다.

"고맙지만 됐습니다.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 실망한 듯 웃었다.

"좋을 대로 하게! 나는 다르네. 나는 좀 더 있다 가겠네. 자네는 이제 가 보게!"

다음번에 오르간 연주를 듣고 나서 그와 함께 갔을 때, 그는 그다지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오래된 골목의 오래되고 당당한 집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올라가더니, 크고 어딘가 침침하며 돌보지 않아 어수선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피아노 한 대 말고는 음악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대신 커다란 책장과 책상이 있어 방은 학자의 방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책이 참 많으십니다!"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일부는 아버지 서재에서 나온 걸세. 나는 아버지 집에 얹혀살거든. 그래, 젊은 친구,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자네를 두 분께 소개할 수는 없네. 이 집에서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리 대접을 받지 못하거든. 나는 탕자라네, 알겠나. 아버지는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시고, 이 도시에서 이름난 목사이자 설교자시지. 그리고 나는, 자네가 미리 알아 두라고 하는 말인데, 그분의 재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드님이시지만 궤도를 벗어나 얼마간 미쳐 버린 사람일세. 나는 신학을 공부했는데, 국가시험을 코앞에 두고 그 점잖은 학부를 떠났네. 하기야 혼자 하는 공부로 치면 지금도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셈이지만. 사람들이 그때그때 어떤 신들을 생각해 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내게 무척 중요하고 흥미롭네. 그 밖에는 이제 음악가고, 보아하니 곧 작은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하나 얻게 될 것 같네. 그러면 나도 다시 교회 곁에 붙어 있게 되는 셈이지."

나는 책등을 따라 훑어보며, 작은 탁상 등의 희미한 불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한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된 책 제목들을

찾아냈다. 그사이 새로 알게 된 그 사람은 어둠 속 벽 쪽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리 오게." 잠시 뒤 그가 불렀다. "이제 철학을 좀 해 보세. 말하자면 입 다물고, 배를 깔고 엎드려서, 생각하는 걸세."

그는 성냥을 그어, 자기가 엎드린 앞의 벽난로에서 종이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높이 치솟았고, 그는 아주 세심하게 공을 들여 불을 쑤시고 장작을 먹였다. 나는 그의 곁, 닳아 해진 양탄자 위에 엎드렸다. 그는 불을 응시했고, 불은 나도 끌어당겼다. 우리는 아마 한 시간쯤 말없이 깜빡이는 장작불 앞에 배를 깔고 엎드려, 불이 타오르며 우우 소리를 내다가 주저앉고 몸을 비틀고, 너울거리다 움찔대다가 마침내 바닥에 깔려 고요히 가라앉은 잉걸불로 웅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 숭배는 사람이 생각해 낸 것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건 아니었네." 한번은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밖에는 우리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굳은 눈으로 불에 매달린 채 꿈과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고, 연기 속에서 형상들을, 재 속에서 그림들을 보았다. 한번은 흠칫 놀라 정신을 차렸다. 내 동무가 송진 한 조각을 잉걸불에 던져 넣자 작고 가느다란 불꽃 하나가 솟구쳤는데, 나는 그 안에서 누런 새매 머리를 한 새를 보았다. 사그라져 가는 벽난로의 잉걸불 속에서 금빛으로 달아오른 실들이 그물처럼 얽혀 들었고, 글자와 그림들이, 얼굴들과 짐승들, 풀과 나무, 벌레와 뱀의 기억들이 나타났다. 깨어나 그를 돌아보니, 그는 두 주먹으로 턱을 괴고 넋을 놓은 채 광신자처럼 잿더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내가 나직이 말했다.

"그래, 그럼 가 보게. 잘 가게!"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등불도 꺼져 있었기에 나는 캄캄한 방과 캄캄한 복도와 계단을 힘겹게 더듬으며 마법에 걸린 듯한 그 오래된

집을 빠져나와야 했다. 거리에 나와 걸음을 멈추고 그 오래된 집을 올려다보았다. 어느 창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문 앞에서 작은 놋쇠 문패 하나가 가스등 불빛에 반짝였다.

"피스토리우스, 주임 목사." 나는 거기 새겨진 글자를 읽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 작은 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에야, 아브락사스에 대해서도 그 밖의 무엇에 대해서도 피스토리우스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주고받은 말이 열 마디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래도 나는 그를 찾아간 일이 무척 흡족했다. 게다가 그는 다음번에 아주 빼어난 옛 오르간 곡 한 편, 북스테후데[3]의 파사칼리아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

나는 몰랐지만, 그의 침침한 은둔자의 방에서 그와 함께 벽난로 앞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때,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첫 수업을 해 준 셈이었다. 불을 바라본 일은 내게 이로웠다. 불을 바라보는 동안, 늘 지니고 있었지만 제대로 가꾼 적은 없던 내 안의 성향들이 힘을 얻고 굳어졌다. 차츰 나는 그것을 얼마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나는 이따금 자연의 기묘한 형태들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 관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고유의 마력과 그 얽히고설킨 깊은 언어에 나를 내맡겼다. 길게 뻗어 나무처럼 굳은 뿌리, 돌 속의 색색 결, 물 위에 뜬 기름 얼룩, 유리에 간 금, 이런 비슷한 것들이 모두 한때 내게 커다란 마력을 지녔다. 무엇보다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가 그랬고, 특히 눈을 감으면 보이던 빙빙 도는 색 얼룩들이 그랬다. 피스토리우스를 처음 찾아간 뒤 며칠 동안 이 일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느끼던 어떤 힘과 기쁨, 나 자신을

느끼는 감정이 한층 높아진 것이 오로지 활활 타는 불을 오래 응시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일은 기이하리만치 마음을 달래 주고 나를 풍요롭게 했다!

지금까지 내 본래의 삶의 목표로 가는 길에서 얻은 몇 안 되는 경험에 이 새로운 경험이 하나 더 보태졌다. 그런 형상들을 바라보는 일, 자연의 비합리하고 얽히고설킨 기묘한 형태에 자신을 내맡기는 일은, 우리 내면이 이 형상들을 생겨나게 한 의지와 하나로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곧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변덕으로, 우리 자신의 창조물로 여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우리와 자연 사이의 경계가 떨리며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 망막에 맺힌 영상이 바깥의 인상에서 온 것인지 안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창조자인지, 우리 영혼이 세계의 끊임없는 창조에 얼마나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이 연습에서만큼 단순하고 쉽게 발견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아니,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과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은 같은 하나의 나뉠 수 없는 신성이다. 만약 바깥 세계가 무너져 사라진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산과 강, 나무와 잎, 뿌리와 꽃, 자연 속에 빚어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미리 빚어져 있고, 영혼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 영혼의 본성은 영원이고, 우리는 그 본성을 모르지만, 그것은 대개 사랑의 힘과 창조의 힘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

여러 해가 지나서야 나는 이 관찰이 어느 책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책이었는데, 그는 한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침을 뱉어 놓은 벽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좋고 깊은 자극이 되는지 이야기했다. 축축한 벽의 그 얼룩들 앞에서 그는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 앞에서 느낀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오르간 연주자는 내게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늘 우리 인격의 경계를 너무 좁게 긋네! 우리는 늘, 남과 구별되는 것, 남과 다르다고 알아보는 것만을 우리 자신으로 치지.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세계가 지닌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네. 우리 몸이 물고기까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의 족보를 제 안에 지니고 있듯, 우리 영혼 안에는 이제까지 사람의 영혼 속에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네. 일찍이 있었던 모든 신과 악마가, 그리스 사람의 것이든 중국 사람의 것이든 줄루족의 것이든, 모두 우리 안에 함께 있네.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빠져나갈 길로 거기 있단 말일세. 만약 인류가 다 죽어 없어지고,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못한 그럭저럭 재능 있는 아이 하나만 남는다면, 그 아이는 만물이 걸어온 길을 고스란히 다시 찾아낼 걸세. 신들, 악령들, 낙원들, 계명과 금지, 구약과 신약, 그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을 걸세."

"네, 좋습니다." 내가 반박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 하러 애를 씁니까?"

"잠깐!" 피스토리우스가 격하게 외쳤다. "자네가 그저 세계를 제 안에 품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기도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네! 미친 사람도 플라톤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을 낳을 수 있고, 헤른후트 형제단 학교의 어린 경건한 학생도 영지주의자들이나 조로아스터에게서 나오는 깊은 신화의 연관을 창조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네. 하지만 그 아이는 그걸 전혀 모르네! 그걸 모르는 동안은 나무나 돌, 기껏해야 짐승일 뿐이지. 그러다 이 깨달음의 첫 불꽃이 어슴푸레 밝아 오면, 그때 그 아이는 사람이 되는 걸세. 설마 저기 거리를 걸어 다니는 두 발 짐승들을, 그저 똑바로 서서 걷고 새끼를 아홉 달 밴다고 해서, 모두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겠지?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인지, 얼마나 많은 것이 개미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벌인지

자네도 보지 않나! 그래, 그들 하나하나 안에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예감하고, 더러는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는 법까지 배울 때에야 비로소 그 가능성은 그의 것이 된다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대체로 이러했다. 그 이야기들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 정말 놀라운 것을 얻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하나같이, 가장 진부한 것까지도, 나지막하고 끈질긴 망치질처럼 내 안의 같은 한 점을 두드렸다. 모두가 나를 빚는 일을 거들었고, 모두가 내게서 허물을 벗겨 내고 알껍데기를 깨뜨리는 일을 도왔다. 이야기 하나하나에서 나는 고개를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 올렸고, 마침내 내 누런 새는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껍데기를 뚫고 그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내밀었다.

우리는 자주 서로 꿈 이야기도 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을 풀이할 줄 알았다. 기이한 예 하나가 지금 막 떠오른다. 나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날았다기보다는,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커다란 기세에 떠밀려 허공으로 내던져졌다고 해야 맞았다. 그렇게 나는 기분은 처음엔 가슴이 부풀 만큼 좋았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아찔한 높이로 휩쓸려 올라가는 나 자신을 깨닫자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때 나는 구원 같은 발견을 했다. 숨을 참았다가 내쉬었다 하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 꿈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를 날게 하는 그 기세, 그건 누구나 지닌 우리 인류의 큰 재산일세. 모든 힘의 뿌리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지. 하지만 그러다 보면 곧 겁이 나네! 지독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날기를 기꺼이 포기하고, 법규에 따라 보도 위를 걷는 쪽을 택하지. 하지만 자네는 그러지 않네. 자네는 계속 나네. 제법 쓸 만한 젊은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그런데 보게, 그러다 자네는 기이한 것을 발견하네. 차츰 그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걸세. 자네를 휩쓸어 가는 크고 보편적인 힘에, 섬세하고 작은 자네 자신의 힘이 하나 더해진다는 걸세. 기관 하나, 키 하나가! 그거 근사하지 않나. 그게 없으면 사람은 제 뜻도 없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네. 이를테면 미친 사람들이 그렇지. 그들에게는 보도 위를 걷는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예감이 주어져 있지만, 거기 맞는 열쇠도 키도 없어서 밑 없는 곳으로 곤두박질치지. 그런데 자네는, 싱클레어, 자네는 그걸 해내네! 그것도 어떻게 해내는지, 들어 보게. 아마 자네는 아직 모르겠지? 새로운 기관으로, 호흡 조절기로 해내는 걸세. 그러니 이제 자네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얼마나 '개인적'이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걸세. 자네 영혼은 이 조절기를 발명하지 않네! 이건 새것이 아닐세. 빌려 온 것이고,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온 것일세. 물고기의 평형 기관, 부레란 말일세. 실제로 오늘날에도 몇 안 되는 기이하고 보수적인 물고기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은 부레가 일종의 허파 구실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숨 쉬는 데 쓰인다네. 그러니까 자네가 꿈속에서 날 때 공기주머니로 쓰는 그 허파와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단 말일세!"

그는 동물학 책 한 권까지 가져와서 그 구식 물고기들의 이름과 그림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나는 야릇한 전율과 함께, 아득한 옛 진화의 시대에 속한 한 기능이 내 안에서 살아 있음을 느꼈다.

---

1. 아브락사스(Abraxas). 고대 영지주의 문헌과 부적에 나오는 신의 이름. 신과 악마를 아우르는 존재로 그려진다.

2. 막스 레거(1873~1916). 독일의 작곡가·오르간 연주자. 바흐를 잇는 오르간 곡을 많이 썼다.

3. 디트리히 북스테후데(1637년께~1707). 북독일의 오르간 연주자·작곡가. 젊은 바흐가 찾아가 배운 거장이다.

제6장 야곱의 싸움

그 별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에게서 아브락사스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짧게 다시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디딘 일이었다. 그 무렵 열여덟 살쯤이던 나는 별난 젊은이였다. 백 가지 일에서는 조숙했고, 다른 백 가지 일에서는 한참 뒤처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 이따금 나를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면 우쭐하고 자만에 빠질 때가 많았지만, 그만큼 자주 기가 꺾이고 비참해지기도 했다. 나 자신을 천재로 여길 때도 많았고, 반쯤 미친 사람으로 여길 때도 많았다. 또래들의 기쁨과 삶에 끼어들 수가 없었고, 마치 그들에게서 가망 없이 떨어져 나간 듯이, 삶이 내게 닫혀 버린 듯이 자책과 근심으로 속을 태울 때도 많았다.

피스토리우스는 그 자신이 다 자란 괴짜였는데, 그는 내게 용기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 말에서, 내 꿈에서, 내 공상과 생각에서 그는 언제나 값진 것을 찾아냈고, 언제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며, 그렇게 몸소 본을 보였다.

"자네가 그랬지." 그가 말했다. "음악이 도덕적이지 않아서 좋다고. 그래, 좋네. 하지만 그렇다면 자네 자신도 도덕군자가 되어서는 안 되네! 자네를 남과 견주어서는 안 되고,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었다면 타조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네. 자네는 이따금 스스로를 별나다고 여기고, 남들 대부분과 다른 길을 간다고 자책하지. 그런 버릇은 버리게.

불을 들여다보고, 구름을 들여다보게. 그러다 예감이 찾아오고 자네 영혼 속의 목소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선생 나리나 아버님 나리나 무슨 인자하신 하느님 마음에 들지, 그분들 뜻에 맞을지 먼저 묻지 말고 그것들에게 자신을 맡기게! 그렇게 묻다가 사람이 망가지는 걸세. 그러다 보도 위로 올라서고, 화석이 되어 버리지. 여보게 싱클레어, 우리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일세. 그는 신이면서 사탄이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제 안에 품고 있네. 아브락사스는 자네의 어떤 생각에도, 어떤 꿈에도 토를 달지 않네. 그걸 절대 잊지 말게. 하지만 자네가 한번 흠잡을 데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 그는 자네를 떠나네. 그때는 자네를 떠나서, 제 생각을 끓일 새 냄비를 찾아 나서지."

내 모든 꿈 가운데 가장 변함없이 찾아온 것은 그 어두운 사랑의 꿈이었다. 그 꿈을 나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꾸었다. 문장의 새 아래를 지나 우리 옛집으로 들어서서 어머니를 끌어안으려 하면, 어머니 대신 반은 남자 같고 반은 어머니 같은 그 커다란 여인이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그 여인이 두려웠지만, 더없이 뜨거운 갈망이 나를 그 여인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이 꿈만은 끝내 내 벗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다른 것은 모두 털어놓고도 이 꿈만은 남겨 두었다. 그것은 나의 구석이었고, 나의 비밀이었고, 나의 피난처였다.

마음이 무거울 때면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 늙은 북스테후데의 파사칼리아를 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저녁의 어두운 교회당에 앉아, 저 자신 속으로 가라앉아 저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그 기묘하고 내밀한 음악에 넋을 잃었고, 그 음악은 들을 때마다 내게 이로웠으며 영혼의 목소리들이 옳다고 인정할 마음이 더 들게 해 주었다.

이따금 우리는 오르간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교회당에 앉아, 높다란 뾰족 아치 창으로 희미한 빛이 비쳐 들다가 스러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우스운 이야기지." 피스토리우스가 말했다. "내가 한때 신학생이었고 하마터면 목사가 될 뻔했다는 게. 하지만 그때 내가 저지른 건 형식의 잘못이었을 뿐이네. 사제가 되는 것, 그게 내 소명이고 내 목표일세. 다만 나는 너무 일찍 만족해 버렸고, 아브락사스를 알기도 전에 여호와에게 몸을 맡겼지. 아, 모든 종교는 아름답네. 종교는 영혼일세. 그리스도교의 성찬을 받든 메카로 순례를 가든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말했다. "목사가 되셨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싱클레어, 아닐세. 그랬다면 거짓말을 해야 했을 걸세. 우리 종교는 마치 종교가 아닌 것처럼 행해지고 있네. 종교가 무슨 이성의 작품인 양 굴지. 가톨릭이라면 아쉬운 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개신교 목사는… 안 되네! 정말로 믿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나도 그런 사람을 알지만, 글자 그대로를 붙들기를 좋아하네. 그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그리스도가 내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영웅이고 신화라고, 인류가 영원의 벽에 스스로를 그려 넣고 바라보는 거대한 그림자 그림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걸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똑똑한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의무를 다하려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밖에 이런저런 까닭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했겠나? 그들을 개종시키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건 조금도 바라지 않네. 사제는 개종시키려 하지 않네. 사제는 그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싶어 하고, 우리가 신들을 빚어내는 그 감정을 떠받치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뿐일세."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다시 이어 갔다. "지금 우리가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우리의 새로운 믿음은 아름답네, 여보게. 우리가 지닌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지. 하지만 그건 아직 젖먹이일세! 아직 날개도 돋지 않았어. 아, 외톨이의 종교, 그건 아직 참된 게 아니네.

종교는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하네. 제의와 도취, 축제와 비의가 있어야 하네…"

그는 생각에 빠져 자기 안으로 가라앉았다.

"비의는 혼자서나, 아주 작은 모임에서도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야 할 수 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오래전부터 치러 왔네. 남들이 알면 몇 해는 징역을 살아야 할 제의도 치렀지. 하지만 그게 아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나는 아네."

그가 갑자기 내 어깨를 탁 치는 바람에 나는 움찔했다. "여보게." 그가 힘주어 말했다. "자네에게도 비의가 있네. 자네가 내게 말하지 않는 꿈을 꾸고 있을 게 틀림없다는 걸 나는 아네. 그걸 알고 싶지는 않네. 다만 이 말은 해 두지. 그 꿈을 살게. 그 꿈을 연기하고, 그 꿈에 제단을 쌓아 주게! 그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길일세. 언젠가 우리가, 자네와 나와 다른 몇 사람이 세계를 새롭게 할지 어떨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세계를 새롭게 해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명심하게! 자네는 열여덟 살일세, 싱클레어. 자네는 거리의 여자들을 찾아다니지 않네. 그러니 사랑의 꿈, 사랑의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 어쩌면 그것이 자네 스스로 겁이 날 만한 것일지도 모르네. 겁내지 말게! 그건 자네가 지닌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일세! 내 말을 믿어도 되네. 나는 자네 나이에 내 사랑의 꿈을 억지로 짓밟는 바람에 많은 것을 잃었네. 그래서는 안 되네. 아브락사스를 알고 나면 더는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 안의 영혼이 바라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금지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네."

나는 덜컥 놀라 반박했다. "하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내 쪽으로 더 다가앉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되네. 다만 대개는 착각일 뿐이지. 그리고 자네더러 머리에 스치는 것을 그대로 다 하라는 말도 아닐세. 아니, 다만 제 나름의 좋은 뜻을 지닌 그런 생각들을 쫓아내고 그것들을 붙들고 도덕을 따지는 바람에 해로운 것으로 만들지는 말라는 걸세. 자기 자신이나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엄숙한 생각을 품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며 희생의 비의를 생각할 수도 있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자기 충동과 이른바 유혹이라는 것을 존중과 사랑으로 다룰 수 있네. 그러면 그것들은 제 뜻을 드러내네. 그리고 그것들에는 모두 뜻이 있지. 다음에 또 무언가 정말 미친 짓이나 죄스러운 일이 떠오르거든, 싱클레어,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나 어마어마하게 추잡한 짓을 저지르고 싶어지거든, 그때는 자네 안에서 그런 공상을 하는 것이 아브락사스라는 걸 잠깐 떠올리게! 자네가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은 결코 아무개 씨가 아닐세. 그는 틀림없이 겉옷에 지나지 않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앉은 무언가를 미워하는 걸세. 우리 자신 안에 없는 것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네."

피스토리우스가 내 가장 은밀한 곳을 이토록 깊이 찌르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하고 기이하게 나를 건드린 것은, 그의 이 격려가 몇 해고 몇 해고 내 안에 품고 다니던 데미안의 말과 똑같이 울린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둘 다 내게 같은 것을 말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피스토리우스가 나직이 말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같은 것일세. 우리 안에 지닌 것 말고 다른 현실은 없네. 대부분의 사람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은, 바깥의 영상들을

현실로 여기고 제 안의 고유한 세계에는 한마디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고도 행복할 수는 있네. 하지만 일단 다른 것을 알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을 갈지 말지 고를 수가 더는 없어지네.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은 쉽고, 우리 길은 어렵네. 자, 가세."

며칠 뒤, 두 번이나 그를 헛되이 기다린 끝에 밤늦게 거리에서 그와 마주쳤는데, 그는 차가운 밤바람에 떠밀리듯 홀로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고 비틀거리며 완전히 취해 있었다. 나는 그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한 채 곁을 지나쳐 갔고, 마치 미지의 곳에서 오는 어두운 부름을 따르는 듯 이글거리면서도 외로운 눈으로 제 앞만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거리 하나를 지나도록 그를 따라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줄에 끌려가듯, 광신자 같으면서도 맥이 풀린 걸음으로, 유령처럼 떠밀려 갔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아직 풀려나지 못한 내 꿈들 곁으로.

"저렇게 그는 지금 제 안의 세계를 새롭게 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천하고 도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꿈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 어쩌면 그는 도취 속에서, 두려움에 갇힌 나보다 더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이면 한 번도 눈여겨본 적 없는 반 아이 하나가 내 곁에 오려 한다는 것을 이따금 알아차렸다. 작고, 약해 보이고, 마른 젊은이로, 불그스름한 금발이 성기게 났고, 눈빛과 몸가짐에 어딘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골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먼저 지나가게 하더니 다시 뒤쫓아 와서 우리 하숙집 문 앞에 멈춰 섰다.

"나한테 무슨 볼일 있어?" 내가 물었다.

"그냥 한번 너하고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그가 수줍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몇 걸음만 같이 가 줄래?"

나는 그를 따라갔고, 그가 몹시 들뜨고 기대에 차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너 심령술사야?"[1] 그가 느닷없이 물었다.

"아니, 크나우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털끝만큼도 아니야.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럼 신지학자야?"

"그것도 아니야."

"아, 그렇게 숨기지 마! 너한테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 나는 똑똑히 느낀단 말이야. 네 눈에 그게 있어. 너는 틀림없이 영들하고 사귀고 있을 거야.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야, 싱클레어, 정말이야! 나도 찾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나는 너무 외로워."

"어디 말해 봐!" 나는 그를 부추겼다. "영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나는 내 꿈속에서 살아. 너는 그걸 느낀 거야. 다른 사람들도 꿈속에서 살지만 자기 자신의 꿈속에서 사는 건 아니야. 그게 다른 점이지."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그가 속삭였다. "다만 그 사람이 사는 꿈이 어떤 꿈이냐가 문제지. 백마술이라고 들어 봤어?"

나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마술도 부릴 수 있어. 너는 그런 수련을 한 번도 안 해 봤어?"

그 수련이 어떤 것이냐고 내가 호기심에 차서 묻자 그는 처음에는 신비로운 척 뜸을 들이다가, 내가 돌아서서 가려 하자 그제야 주섬주섬 털어놓았다.

"이를테면 잠들고 싶을 때나 정신을 모으고 싶을 때 나는 그런 수련을 해. 무언가를, 이를테면 낱말 하나나 이름 하나, 아니면 기하학 도형 하나를 떠올려. 그러고는 그걸 있는 힘껏 내 안으로 생각해 넣어. 그게 머릿속에 들어앉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걸 머릿속에 그려 보려고 애를 써. 그다음엔 그걸 목으로 생각해 내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온몸이 그걸로 꽉 찰 때까지 해. 그러면 아주 단단해져서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게 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마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다른 무언가가 얹혀 있다는 것도 느꼈다. 그는 이상하게 들떠 있었고 조급했다. 나는 그가 쉽게 물을 수 있게 해 주려고 애썼고, 그러자 곧 그는 정말 하고 싶던 이야기를 꺼냈다.

"너도 금욕하지?" 그가 겁먹은 얼굴로 물었다.

"무슨 뜻이야? 성에 관한 거 말이야?"

"응, 응. 나는 그 가르침을 알게 된 뒤로 두 해째 금욕하고 있어. 그전에는 나쁜 버릇이 있었거든.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자하고 자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없어." 내가 말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났거든."

"하지만 이 사람이다 싶은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하고 잘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쪽만 싫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조금 놀리듯 말했다.

"아, 그럼 너는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야! 속의 힘은 완전히 금욕해야만 기를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했어. 두 해 동안. 두 해

하고도 한 달 넘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가끔은 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들어 봐, 크나우어. 금욕이 그렇게 끔찍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알아." 그가 손사래를 쳤다. "다들 그렇게 말해. 하지만 너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 더 높은 정신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순결해야 해. 무조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하지만 자기 성을 억누르는 사람이 왜 다른 누구보다 '더 순결하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아니면 너는 성에 관한 걸 생각과 꿈에서도 다 지워 버릴 수 있어?"

그는 절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바로 그게 안 돼! 맙소사, 그래도 해야만 한단 말이야. 밤이면 나 자신한테도 털어놓지 못할 꿈을 꿔! 끔찍한 꿈이야, 정말!"

피스토리우스가 내게 한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말이 옳다고 아무리 절실히 느껴도 그것을 남에게 건네줄 수는 없었고, 내 경험에서 나오지 않은 충고, 나 자신도 아직 그대로 따를 자신이 없는 충고를 해 줄 수는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고, 내게 충고를 구하는 사람에게 해 줄 충고가 하나도 없다는 데 굴욕을 느꼈다.

"안 해 본 게 없어!" 크나우어가 옆에서 울먹였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찬물로도, 눈으로도, 체조와 달리기로도 해 봤지만 다 소용없어. 밤마다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꿈에서 깨어나. 그리고 끔찍한 건 이거야. 그러는 사이에 내가 정신으로 배운 것이 다 조금씩 다시 사라져 버린다는 거. 정신을 모으거나 스스로 잠들게 하는 걸 이제는 거의 해내지 못해. 밤새 뜬눈으로 누워 있을 때가 많아. 이대로는 오래 못 버텨. 결국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무너져서 다시 나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그때 나는 아예 한 번도 싸워 본 적이 없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건 너도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기에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었다. 그가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의 고통과 절망이 내 마음에 더 깊은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에 나는 나 자신이 섬뜩해졌다. 내가 느낀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그럼 너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마침내 그가 지치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무슨 길이 있을 게 아니야! 너는 대체 어떻게 하는데?"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어, 크나우어. 그런 데서는 서로 도울 수가 없어. 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너는 너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그런 다음 정말로 네 본성에서 나오는 걸 해야 해. 다른 길은 없어. 네가 너 자신을 찾지 못하면 영도 찾지 못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실망하고 갑자기 말을 잃은 그 작은 녀석은 나를 바라보다가, 별안간 눈에 증오의 불을 켜더니 내게 얼굴을 일그러뜨려 보이며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아, 너 참 대단한 성자 나셨구나! 너도 나쁜 버릇이 있잖아, 나는 알아! 너는 현자인 척하면서 뒤로는 나나 다른 모든 애들하고 똑같은 오물에 매달려 있어! 너는 돼지야, 돼지라고, 나처럼. 우리 모두 돼지야!"

나는 그를 내버려 둔 채 걸어가 버렸다. 그는 두세 걸음 나를 따라오다가 뒤처지더니, 돌아서서 달아나 버렸다.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감정에 속이 메스꺼웠고, 집에 돌아와 작은 내 방에 내 그림 몇 장을 둘러 세우고 더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꿈에 몸을 맡기기 전까지 그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곧 그 꿈이 다시 찾아왔다. 대문과 문장의 꿈, 어머니와 낯선 여인의 꿈이었다. 그 여인의 얼굴이 너무도

또렷하게 보여서 나는 바로 그날 저녁 그 여인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꿈결 같은 15분씩을 여러 번 보내며 정신없이 붓질해 나간 그 그림이 다 되자, 나는 저녁에 그것을 벽에 걸고 그 앞에 책상 등을 끌어다 놓고,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워야 할 유령 앞에 선 듯 그 앞에 섰다. 예전의 그 얼굴을 닮았고, 내 벗 데미안을 닮았고, 몇몇 곳은 나 자신도 닮은 얼굴이었다.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눈에 띄게 높았고, 눈길은 넋을 잃고 굳은 채 운명으로 가득 차서 나를 넘어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안간힘을 쓰느라 가슴속까지 싸늘해졌다. 나는 그림에게 묻고, 그림을 탓하고, 그림을 어루만지고, 그림에게 기도했다. 그것을 어머니라 불렀고, 연인이라 불렀고, 창녀라고, 매춘부라고 불렀고, 아브락사스라고 불렀다. 그사이사이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아니 데미안의 말이었던가, 그런 말들이 떠올랐는데, 언제 들은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다시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벌인 싸움[2]에 관한 말,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었다.

등불 아래 그려진 얼굴은 내가 부를 때마다 모습을 바꾸었다. 밝게 빛나다가 시커멓게 어두워지고, 죽은 눈 위로 핏기 없는 눈꺼풀을 내리감았다가 다시 떠서 이글거리는 눈빛을 번득였으며,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소녀였다가, 어린아이, 짐승이 되었고, 흐릿한 얼룩으로 번졌다가 다시 크고 또렷해졌다. 마침내 나는 안에서 울리는 강한 부름을 따라 눈을 감았고, 이제 그 그림을 내 안에서, 더 강하고 더 힘차게 보았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깊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와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마치 온통 나 자신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때 봄 폭풍 같은 어둡고 묵직한 울림이 들려왔고, 나는 말로 그릴 수 없을 만큼 새로운 두려움과 체험의 느낌 속에서 떨었다. 별들이 눈앞에서 번쩍 솟았다가 꺼졌고, 맨 처음의 가장 깊이 잊힌 어린 시절까지, 아니 태어나기 이전의 삶과 생성의 이른 단계들까지 거슬러 오르는 기억들이 빽빽이 몰려 내 곁을 흘러 지나갔다. 그런데 내 온 생애를 가장 은밀한 데까지 되풀이해 보여 주는 것 같던 그 기억들은 어제와 오늘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미래를 비추었고, 나를 오늘에서 떼어 내어 새로운 삶의 형태들 속으로 끌고 갔다. 그 형태들의 영상은 엄청나게 밝고 눈부셨지만, 나중에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떠올릴 수가 없었다.

밤중에 깊은 잠에서 깨어 보니 옷을 입은 채 침대에 가로로 누워 있었다. 불을 켜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전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불을 켜고 있자니 기억이 차츰 돌아왔다. 그림을 찾아보았지만 그것은 벽에 걸려 있지도, 책상 위에 놓여 있지도 않았다. 그러자 내가 그것을 불태웠다는 것이 어렴풋이 생각나는 듯했다. 아니면 그것을 내 손안에서 불태우고 그 재를 먹었다는 것이 꿈이었을까?

크고 경련하는 듯한 불안이 나를 몰아댔다. 나는 모자를 쓰고 무엇에 쫓기듯 집을 나서 골목을 지났고, 폭풍에 휩쓸리듯 거리와 광장을 달리고 또 달렸으며, 내 벗의 캄캄한 교회당 앞에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면서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는 채 어두운 충동에 이끌려 찾고 또 찾았다. 창녀들의 집이 늘어선 변두리를 지났는데, 거기는 아직 여기저기 불이 켜져 있었다. 더 바깥으로 나가자 새로 짓는 건물들과 벽돌 더미가 있었고, 군데군데 잿빛 눈에 덮여 있었다. 낯선 힘에 짓눌린 채 몽유병자처럼 이 황무지를 떠다니다가, 언젠가 나를 괴롭히던 크로머가 우리의 첫 셈을 치르려고 나를 끌고 들어갔던 고향 도시의 그

짓다 만 새 건물이 떠올랐다. 그와 비슷한 건물 하나가 잿빛 밤 속에 내 앞에 서서 시커먼 문 구멍을 벌리고 하품을 하듯 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나를 그 안으로 끌어당겼다. 피하려 했지만 모래와 잔해에 걸려 비틀거렸다. 끌어당기는 힘이 더 셌고, 나는 들어가야만 했다.

널빤지와 깨진 벽돌을 넘어 비틀비틀 그 휑한 공간으로 들어서자, 축축한 냉기와 돌 냄새가 탁하게 풍겼다. 모래 더미 하나가 잿빛으로 희끄무레하게 놓여 있었고, 그 밖에는 모든 것이 캄캄했다.

그때 겁에 질린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맙소사, 싱클레어, 너 어디서 오는 거야?"

그리고 내 곁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작고 깡마른 녀석이 유령처럼 몸을 일으켰고, 아직 머리털이 곤두선 채로 나는 그가 반 친구 크나우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너 어떻게 여기 온 거야?" 그가 흥분해서 넋이 나간 듯 물었다. "어떻게 나를 찾아낼 수 있었어?"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너를 찾은 게 아니야." 내가 멍하니 말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힘겨웠고, 죽은 듯 무겁고 얼어붙은 것 같은 입술을 겨우 비집고 나왔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찾은 게 아니라고?"

"응. 무언가가 나를 이리로 끌고 왔어. 네가 나를 불렀어? 네가 나를 불렀을 거야.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밤이잖아."

그가 가느다란 팔로 경련하듯 나를 끌어안았다.

"그래, 밤이야. 곧 아침이 올 거야. 아, 싱클레어, 네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뭘 말이야?"

"아, 내가 그때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

그제야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게 나흘 전이었나, 닷새 전이었나? 그사이에 한 생애가 지나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뿐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크나우어가 이 바깥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까지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 목숨을 끊으려던 거야, 크나우어?"

그는 추위와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응, 그러려고 했어. 내가 해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나는 그를 바깥으로 끌고 나왔고, 날이 밝아 오며 비치는 첫 가로줄 빛이 잿빛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갑고 맥없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팔을 붙잡고 한참을 걸었다. 내 안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이제 너는 집으로 가. 그리고 아무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마! 너는 잘못된 길을 갔어, 잘못된 길을! 우리는 네 말처럼 돼지도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과 싸우고, 그러면 신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우리는 말없이 조금 더 걷다가 헤어졌다. 집에 돌아오니 날이 밝아 있었다.

◆

S 시에서 보낸 그 시절이 내게 가져다준 가장 좋은 것은, 오르간 곁에서나 벽난로 불 앞에서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아브락사스에 관한 그리스어 글을 함께 읽었고, 그는 베다를

옮긴 번역의 몇 대목을 읽어 주며 거룩한 "옴"을 소리 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내 안을 북돋아 준 것은 이런 학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내게 이로웠던 것은 내 안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낸 일, 내 꿈과 생각과 예감을 점점 더 믿게 된 일, 그리고 내 안에 지닌 힘을 점점 더 알아 가게 된 일이었다.

피스토리우스와 나는 어떤 길로든 서로 통했다. 그를 강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그가, 아니면 그가 보낸 안부가 내게 오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데미안에게 그랬듯 그에게도, 그가 그 자리에 없어도 무엇이든 물을 수 있었다. 그를 또렷이 떠올리고 내 물음을 강렬한 생각으로 그에게 보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물음에 쏟은 영혼의 힘이 모두 대답이 되어 내 안으로 돌아왔다. 다만 내가 떠올린 것은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도, 막스 데미안이라는 사람도 아니었다. 내가 불러내야 했던 것은 내가 꿈꾸고 그렸던 그 그림, 남자이자 여자인 내 다이몬의 꿈의 영상이었다. 그것은 이제 내 꿈속에만, 종이 위에 그려진 채로만 살아 있지 않았고, 소망의 영상으로, 나 자신이 한층 높아진 모습으로 내 안에 살아 있었다.

목숨을 끊는 데 실패한 크나우어가 나와 맺게 된 관계는 독특했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웠다. 내가 그에게 보내졌던 그 밤 이후로 그는 충직한 하인이나 개처럼 내게 매달렸고, 제 삶을 내 삶에 이어 붙이려 애쓰며 나를 맹목적으로 따랐다. 그는 더없이 기이한 물음과 부탁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영을 보고 싶어 했고, 카발라를 배우고 싶어 했으며, 내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짐해도 믿지 않았다. 그는 내게 못 할 일이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기이하고 어리석은 물음을 들고 하필 내 안에서 무슨 매듭을 풀어야 할 때 나를 찾아오곤 했고, 그의 변덕스러운 착상과 부탁이 내게 실마리와 풀어낼 계기를 가져다줄 때가 많았다. 그가 귀찮아 호되게 쫓아 보낸 적도

많았지만, 나는 그래도 느꼈다. 그 아이 역시 내게 보내진 사람이었고, 내가 그에게 준 것이 그에게서도 갑절이 되어 내게 돌아왔으며, 그 역시 내게 하나의 인도자, 아니면 적어도 하나의 길이었다. 그가 내게 날라다 주고 제 구원을 찾던 그 미친 책들과 글들에서, 나는 그때 깨달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 크나우어는 훗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길에서 사라졌다. 그와는 담판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와는 달랐다. S 시에서 학창 시절이 끝나 갈 무렵, 나는 이 벗과 또 한 번 독특한 일을 겪었다.

악의 없는 사람들조차 살면서 한 번이나 몇 번쯤은 공경과 감사라는 아름다운 덕목과 부딪치는 일을 피하기 어렵다. 누구나 한 번은 자기를 아버지에게서, 스승들에게서 떼어 놓는 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누구나 외로움의 혹독함을 얼마쯤은 맛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조금밖에 견디지 못하고 곧 다시 어딘가로 기어 들어가 숨는다. 부모와 그들의 세계, 내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밝은" 세계와 나는 격렬하게 싸우고 갈라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낯설어졌을 뿐이었다. 그것이 마음 아팠고, 고향에 다니러 갈 때면 쓰라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그것이 가슴 깊이까지 파고들지는 않았고, 견딜 만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기 충동에서 사랑과 경외를 바친 곳, 온 마음으로 제자이자 벗이었던 곳에서는, 우리 안을 이끄는 흐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려 한다는 것을 문득 알아차리는 듯한 순간이 쓰라리고 무섭다. 그때는 벗이자 스승을 밀어내는 생각 하나하나가 독 묻은 가시가 되어 우리 자신의 가슴을 겨누고, 막아내려고 휘두르는 주먹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의 얼굴을 친다. 그때는 올바른 도덕을 제 안에 지니고 있다고 믿던 사람에게 "배신"이니 "배은망덕"이니 하는 이름이 치욕스러운 고함처럼, 달군 쇠로 지진

자국처럼 떠오르고, 겁에 질린 가슴은 두려움에 떨며 어린 시절 덕목들의 정다운 골짜기로 도망쳐 돌아가, 이 단절도 감행해야 하고 이 끈도 끊어야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내 벗 피스토리우스를 그토록 무조건 인도자로 받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스르는 감정 하나가 내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 젊은 날의 가장 중요한 몇 달 동안 내가 겪은 것은 그와의 우정이었고, 그의 충고와 위로와 곁에 있어 줌이었다. 그를 통해 신이 내게 말했다. 그의 입을 거쳐 내 꿈들이 맑게 풀이되어 내게 돌아왔다. 그는 내게 나 자신이 될 용기를 선물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를 향한 거부감이 천천히 자라나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말에서 가르치려 드는 기색이 너무 많이 들렸고, 그가 나의 한 부분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사이에는 다툼도, 소동도, 결별도 없었고, 셈을 치르는 일조차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단 한마디, 사실 악의 없는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사이에서 하나의 환상이 알록달록한 사금파리가 되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그런 예감이 한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렷한 느낌으로 굳어 버린 것은 어느 일요일, 그의 오래된 서재에서였다. 우리는 불 앞의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는 자기가 연구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그 장래가 어떠할지를 궁리하던 비의와 종교 형식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이 모든 것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진기하고 흥미로운 것으로만 보였다. 거기서 학식의 냄새가 났고, 사라진 세계들의 잔해 속을 지친 몸으로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이 모든 것에, 이 신화 숭배에, 전해 내려온 신앙 형식들을 가지고 하는 이 모자이크 놀이에 진저리가 났다.

"피스토리우스 씨." 나는 나 자신도 놀라고 겁이 날 만큼 터져 나온 심술로 불쑥 말했다.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들려주셔야겠습니다. 진짜 꿈, 밤에 꾸신 꿈 말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무… 너무 지독하게 골동품 같습니다!"

그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바로 그 순간 수치와 놀라움 속에서 번개처럼 깨달았다. 내가 그에게 쏘아 그의 심장에 꽂힌 그 화살은 그 자신의 무기고에서 꺼내 온 것이었고, 그가 이따금 빈정대는 투로 자기 자신을 탓하던 말을 나는 이제 날카롭게 벼려서 심술궂게 그에게 되던진 셈이었다.

그는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렸고,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가슴 졸이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이 무섭게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불에 새 장작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 말이 옳네, 싱클레어. 자네는 영리한 녀석이야. 그 골동품 같은 소리로 자네를 더는 괴롭히지 않겠네."

그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에서 상처 입은 아픔을 똑똑히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눈물이 솟을 것 같았다.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가 용서를 빌고, 내 사랑과 다정한 감사를 다짐하고 싶었다. 가슴을 울릴 만한 말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대로 엎드려 불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도 입을 다물었고, 우리는 그렇게 엎드려 있었고, 불은 타들어 가다 주저앉았고, 불꽃 하나가 스러질 때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언가 아름답고 내밀한 것이 사위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느껴졌다.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마침내 나는 아주 짓눌린, 마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리석고 뜻 없는 말이 마치 신문 연재소설을 소리 내어 읽듯 기계처럼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자네 말을 아주 제대로 알아들었네." 피스토리우스가 나직이 말했다. "자네 말이 옳으니까." 그는 잠시 기다렸다. 그러고는 천천히 덧붙였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옳을 수 있는 만큼은."

아니야, 아니야, 내가 틀렸어, 하고 내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 한마디 하찮은 말로 내가 그의 본질적인 약점을, 그의 고통과 상처를 가리켰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렸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의 이상은 "골동품 같았다". 그는 뒤를 향해 찾는 사람이었고, 낭만주의자였다. 그리고 갑자기 깊이 느꼈다. 피스토리우스가 내게 되어 주고 내게 주었던 바로 그것을, 정작 그 자신에게는 되어 줄 수도 줄 수도 없었다는 것을. 그는 나를 한 길로 이끌었는데, 그 길은 인도자인 그 자신마저 넘어서서 떠나야 하는 길이었다.

그런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하느님만 아실 일이다! 나는 조금도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고, 파국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말하는 순간에는 나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입 밖에 냈을 뿐이었고, 조금 재치 있고 조금 심술궂은 하찮은 착상에 넘어갔을 뿐인데, 그것이 운명이 되어 버렸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무심한 무례를 저질렀을 뿐인데, 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었다.

아, 그때 나는 얼마나 바랐던가. 그가 화를 냈더라면, 자신을 변호했더라면, 내게 고함을 쳤더라면! 그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나는 내 안에서 혼자 해야 했다. 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미소를 지었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고, 바로 그 점에서 나는 내가 그를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를 무엇보다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피스토리우스가 나에게서, 주제넘고 은혜를 모르는 자기 제자에게서 받은 그 일격을 그렇게 소리 없이 받아들이고, 입을 다문 채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내 말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나는 나 자신이

미워졌고 내 경솔함은 천 배나 커졌다. 내리칠 때 나는 강하고 맞설 힘이 있는 사람을 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는 고요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 말없이 몸을 내맡기는 무방비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꺼져 가는 불 앞에 엎드려 있었다. 이글거리는 모양 하나하나가, 몸을 비트는 잿가루 막대 하나하나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고, 피스토리우스에게 진 내 빚을 점점 더 크게 쌓아 올렸다. 끝내 나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나 그곳을 나왔다. 그의 방문 앞에 오래 서 있었고, 캄캄한 계단에도 오래 서 있었고, 집 밖에서도 오래 서서 혹시 그가 나와 뒤따라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그러고는 걸음을 옮겨 저녁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시내와 변두리, 공원과 숲을 헤매 다녔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 이마에 카인의 표를 느꼈다.

차츰차츰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내 생각들은 모두 나를 고발하고 피스토리우스를 변호하려 했다. 그리고 모두 그 반대로 끝났다. 천 번이라도 내 성급한 말을 뉘우치고 거두어들일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은 참말이었다. 이제야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꿈 전체를 내 앞에 세워 보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의 꿈은 사제가 되어 새로운 종교를 알리고, 고양과 사랑과 경배의 새로운 형식을 사람들에게 주고, 새로운 상징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고, 그의 직분도 아니었다. 그는 지나간 것 속에 너무 따뜻하게 머물러 있었고, 옛것을 너무 속속들이 알았으며, 이집트에 대해, 인도에 대해, 미트라스[3]에 대해, 아브락사스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았다. 그의 사랑은 이 땅이 이미 보았던 영상들에 매여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것은 새롭고 달라야 하며 새 땅에서 솟아나야지 수집품과 도서관에서 길어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직분은 어쩌면 내게 그랬듯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가도록 거드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전에 없던 것을, 새로운 신들을 주는 일은 그의 직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 날카로운 불꽃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갑자기 나를 태웠다. 누구에게나 "직분"이 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스스로 고르고 제멋대로 정하고 마음대로 꾸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신들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었고, 세상에 무언가를 주려는 것은 완전히 잘못이었다! 깨어난 사람에게 의무는 없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오직 하나 말고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자기 안에서 단단해지는 것,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자기 길을 더듬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깨달음이 나를 깊이 뒤흔들었고, 이것이 이 체험이 내게 맺어 준 열매였다. 나는 미래의 영상들을 가지고 놀 때가 많았고, 어쩌면 시인으로서, 어쩌면 예언자로서, 아니면 화가로서, 아니면 그 밖의 무엇으로서 내게 주어질지도 모를 역할들을 꿈꾸었다.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시를 쓰려고, 설교하려고, 그림을 그리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도, 다른 누구도 그러려고 여기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은 모두 그저 덤으로 생겨날 뿐이었다. 누구에게나 참된 소명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일뿐이었다. 그가 시인으로 끝나든 미친 사람으로 끝나든, 예언자로 끝나든 범죄자로 끝나든, 그것은 그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고, 따지고 보면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그가 할 일은 아무 운명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어 그것을 제 안에서 온전히, 꺾이지 않게 끝까지 살아 내는 일이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어중간한 것이었고, 달아나려는 시도였고, 대중의 이상 속으로 도로 숨어드는 일이었고, 순응이자 자기 내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무섭고도 거룩하게 그 새로운 영상이 내 앞에 떠올랐다. 백 번은 예감했고 어쩌면 벌써 여러 번 입 밖에 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야 비로소 체험한 영상이었다. 나는 알 수 없는 곳으로, 어쩌면

새로운 것을 향해, 어쩌면 무를 향해 자연이 던진 한 번의 던짐이었다. 그리고 태초의 깊이에서 나온 이 던짐이 제 힘을 끝까지 펼치게 하는 것, 그 의지를 내 안에서 느끼고 그것을 온전히 내 의지로 만드는 것, 그것만이 내 소명이었다. 오직 그것만이!

나는 이미 많은 외로움을 맛보았다. 이제 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서는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예감했다.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화해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벗이었지만 관계는 달라졌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딱 한 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니, 사실은 그만 이야기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사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건 자네도 알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우리가 이런저런 예감을 품고 있는 그 새로운 종교의 사제가 되고 싶었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걸세. 그걸 알고 있고, 나 스스로에게 다 털어놓지는 않았어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네. 나는 그저 다른 사제 노릇을 하게 되겠지. 어쩌면 오르간으로, 어쩌면 다른 무엇으로. 하지만 나는 늘 내가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느끼는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네. 오르간 음악과 비의, 상징과 신화,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걸 놓고 싶지 않네. 그게 내 약점일세. 나는 이따금 안다네, 싱클레어, 때때로 나는 알아. 내가 그런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사치이고 약함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운명에 나를 온전히 내맡긴다면 그게 더 큰 일이고 더 옳은 일일 걸세. 하지만 나는 그걸 못 하네. 그게 내가 못 하는 단 하나일세. 어쩌면 자네는 언젠가 할 수 있겠지. 그건 어렵네. 세상에 정말로 어려운 건 그것 하나뿐일세, 이 사람아. 나는 그걸 자주 꿈꾸었지만 할 수가 없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나네.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은 채 외롭게 서 있을 수가 없어. 나도 온기와 먹이가 필요하고 이따금 제 무리의 곁을 느끼고 싶어 하는 가엾고 약한 개일 뿐이네. 정말로 자기 운명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는 같은 무리가 없네. 그는 완전히 홀로 서서 차가운 우주만을 곁에 두지. 알겠나,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일세.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영웅은 아니었고 해방된 사람도 아니었네. 그들 역시 정들고 고향처럼 익숙한 무언가를 바랐고, 그들에게는 본보기가 있었고 이상이 있었네. 오직 운명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본보기도 이상도 더는 없네. 사랑스러운 것도, 위안이 되는 것도 그에게는 없어!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걸세. 자네나 나 같은 사람들은 참 외롭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고, 남과 다르다는 것, 반항한다는 것, 범상치 않은 것을 바란다는 은밀한 만족이 있네. 그 길을 끝까지 가려는 사람은 그것마저 버려야 하네. 혁명가가 되려 해서도, 본보기가 되려 해서도, 순교자가 되려 해서도 안 되네. 생각만 해도 끝이 없지…"

그래, 생각만으로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꿈꿀 수는 있었고, 미리 느낄 수는 있었고, 예감할 수는 있었다. 아주 고요한 시간을 얻을 때면 나는 몇 번 그것을 얼마간 느꼈고, 그럴 때면 내 안을 들여다보며 내 운명의 영상이 부릅뜬 채 굳은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은 지혜로 가득할 수도 광기로 가득할 수도 있었고, 사랑을 내뿜을 수도 깊은 악의를 내뿜을 수도 있었지만,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였다. 그 가운데 어느 것도 골라서는 안 되었고, 어느 것도 바라서는 안 되었다.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오직 자기 운명뿐이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의 한 구간에서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인도자가 되어 주었다.

그 무렵 나는 눈먼 사람처럼 헤매 다녔다. 내 안에서는 폭풍이 울부짖었고, 걸음 하나하나가 위험이었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었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같이 그 어둠 속으로 흘러들어 가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는

데미안을 닮은 인도자의 모습을 보았고, 그 눈 속에는 내 운명이 서 있었다.

나는 종이에 이렇게 썼다. "인도자 하나가 나를 떠났다.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서 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나를 도와다오!"

이것을 데미안에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만두었다. 그러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유치하고 어리석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 짧은 기도를 외우고 있었고, 자주 속으로 읊었다. 그 기도는 시간마다 나와 함께했다.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다.

◆

내 학창 시절이 끝났다. 나는 방학 여행을 다녀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건 아버지가 생각해 낸 일이었다. 그러고 나서 대학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어느 학부로 갈지는 몰랐다. 철학을 한 학기 공부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다른 어느 것이었어도 나는 똑같이 만족했을 것이다.

---

1. 심령술과 신지학. 19세기 말 유럽에서 번진 오컬트 운동. 심령술은 죽은 이의 영과 교신한다고 했고, 신지학은 동서양 비교(祕敎)를 아울렀다.

2. 창세기 32장 24~29절. 야곱이 밤새 낯선 이와 씨름하며 축복을 받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

3. 미트라스. 고대 페르시아에서 비롯해 로마 제국에 퍼진 비의 종교의 신.

제7장 에바 부인

방학 중에 나는 몇 해 전 막스 데미안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한번 찾아갔다. 늙은 부인 하나가 정원을 거닐고 있기에 말을 걸었더니,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했다. 데미안 가족에 대해 물었다. 부인은 그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사는지는 알지 못했다. 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꼈는지 부인은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죽 앨범 하나를 찾아내더니 그 안에서 데미안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여 주었다. 나는 그분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작은 초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꿈의 영상이었다! 바로 그 여인이었다. 크고 거의 남자 같은 여인의 모습, 아들을 닮았고, 어머니다운 데와 엄격한 데와 깊은 정열이 함께 서린 얼굴, 아름답고 유혹적이면서 아름답고 다가갈 수 없는, 다이몬이자 어머니, 운명이자 연인인 그 모습. 바로 그 여인이었다!

내 꿈의 영상이 이 땅 위에 살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자, 사나운 기적처럼 무언가가 나를 꿰뚫고 지나갔다! 그렇게 생긴 여인이, 내 운명의 얼굴을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어디 있을까? 어디에? 그리고 그 여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였다!

그 뒤 곧 나는 여행을 떠났다. 기이한 여행이었다! 나는 떠오르는 생각을 좇아 쉴 새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늘 그 여인을 찾았다. 어떤 날은 그 여인을 떠올리게 하고 그 여인과 어딘가 울림이 닮고 그 여인과 비슷한 모습들만 줄줄이 만났고, 그 모습들은 뒤엉킨

꿈속에서처럼 나를 낯선 도시의 골목으로, 기차역으로, 기차 안으로 꾀어 들였다. 또 어떤 날은 내가 찾아다니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았다. 그럴 때면 공원이든 호텔 정원이든 대합실이든 어딘가에 하릴없이 앉아 내 안을 들여다보며 그 영상을 내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려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영상은 이제 수줍어하며 쉬이 달아났다.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고, 낯선 풍경 사이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만 15분씩 깜빡 졸았다. 한번은 취리히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따라왔다. 예쁘장하고 조금 뻔뻔한 여자였다. 나는 그 여자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공기라도 지나치듯 그냥 걸어갔다. 다른 여자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마음을 내주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편이 나았다.

운명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고,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나는 조바심으로 미칠 것 같았다. 언젠가 어느 기차역에서, 인스브루크였던 것 같은데, 막 떠나는 기차의 창가에서 그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 하나를 보고는 며칠 동안이나 괴로워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모습이 밤에 꿈속에 다시 나타났고, 나는 이 사냥이 얼마나 뜻 없는 일인지 부끄럽고 허전한 느낌으로 깨어나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몇 주 뒤 나는 H 시의 대학에 입학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러웠다. 내가 듣던 철학사 강의는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벌이는 법석과 마찬가지로 알맹이 없이 공장에서 찍어 낸 듯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틀에 박혀 있었고, 누구나 남들이 하는 대로 했으며, 소년 같은 얼굴들에 떠오른 달아오른 쾌활함은 서글플 만큼 텅 비어 기성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쓸 수 있었고, 도시 밖의 오래된 담장 안에서 조용하고 아름답게 살았으며, 책상 위에는 니체 몇 권을 놓아두었다. 나는 그와 함께 살았고, 그의 영혼의 외로움을 느꼈고,

그를 쉼 없이 몰아대던 운명의 냄새를 맡았고, 그와 함께 괴로워했으며, 그토록 가차 없이 제 길을 간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어느 늦은 저녁, 가을바람이 부는 가운데 시내를 어슬렁거리다가, 술집들에서 학생 조합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열린 창문으로 담배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노랫소리가 두툼한 물결이 되어 쏟아져 나왔는데, 크고 힘찼지만 날개가 없었고 생기 없이 한결같았다.

나는 길모퉁이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두 술집에서 젊은이들의 쾌활함이 꼬박꼬박 정해진 대로 치러지며 밤 속으로 울려 퍼졌다. 어디에나 공동체, 어디에나 한데 모여 웅크리기, 어디에나 운명을 내려놓고 따뜻한 무리의 곁으로 도망치기!

내 뒤로 두 남자가 천천히 지나갔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한 토막 들려왔다.

"흑인 마을의 젊은이들 숙소와 꼭 같지 않소?" 한 사람이 말했다. "무엇 하나 다를 게 없소. 문신까지 아직 유행이니. 보시오, 저것이 젊은 유럽이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무언가를 일깨우듯, 낯익게 울렸다. 나는 어두운 골목으로 그 두 사람을 뒤따라갔는데, 한 사람은 작고 맵시 있는 일본인이었고,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 그의 누르스름한 얼굴이 웃음을 띠고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다시 말했다.

"글쎄, 당신네 일본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을 거요. 무리를 따라 달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나 드무오. 여기에도 몇은 있지만."

한 마디 한 마디가 기쁨 섞인 놀라움으로 나를 꿰뚫었다. 나는 말하는 사람을 알았다. 데미안이었다.

바람 부는 밤, 나는 어두운 골목들을 지나 그와 일본인을 뒤따르며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으며 데미안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을 한껏

즐겼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그 음색이 있었고, 예전의 그 아름다운 확신과 고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나를 휘어잡던 예전의 그 힘이 그대로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좋았다. 나는 그를 찾아냈다.

변두리 어느 길 끝에서 일본인은 작별을 고하고 어느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데미안은 왔던 길을 되짚어 걸어왔고, 나는 걸음을 멈춘 채 길 한가운데서 그를 기다렸다. 그가 꼿꼿하고 탄력 있게, 갈색 고무 외투를 입고 가느다란 지팡이를 팔에 건 채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바라보았다. 그는 한결같은 걸음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내 바로 앞까지 와서 모자를 벗더니, 굳게 다문 입과 넓은 이마 위의 독특한 밝음을 지닌, 예전 그대로의 밝은 얼굴을 내게 보여 주었다.

"데미안!" 내가 외쳤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드디어 왔군, 싱클레어!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었나?"

"꼭 알았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러길 바랐지. 너를 본 건 오늘 저녁이 처음이야. 너, 아까부터 줄곧 우리 뒤를 따라왔잖아."

"그럼 나를 금방 알아봤단 말이군?"

"물론이지. 너도 변하긴 했어. 하지만 너한테는 표가 있거든."

"표? 무슨 표?"

"예전에 우리는 그걸 카인의 표라고 불렀지. 아직 기억한다면 말이야. 그건 우리의 표야. 너는 늘 그걸 지니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네 친구가 된 거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더 또렷해졌어."

"몰랐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한번은 내가 네 초상을 그린 적이 있어, 데미안. 그런데 그게 나하고도 닮아서 놀랐지. 그게 그 표였나?"

"그거였어. 네가 이제 와 줘서 다행이야!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덜컥 놀랐다.

"네 어머니? 여기 계신가? 그분은 나를 전혀 모르실 텐데."

"아니, 어머니는 너를 알고 계셔. 네가 누군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실 거야. 너,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지."

"아, 편지를 쓰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지만 되지 않더군. 얼마 전부터 곧 너를 찾게 되리라는 느낌이 들었네. 날마다 그날을 기다렸지."

그가 내 팔에 자기 팔을 끼고 함께 걸었다. 그에게서 고요가 흘러나와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곧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시절과 견신례 수업을 떠올렸고, 그때 방학 중의 그 불행했던 만남도 떠올렸지만, 우리 사이의 가장 이르고 가장 단단한 끈, 프란츠 크로머와 있었던 일만은 이번에도 입에 오르지 않았다.

어느새 우리는 기이하고 예감에 찬 이야기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다. 데미안이 일본인과 나누던 이야기를 이어받아 대학생들의 생활을 두고 말하다가, 거기서 동떨어져 보이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데미안의 말 속에서 그것들은 하나로 깊이 이어졌다.

그는 유럽의 정신과 이 시대에 찍힌 특징에 대해 말했다. 어디서나 뭉치고 무리를 짓는 일이 판을 치지만, 자유와 사랑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학생 조합과 합창단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공동체는 모두 억지로 지어진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과 난처함에서 생겨난 집단이며, 속은 썩고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했다.

"공동체는," 데미안이 말했다.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서나 피어나는 걸 보는 그건 공동체가 전혀 아니야.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데서 새로 생겨날 거고, 한동안 세계의 모습을 바꿔 놓을 거야. 지금 있는 공동체라는 건 그저 무리 짓기일 뿐이지. 사람들은 서로가 무서워서 서로에게로 도망치는 거야. 신사들은

신사들끼리,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학자들은 학자들끼리! 그럼 왜 무서워할까?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만 무서워하거든.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야. 저마다 제 안의 알 수 없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라니! 그들은 모두 자기 삶의 법칙이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낡은 석판에 새겨진 대로 살고 있다는 걸, 그들의 종교도 도덕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걸맞지 않는다는 걸 느껴. 백 년 넘게 유럽은 그저 연구하고 공장만 지어 왔어! 그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데 화약이 몇 그램 드는지는 정확히 알면서, 신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고, 한 시간이나마 즐겁게 지내는 법조차 모르지. 저런 대학생 술집을 한번 봐! 아니면 부자들이 드나드는 유흥가는 또 어떻고! 가망이 없어! 싱클레어, 이 친구야, 그 모든 것에서는 밝은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어. 그렇게 겁에 질려 뭉치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악의로 가득해서, 누구도 남을 믿지 않아. 그들은 이제 이상도 아닌 이상에 매달리고, 새 이상을 내세우는 사람은 누구든 돌로 쳐. 나는 충돌이 일어나리라는 걸 느껴. 그건 올 거야, 내 말을 믿어, 곧 올 거야! 물론 그런다고 세상이 '개선'되지는 않을 거야. 노동자들이 공장주를 때려죽이든, 러시아와 독일이 서로 총을 쏘든, 주인만 바뀔 뿐이지. 하지만 헛된 일은 아닐 거야. 그 일로 오늘날의 이상들이 아무 값어치도 없다는 게 드러날 거고, 석기 시대의 신들이 깨끗이 치워질 거야. 지금 이대로의 이 세계는 죽고 싶어 해. 무너지고 싶어 하고, 결국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내가 물었다.

"우리? 아, 어쩌면 우리도 함께 무너지겠지.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때려죽일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런다고 우리가 끝장나는 건 아니야. 우리에게서 남는 것, 아니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 주위로 미래의 의지가 모여들 거야. 우리 유럽이 한동안 기술과 학문의

장터 소음으로 덮어 버렸던 인류의 의지가 드러날 거야. 그리고 그때 드러나겠지. 인류의 의지는 언제 어디서도 오늘날의 공동체들, 국가와 민족, 협회와 교회의 의지와 같지 않다는 게. 자연이 인간을 두고 바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너와 내 안에 쓰여 있어. 그건 예수 안에 쓰여 있었고, 니체 안에 쓰여 있었어. 오늘날의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나면, 물론 날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오로지 중요한 이런 흐름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길 거야."

밤늦게 우리는 강가의 어느 정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데미안이 말했다. "곧 와! 우리는 너를 몹시 기다리고 있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서늘해진 밤길을 걸어 먼 귀갓길에 올랐다. 여기저기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비틀비틀 시내를 지나갔다.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쾌활함과 내 외로운 삶이 맞서 있다는 것을 나는 자주 느꼈다. 결핍감을 느낄 때도 많았고, 비웃음을 느낄 때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처럼, 그것이 나와 얼마나 상관이 없는지, 그 세계가 내게 얼마나 멀고 사라져 버린 세계인지를 고요와 은밀한 힘을 품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향 도시의 관리들이 생각났다. 늙고 점잖은 신사들이었는데, 그들은 술로 지새운 학창 시절의 기억에 마치 복된 낙원의 기념품에 매달리듯 매달렸고, 시인이나 다른 낭만주의자들이 어린 시절에 바치는 것과 같은 숭배를 대학 시절의 사라진 "자유"에 바쳤다. 어디서나 똑같았다! 어디서나 그들은 "자유"와 "행복"을 어딘가 자기 뒤쪽에서 찾았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떠올리게 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일깨움받게 될까 봐 그저 두려웠던 것이다. 몇 해 동안 퍼마시고 환호하다가, 그러고는 어딘가로 기어 들어가 나라의 녹을 먹는 근엄한 신사가 되었다. 그래, 우리네 세상은 썩어 있었다, 썩어

있었다. 그리고 이 대학생들의 어리석음은 다른 백 가지보다 덜 어리석고 덜 나빴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내 하숙방에 돌아와 잠자리를 찾을 무렵에는 그런 생각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고, 내 온 마음은 이날이 내게 준 커다란 약속에 매달려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술판을 벌이고 얼굴에 문신을 하든 말든, 세상은 썩어서 몰락을 기다리든 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는 오직 내 운명이 새로운 영상으로 내 앞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아침 늦게까지 깊이 잤다. 새날은 내게 엄숙한 축일처럼 밝았다. 소년 시절의 성탄절 이후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축일이었다. 나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설렜지만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내게 중요한 날이 밝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둘레의 세상이 달라져 있는 것이 보였고 또 느껴졌다. 세상은 기다리고 있었고, 뜻으로 가득했고, 엄숙했다. 소리 없이 내리는 가을비마저 아름답고 고요했으며, 진지하고도 기쁜 음악이 가득한 축일 같았다. 처음으로 바깥 세계가 내 안의 세계와 맑게 어우러져 울렸다. 그럴 때 영혼은 축일을 맞고, 그럴 때 삶은 살 만하다. 어느 집도, 어느 진열창도, 골목의 어느 얼굴도 거슬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대로 있었지만, 일상과 익숙함의 텅 빈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기다리는 자연이었고, 경건하게 운명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큰 축일 아침에, 성탄절과 부활절에 세상을 그렇게 보았다.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나는 내 안으로만 파고들어 살면서, 바깥의 것을 느끼는 감각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눈부신 빛깔을 잃는 일은 어린 시절을 잃는 일과 어쩔 수 없이 맞물려 있고, 영혼의 자유와 어른다움을 얻으려면 이

사랑스러운 반짝임을 포기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묻혀 어두워져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자유로워져 어린 시절의 행복을 단념한 사람으로서도 세상이 빛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의 눈이 느끼던 내밀한 전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황홀하게 깨달았다.

간밤에 막스 데미안과 헤어졌던 그 변두리 정원을 다시 찾아갈 시간이 왔다. 비에 젖어 잿빛이 된 키 큰 나무들 뒤에 숨어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밝고 아늑한 그 집의 커다란 유리 벽 뒤로는 키 큰 꽃나무들이 보였고, 반짝이는 창 너머로는 그림과 줄지어 꽂힌 책이 있는 어두운 방의 벽이 보였다. 현관문을 열자 바로 작고 따뜻한 홀이었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검은 옷을 입은 말 없는 늙은 하녀가 나를 안으로 들이고 내 외투를 받아 주었다.

하녀는 나를 홀에 혼자 남겨 두었다. 둘러보는 순간 나는 곧장 내 꿈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다. 어두운 나무 벽 위쪽, 어느 문 위에 검은 액자에 유리를 끼운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금빛 누런 새매 머리를 하고 세계의 껍데기에서 몸을 솟구쳐 빠져나오는 내 새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내가 일찍이 해 온 모든 일, 겪어 온 모든 일이 이 순간 대답이 되고 이루어짐이 되어 내게 돌아오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그토록 기쁘면서도 아팠다. 번개처럼 빠르게 수많은 영상이 내 영혼 앞을 스쳐 갔다. 아치형 대문 위에 낡은 돌 문장이 붙어 있던 고향의 아버지 집, 그 문장을 그리던 소년 데미안, 원수 크로머의 사악한 주문에 걸려 두려움에 얽매여 있던 소년 시절의 나, 학생 시절 작은 방의 고요한 책상에 앉아 그리움의 새를 그리던, 제 실로 짠 그물에 영혼이 얽혀 있던 젊은 날의 나. 그 모든 것,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다시 울렸고, 내 안에서 긍정되고 대답되고 옳다고 인정받았다.

젖은 눈으로 나는 내 그림을 바라보며 내 안을 읽었다. 그때 내 눈길이 아래로 내려갔다. 새 그림 아래, 열린 문간에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나이도 없고 영혼이 깃든 의지로 가득 찬 그 얼굴로,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은 나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 눈길은 이루어짐이었고, 그 인사는 집에 돌아옴을 뜻했다. 나는 말없이 두 손을 내밀었다. 여인은 단단하고 따뜻한 손으로 내 두 손을 잡았다.

"싱클레어로군요. 금방 알아보았어요. 어서 와요!"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고, 나는 그것을 달콤한 포도주처럼 들이켰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 그 고요한 얼굴을, 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싱그럽고 무르익은 입술을, 표를 지닌 자유롭고 왕 같은 이마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인에게 말하며 그 두 손에 입을 맞추었다. "평생을 줄곧 길 위에서 보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어머니처럼 미소 지었다.

"집으로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해요." 여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다운 길들이 한데 모이는 곳에서는, 한동안 온 세상이 고향처럼 보이지요."

여인은 내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느꼈던 것을 말로 해 주었다. 그 목소리도, 그 말도 아들의 것과 무척 닮았으면서도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더 무르익었고, 더 따뜻했고, 더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막스가 예전에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듯, 그의 어머니도 다 자란 아들을 둔 어머니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얼굴과 머리칼 위로 감도는 기운은 그토록 젊고 감미로웠고, 금빛 도는 살결은 그토록 팽팽하고 주름 하나 없었으며, 입술은 그토록 꽃처럼 피어 있었다.

여인은 내 꿈속에서보다 더 왕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고, 그 곁에 있는 것은 사랑의 행복이었으며, 그 눈길은 이루어짐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 운명이 내게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영상이었다. 더는 엄하지 않고, 더는 외롭게 만들지 않는, 아니, 무르익고 기쁨에 찬 영상! 나는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맹세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의 목표에, 길 위의 높은 자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이어질 길이 넓고 찬란하게 펼쳐져 보였다. 약속의 땅들을 향해 뻗어 가고, 가까운 행복의 나무 우듬지들이 그늘을 드리우고, 온갖 즐거움이 가득한 가까운 정원들이 서늘한 바람을 보내는 길이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되든, 나는 이 여인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소리를 들이켜고, 그 곁에서 숨결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 여인이 내게 어머니가 되든, 연인이 되든, 여신이 되든, 그저 거기 있어 주기만 한다면! 내 길이 그 여인의 길 가까이에만 있다면!

여인은 위쪽에 걸린 내 새매 그림을 가리켰다.

"이 그림만큼 우리 막스를 기쁘게 한 건 없었어요." 여인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나도 그랬고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이 왔을 때, 싱클레어가 우리에게 오는 길 위에 있다는 걸 알았지요. 싱클레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루는 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마에 표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애는 제 친구가 되어야 해요.' 그게 싱클레어였어요.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었어요. 한번은 방학에 집에 와 있을 때 막스를 다시 만났지요. 그때 열여섯 살쯤이었을 거예요. 막스가 그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내가 말을 끊었다. "아, 그 이야기를 하더란 말씀입니까! 그때가 제 생애에서 가장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요. 막스가 내게 말했어요. '이제 싱클레어 앞에는 가장 힘든 일이 놓여 있어요. 그 애는 한 번 더 공동체 속으로 도망치려고 해 보고

있어요. 술집 패거리까지 되었어요. 하지만 잘되지 않을 거예요. 그 애의 표는 가려져 있지만 남몰래 그 애를 태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아,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그 뒤에 저는 베아트리체를 만났고, 그다음에 마침내 다시 인도자 한 분이 제게 왔습니다. 피스토리우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저는, 제 소년 시절이 왜 그토록 막스에게 묶여 있었는지, 왜 제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 아니, 어머니, 저는 그 무렵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길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여인은 공기처럼 가벼운 손길로 내 머리칼을 쓸어 주었다.

"태어나는 일은 언제나 어려워요. 알잖아요, 새는 알에서 나오느라 애를 쓰지요. 돌아보고 물어보세요. 그 길이 그렇게 어렵기만 했나요? 어렵기만? 아름답지는 않았나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길, 더 쉬운 길을 알았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려웠습니다." 나는 잠결처럼 말했다. "꿈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꿰뚫어 보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자기 꿈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길이 쉬워지지요. 하지만 영원히 이어지는 꿈은 없어요. 어느 꿈이든 새 꿈이 그 자리를 이어받으니, 어떤 꿈도 붙잡아 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는 깊이 놀랐다. 이것은 벌써 경고인가? 벌써 나를 밀어내는 것인가?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목적지를 묻지 않고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제 꿈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 새 그림 아래에서 제 운명이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연인처럼. 저는 그 운명의 것이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 꿈이 싱클레어의 운명인 동안은, 그 꿈에 충실해야 해요." 여인이 진지하게 확인해 주었다.

슬픔이 나를 사로잡았고, 이 마법에 걸린 시간 속에서 죽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일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올라 나를 덮치는 것이 느껴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울지 않았던가! 나는 홱 여인에게서 돌아서서 창가로 가, 화분에 심은 꽃들 너머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게 울렸지만, 가장자리까지 포도주를 가득 채운 잔처럼 다정함이 넘쳤다.

"싱클레어, 아직 어린애로군요! 운명은 싱클레어를 사랑해요. 충실하기만 하면, 언젠가 운명은 꿈꾸던 그대로 온전히 싱클레어의 것이 될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여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여인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내게는 친구가 몇 있어요."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주 적은, 아주 가까운 친구 몇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에바 부인[1]이라고 불러요. 싱클레어도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아요."

여인은 나를 문으로 데려가 문을 열고 정원 쪽을 가리켰다. "막스는 저 바깥에 있을 거예요."

키 큰 나무들 아래에서 나는 넋이 나가고 뒤흔들린 채 서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뭇가지에서 빗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나는 강기슭을 따라 길게 뻗은 정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마침내 찾아낸

데미안은 사방이 트인 정원의 작은 집에서 웃통을 벗은 채, 매달아 놓은, 모래를 채운 작은 주머니를 상대로 권투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멈춰 섰다. 데미안은 눈부시게 멋져 보였다. 넓은 가슴, 단단한 남자다운 머리,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진 치켜든 두 팔은 강하고 다부졌고, 움직임은 엉덩이와 어깨와 팔의 관절에서 솟아 나왔다. 마치 샘물이 놀이하듯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데미안!" 내가 외쳤다. "거기서 뭘 하고 있나?"

그가 즐겁게 웃었다.

"연습하는 중이야. 그 작은 일본인하고 레슬링 시합을 하기로 약속했거든. 그 녀석은 고양이처럼 날래고, 물론 고양이만큼 음흉하기도 해. 하지만 나를 당해 내지는 못할 거야. 그 녀석한테 갚아 줄 아주 작은 굴욕 하나가 있거든."

그는 셔츠와 웃옷을 걸쳤다.

"어머니한테는 벌써 다녀왔어?" 그가 물었다.

"그래. 데미안, 네 어머니는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에바 부인! 그 이름이 그분께 꼭 맞는군. 그분은 모든 존재의 어머니 같네."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겨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벌써 그 이름을 알아? 자랑스러워해도 돼, 이 녀석아! 첫 시간에 벌써 그 이름을 들은 건 네가 처음이야."

그날부터 나는 아들처럼, 형제처럼, 그러나 또한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 집을 드나들었다. 등 뒤로 쪽문을 닫을 때면, 아니, 멀리서 정원의 키 큰 나무들이 눈에 들어오기만 해도 나는 부유하고 행복했다. 바깥에는 "현실"이 있었다. 바깥에는 거리와 집들, 사람들과 제도들, 도서관과 강의실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 안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고, 여기에는 동화와 꿈이 살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는 생각과 대화 속에서 자주 세상 한복판에서

살았고 다만 다른 밭에서 살았을 뿐이며, 우리를 대부분의 사람들과 갈라놓은 것은 경계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는 일, 그것 하나였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 속에 하나의 섬을, 어쩌면 하나의 본보기를, 어쨌든 다른 삶의 가능성을 알리는 예고를 보여 주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나는, 완전한 홀로됨을 맛본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한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다시는 행복한 사람들의 식탁으로, 즐거운 사람들의 잔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아도 다시는 시샘이나 그리움이 밀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표"를 지닌 사람들의 비밀에 입문하게 되었다.

표를 지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이하게, 아니 미쳤고 위험하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깨어난 사람들, 혹은 깨어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점점 더 온전히 깨어 있기를 바라며 애썼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행복을 찾는 방향은, 자기 생각과 이상과 의무를, 자기 삶과 행복을 점점 더 단단히 무리의 것에 묶어 두는 쪽이었다. 거기에도 애씀이 있었고, 거기에도 힘과 위대함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표를 지닌 우리가 새로운 것, 홀로 선 것, 미래의 것을 향한 자연의 의지를 나타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려는 의지 속에 살았다. 그들에게 인류는, 그들도 우리처럼 인류를 사랑했지만, 이미 완성되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무엇이었다. 우리에게 인류는 먼 미래였다. 우리 모두가 그리로 가는 길 위에 있지만, 아무도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 법칙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미래였다.

에바 부인과 막스와 나 말고도, 가깝게 또는 멀게, 아주 갖가지 부류의 구도자들이 우리 모임에 끼어 있었다. 그 가운데 몇은 남다른 오솔길을 걸었고, 자기만의 동떨어진 목표를 세웠으며, 특별한 견해와 의무에 매달렸다. 점성술사와 카발라 신봉자들이 있었고, 톨스토이 백작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 있었고, 갖가지 여리고 수줍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 새로운 종파의 신도들, 인도의 수행을 닦는 사람들, 채식하는 사람들 등이 있었다. 이 모든 사람과 우리가 정신적으로 함께 지닌 것은 사실 저마다 남이 품은 은밀한 삶의 꿈에 내어 주는 존중밖에 없었다. 우리와 더 가까운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 인류가 신들과 새로운 소망의 영상을 찾아 헤맨 자취를 좇았고, 그들의 연구는 자주 내 피스토리우스의 연구를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책을 들고 와서 옛 언어로 된 글을 번역해 주었고, 옛 상징과 의식의 그림을 보여 주었으며, 지금까지 인류가 지녀 온 이상이라는 재산 전체가 무의식의 영혼이 꾼 꿈들, 인류가 더듬더듬 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예감을 좇아간 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옛 세계의 경이롭고 머리 천 개 달린 신들의 실타래를, 그리스도교로 돌아서는 전환이 동터 오기까지 두루 훑어 나갔다. 외로운 경건한 이들의 고백도 알게 되었고, 민족에서 민족으로 건너가며 종교가 바뀌어 온 자취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모든 것에서 우리 시대와 지금의 유럽에 대한 비판이 저절로 나왔다. 이 유럽은 엄청난 노력으로 인류에게 강력한 새 무기들을 만들어 주었지만, 끝내 정신이 깊이, 마침내는 비명을 지를 만큼 황폐해지는 데 이르렀다. 온 세상을 얻고 그 대가로 제 영혼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신자들이 있었고, 특정한 희망과 구원의 가르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럽을 개종시키려는 불교도들도 있었고, 톨스토이의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고백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좁은 모임의 우리는 귀 기울여 들었지만, 그 어느 가르침도 하나의 상징 이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를 지닌 우리에게는 미래를 빚어내는 일에 대한 걱정이 맡겨져 있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도, 어떤 구원의 가르침도 처음부터 죽어 있고 쓸모없어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것만을 의무이자 운명으로 느꼈다. 우리 저마다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제 안에서 움직이는 자연의 씨앗에 온전히 걸맞게 그 뜻대로 살아서, 불확실한 미래가 무엇을 가져오든 그 모든 것에 언제든 우리가 채비가 되어 있게 하는 것.

말로 했든 하지 않았든, 새로 태어남과 지금 있는 것의 붕괴가 가까이 와 있고 벌써 느껴진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느낌 속에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미안은 이따금 내게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올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유럽의 영혼은 끝없이 오랫동안 묶여 있던 짐승이야. 그 짐승이 풀려나면 처음 하는 몸짓이 가장 사랑스럽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거듭거듭 거짓말로 덮고 마비시켜 온 영혼의 참된 고난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길이 곧든 굽든 상관없어. 그때가 우리의 날이 될 거야.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거야. 인도자나 새로운 입법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법은 우리가 살아서 보지 못할 테니까, 오히려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로서, 운명이 부르는 곳으로 함께 가서 거기 설 각오가 된 사람들로서. 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상이 위협받으면 믿을 수 없는 일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어. 하지만 새로운 이상이, 어쩌면 위험하고 섬뜩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성장의 움직임이 문을 두드릴 때는 아무도 그 자리에 없어.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갈 몇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일 거야. 그러라고 우리는 표를 받은 거야. 카인이 두려움과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그 시대의 인류를 좁은 목가에서 위험한 넓은 세계로 몰아내라고 표를 받았듯이. 인류의 행로에 힘을 미친 사람들은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운명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었어. 모세와 붓다에게도 들어맞고,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에게도 들어맞아. 어떤 물결을 섬기게 되는지, 어느 극에서 다스림을 받는지는 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야.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당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춰 자기를 바꿨다면 영리한 신사는 되었겠지만

운명의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야. 나폴레옹도, 카이사르도, 로욜라도, 모두가 그랬어! 이건 늘 생물학적으로, 진화의 역사로 생각해 봐야 해! 땅 표면이 뒤집히면서 물에 살던 짐승들이 뭍으로, 뭍에 살던 짐승들이 물로 내던져졌을 때, 새롭고 전에 없던 일을 해내고 새롭게 적응해서 자기 종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운명을 맞을 각오가 된 개체들이었어. 그게 그전에 제 종 안에서 보수적이고 지키는 쪽으로 뛰어났던 개체들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별종과 혁명가들이었는지, 그건 몰라. 그들은 채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기 종을 새로운 진화로 건너가게 구해 낼 수 있었어. 그건 알지. 그러니 우리도 채비를 하고 있자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에바 부인도 자주 함께 있었지만, 부인 자신은 이런 투로 말에 끼어들지 않았다. 부인은 우리 가운데 자기 생각을 털어놓는 누구에게나 믿음과 이해로 가득한 듣는 이였고 메아리였으며, 마치 모든 생각이 부인에게서 나와 부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부인 곁에 앉아 있는 것, 이따금 그 목소리를 듣는 것, 부인을 감싼 무르익음과 영혼의 기운에 함께 깃드는 것, 그것이 내게는 행복이었다.

내 안에서 무슨 변화가, 흐려짐이나 새로워짐이 일어나고 있으면 부인은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내가 잠결에 꾸는 꿈들이 부인에게서 온 계시처럼 여겨졌다. 나는 그 꿈들을 자주 부인에게 이야기했고, 부인에게는 그 꿈들이 다 알아들을 만하고 자연스러웠으며, 부인이 맑은 느낌으로 따라오지 못할 만큼 기이한 꿈은 없었다. 한동안 나는 낮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본뜬 듯한 꿈들을 꾸었는데, 온 세상이 들끓고 있고 나는 혼자서 혹은 데미안과 함께 숨을 죽이고 커다란 운명을 기다리는 꿈이었다. 운명은 가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에바 부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부인에게 선택받느냐 버림받느냐, 그것이 운명이었다.

이따금 부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꿈은 다 꾼 게 아니에요, 싱클레어. 제일 좋은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생각나는 일도 있었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때때로 나는 불만에 차서 욕망에 시달렸다. 부인을 곁에 두고 보면서 끌어안지 못하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도 부인은 곧바로 알아차렸다. 한번은 내가 며칠 발길을 끊었다가 넋 나간 얼굴로 돌아오자, 부인은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 말했다. "스스로 믿지도 않는 소망에 몸을 내맡겨서는 안 돼요. 무엇을 바라는지 나는 알아요. 그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든지, 아니면 온전히 제대로 바라든지 해야 해요.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확신할 만큼 그렇게 빌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루어짐도 와 있어요. 그런데 싱클레어는 바라고는 다시 뉘우치고,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그걸 모두 이겨 내야 해요. 동화 하나를 들려줄게요."

그리고 부인은 별을 사랑한 한 젊은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이는 바닷가에 서서 두 손을 뻗어 별을 우러러 기도했고, 별을 꿈꾸었으며, 생각을 별에게로 보냈다. 그러나 그는 별을 사람이 끌어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혹은 안다고 믿었다. 이루어질 희망 없이 별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여겼고, 이 생각으로 체념과 말 없고 충실한 고통의 시 한 편을 삶 전체로 지어 올렸다. 그 고통이 그를 더 낫게, 더 맑게 만들어 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모두 별을 향하고 있었다. 한번은 그가 다시 밤에 바닷가 높은 벼랑 위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리고 그리움이 가장 커진 한순간, 그는 뛰어올라 별을 향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뛰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번개처럼 생각했다. 어차피 안 될 일이야! 그러자 그는 저 아래 바닷가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사랑할 줄을 몰랐다. 뛰어오르던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짐을 단단히, 의심 없이 믿을

영혼의 힘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그는 위로 날아올라 별과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사랑은 빌어서는 안 돼요." 부인이 말했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사랑은 제 안에서 확신에 이를 힘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사랑은 더는 끌려가지 않고 끌어당기지요. 싱클레어, 그 사랑은 지금 내게 끌려오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언젠가 나를 끌어당기면, 그때 나는 갈 거예요. 나는 선물을 주고 싶지 않아요. 얻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때에 부인은 내게 다른 동화를 들려주었다. 희망 없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완전히 제 영혼 속으로 물러나 사랑으로 불타 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세상을 잃었다. 푸른 하늘도 푸른 숲도 더는 보이지 않았고, 시냇물도 그에게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하프도 울리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가라앉아 그는 가난하고 비참해졌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자라났고,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를 단념하느니 차라리 죽고 망가지는 편을 훨씬 더 바랐다. 그때 그는 자기 사랑이 제 안의 다른 모든 것을 태워 버린 것을 느꼈다. 사랑은 강해져서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겼고, 아름다운 여인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여인이 왔고, 그는 여인을 끌어안으려고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러나 여인이 그의 앞에 섰을 때, 여인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온 세상을 제게로 끌어당겼다는 것을 몸서리치며 느끼고 보았다. 세상은 그의 앞에 서서 그에게 몸을 내맡겼다. 하늘과 숲과 시냇물, 모든 것이 새로운 빛깔로 싱그럽고 찬란하게 그에게 다가왔고,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말을 했다. 그는 여인 하나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었고, 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그의 안에서 타오르며 그의 영혼 속으로 기쁨을 반짝반짝 쏟아 넣었다. 그는 사랑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하면서 자기를 잃으려고 사랑한다.

에바 부인을 향한 내 사랑이 내 삶의 유일한 내용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부인은 날마다 다르게 보였다. 이따금 나는 내 존재가 끌려가며 향하는 것이 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은 내 내면의 상징일 뿐이고 나를 더 깊이 나 자신 안으로 이끌려고 할 뿐이라고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았다. 나를 뒤흔드는 불타는 물음들에 내 무의식이 내놓는 대답처럼 들리는 말을 부인에게서 들을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또 부인 곁에서 감각의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부인이 만졌던 물건에 입을 맞추는 순간도 있었다. 그리고 차츰 감각의 사랑과 감각 너머의 사랑이, 현실과 상징이 서로 겹쳐졌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내 방에서 고요하고 깊은 마음으로 부인을 생각하다가, 부인의 손이 내 손안에, 부인의 입술이 내 입술 위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은 일도 있었다. 아니면 부인 곁에 있으면서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부인과 이야기하며 그 목소리를 듣는데도, 부인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의 사랑을 오래도록, 죽지 않게 지닐 수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다. 책을 읽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은 에바 부인의 입맞춤과 같은 느낌이었다. 부인이 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무르익은 향기로운 온기를 미소에 담아 보내 주면, 나는 내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게 중요하고 운명인 것은 모두 부인의 모습을 띨 수 있었다. 부인은 내 생각 하나하나로 바뀔 수 있었고, 내 생각 하나하나가 부인으로 바뀔 수 있었다.

부모 곁에서 지내야 하는 성탄절 휴가를 나는 두려워했다. 두 주 동안 에바 부인에게서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집에 있으면서 부인을 생각하는 것은 근사한 일이었다. H 시에 돌아와서도 나는 이틀을 더 부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 부인이 감각으로 곁에 있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과 이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 꿈속에서는 부인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새로운 비유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부인은 바다였고, 나는 흘러가 그 바다로 들어갔다. 부인은 별이었고, 나 자신도 별이 되어 부인에게로 가고 있었으며, 우리는 만나서 서로 끌리는 것을 느꼈고, 함께 머물며 가까이서 소리를 내는 원을 그리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서로의 둘레를 돌았다.

다시 처음 부인을 찾아갔을 때 나는 이 꿈을 이야기했다.

"아름다운 꿈이네요."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 꿈을 참으로 만드세요!"

이른 봄 무렵, 나로서는 결코 잊지 못할 하루가 찾아왔다. 홀에 들어서니 창 하나가 열려 있었고, 미지근한 바람이 히아신스의 짙은 향기를 방 안 가득 굴려 보내고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나는 계단을 올라 막스 데미안의 공부방으로 갔고, 늘 그랬듯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섰다.

방은 어두웠고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다. 막스가 화학 실험실을 꾸며 놓은 작은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고, 그쪽에서 비구름 사이로 비치는 봄 햇살의 밝고 흰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는 커튼 하나를 걷었다.

그때 커튼 친 창가 가까이 놓인 걸상에 막스 데미안이 이상하게 변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번개처럼 한 가지 느낌이 나를 꿰뚫었다. 이건 전에 한 번 겪은 일이다! 그는 두 팔을 꼼짝 않고 늘어뜨려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있었고, 조금 앞으로 기울인 얼굴은 눈을 뜬 채 눈길이 없이 죽어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유리 조각에 비치듯 작고 날카로운 빛 하나가 죽은 듯 반짝였다. 창백한 얼굴은 자기 안으로 가라앉아, 엄청나게 굳어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것은 신전 입구에 걸린 아주 오래된 짐승 가면 같았다. 그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기억이 몸서리치듯 나를 덮쳤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는 그를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여러 해 전, 내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였다. 그때도 눈은 이렇게 안쪽을 향해 굳어 있었고, 두 손은 이렇게 생기 없이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얼굴 위를 이리저리 기어 다녔다. 그리고 그는 그때, 어쩌면 여섯 해 전쯤, 꼭 이렇게 늙어 보이면서 시간을 벗어나 있었고, 그 얼굴의 주름 하나도 오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살그머니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홀에서 에바 부인과 마주쳤다. 부인은 창백했고 지쳐 보였는데 그것은 내가 부인에게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그때 그림자 하나가 창을 스쳐 지나가더니 눈부시게 흰 햇빛이 갑자기 사라졌다.

"막스 방에 갔었습니다." 내가 빠르게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잠들어 있는 건지, 깊이 잠겨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설마 깨우지는 않았겠지요?"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막스는 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시 나왔습니다. 에바 부인, 말씀해 주십시오, 막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인은 손등으로 이마를 쓸었다.

"걱정 말아요, 싱클레어. 막스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요. 자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부인은 일어나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정원으로 나갔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래서 홀을 이리저리 거닐며 정신이 아찔하도록 향기를 뿜는 히아신스 냄새를 맡고, 문 위의 내 새 그림을 바라보며, 이날 아침 집 안에 가득 찬 이상한 그림자를 가슴 답답하게 들이마셨다. 이게 무엇일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에바 부인은 곧 돌아왔다. 검은 머리칼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부인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피로가 부인을 덮고 있었다. 나는 부인 곁으로 가서 몸을 굽히고, 머리칼에 맺힌 빗방울을 입술로 거두었는데, 부인의 눈은 맑고 고요했지만 빗방울은 눈물 같은 맛이 났다.

"막스를 보러 가 볼까요?" 내가 속삭이며 물었다.

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린애처럼 굴지 말아요, 싱클레어!" 부인은 마치 제 안에 걸린 주문을 깨뜨리려는 듯 큰 소리로 타일렀다. "이제 가세요. 나중에 다시 와요. 지금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집을 나와 도시를 벗어나 산 쪽으로 걸어갔다. 비스듬히 가늘게 내리는 비가 마주 들이쳤고, 구름은 무거운 압력에 눌려 무엇이 두려운 듯 낮게 몰려 지나갔다. 아래쪽에는 바람이 거의 없었지만 높은 곳에서는 폭풍이 이는 듯했고, 강철 같은 잿빛 구름 사이로 해가 창백하고 날카롭게 몇 번이나 잠깐씩 비쳤다.

그때 하늘 저편에서 성근 누런 구름 한 덩이가 밀려왔다. 그 구름은 잿빛 벽에 부딪혀 쌓였고, 바람은 몇 초 만에 누런빛과 푸른빛으로 하나의 그림을, 커다란 새 한 마리를 빚어냈는데, 그 새는 푸른 뒤엉킴에서 몸을 떨치고 나와 넓은 날갯짓으로 하늘 깊숙이 사라졌다. 그러자 폭풍 소리가 들렸고, 우박 섞인 비가 후드득 쏟아졌다. 짧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섬뜩한 소리를 내는 천둥이 채찍질당한 풍경 위에서 터졌고, 곧이어 다시 햇살 한 줄기가 뚫고 나와, 가까운 산들의 갈색 숲 위에서 창백한 눈이 희미하게, 현실이 아닌 듯 빛났다.

몇 시간 뒤 흠뻑 젖고 바람에 시달린 몰골로 돌아오자, 데미안이 몸소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는데, 실험실에서는 가스 불꽃이 타고 있었고 종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가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앉아." 그가 권했다. "피곤하겠군. 날씨가 지독했어. 밖에서 어지간히 돌아다닌 게 보여. 차가 곧 올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있네." 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그깟 뇌우 하나만은 아닐 거야."

그가 살피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뭘 봤어?"

"그래. 구름 속에서 잠깐 그림 하나를 똑똑히 봤네."

"어떤 그림?"

"새였어."

"새매? 그거였어? 네 꿈의 새?"

"그래, 내 새매였어. 누렇고 어마어마하게 컸고, 푸르스름하게 검은 하늘 속으로 날아 들어갔네."

데미안이 깊이 숨을 내쉬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늙은 하녀가 차를 내왔다.

"들어, 싱클레어. 그런데 네가 그 새를 우연히 본 건 아닐 것 같은데?"

"우연히? 그런 걸 우연히 보나?"

"좋아, 아니지. 그건 무언가를 뜻해. 뭘 뜻하는지 알아?"

"아니. 그저 그게 하나의 뒤흔들림을, 운명의 한 걸음을 뜻한다는 것만 느끼네. 우리 모두와 상관있는 일 같아."

그는 격하게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운명의 한 걸음!"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간밤에 나도 같은 꿈을 꿨어. 그리고 어머니도 어제 같은 걸 말하는 예감을 느끼셨고. 나는 꿈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 나무 기둥인지 탑인지에 걸린 사다리였어. 꼭대기에 오르니 온 땅이 보였어. 커다란

평원이었는데, 도시와 마을들이 불타고 있었어. 아직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 나도 아직 다 분명하지 않거든."

"그 꿈을 너 자신에 관한 걸로 푸나?" 내가 물었다.

"나에 관해? 물론이지. 자기와 상관없는 꿈을 꾸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나 혼자만 상관있는 건 아니야. 그건 네 말이 맞아. 나는 내 영혼 속의 움직임을 알려 주는 꿈과, 온 인류의 운명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다른 꿈, 아주 드문 꿈을 꽤 정확히 가려내. 그런 꿈은 드물게 꾸었고, 예언이었다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꿈은 하나도 없었어. 풀이가 너무 불확실하거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알아. 나는 나 하나에만 관계되지 않는 무언가를 꿈꿨어. 이 꿈은 내가 전에 꾼 다른 꿈들에 이어져 있고, 그 꿈들을 계속 이어 가고 있거든. 싱클레어, 내가 너한테 벌써 말했던 그 예감들은 바로 이런 꿈들에서 온 거야. 우리 세계가 꽤 썩었다는 건 우리도 알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계가 무너진다느니 하는 예언을 할 까닭이 못 돼. 그런데 나는 몇 해 전부터 꿈을 꾸어 왔고, 그 꿈들에서 미루어 보면, 아니 느끼면, 뭐라고 해도 좋아, 아무튼 그 꿈들에서 낡은 세계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고 먼 예감이었는데, 점점 더 또렷하고 강해졌어. 아직은 무언가 크고 무시무시한 것이 다가오고 있고 그게 나와도 상관있다는 것밖에는 몰라. 싱클레어, 우리가 이따금 이야기했던 그 일을 우리는 겪게 될 거야! 세계는 새로워지고 싶어 해. 죽음의 냄새가 나. 죽음 없이 오는 새것은 없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해." 나는 덜컥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꿈의 나머지는 이야기해 줄 수 없나?" 나는 머뭇거리며 부탁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문이 열리고 에바 부인이 들어왔다.

"둘이 여기 같이 앉아 있었구나! 얘들아, 설마 슬퍼하는 건 아니겠지?"

부인은 싱그러워 보였고 이제 조금도 지쳐 보이지 않았다. 데미안이 부인에게 미소를 지었고, 부인은 겁먹은 아이들에게 오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이 새로운 징조들을 두고 조금 수수께끼를 풀어 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별일 아니에요. 오려는 것은 갑자기 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언짢았다.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홀을 지나 나올 때, 히아신스 향기가 시들고 김빠지고 시체 같은 냄새로 느껴졌다. 우리 위에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 있었다.

---

1. 에바(Eva)는 성경의 하와를 독일어로 부르는 이름이다.

제8장 끝의 시작

나는 고집을 부려 여름 학기에도 H 시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집 안보다는 거의 늘 강가의 정원에 있었고, 그 일본인은, 덧붙이자면 레슬링 시합에서 보기 좋게 졌는데, 떠나고 없었고, 톨스토이를 따르던 그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데미안은 말을 한 필 두고 날마다 끈기 있게 말을 탔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다.

이따금 나는 내 삶이 이토록 평화롭다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혼자 지내고, 단념하고, 내 고통과 힘겹게 씨름하는 데 너무 오래 익숙해져 있었기에, H 시에서 보낸 이 몇 달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과 느낌들 속에서만 편안히 마법에 걸린 채 살아도 되는 꿈의 섬처럼 여겨졌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저 새롭고 더 높은 공동체의 앞소리라는 것을 나는 예감했다. 그리고 이따금 이 행복 때문에 깊은 슬픔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것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넉넉하고 편안하게 숨 쉬는 일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고, 나에게는 고통과 쫓김이 필요했다. 나는 느꼈다. 언젠가 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영상들에서 깨어나 다시 홀로, 완전히 홀로,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세계 속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그곳에서 내게는 외로움이나 싸움만 있을 뿐, 평화도 함께하는 삶도 없으리라는 것을.

그럴 때면 나는 갑절의 다정함으로 에바 부인 곁에 파고들었고, 내 운명이 아직도 이렇게 아름답고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

여름의 몇 주는 빠르고 가볍게 지나갔고, 학기는 벌써 끝나 가고 있었다. 이별이 곧 닥칠 참이었지만 나는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되었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으며, 꿀 많은 꽃에 매달린 나비처럼 그 아름다운 날들에 매달렸다. 이것이 내 행복의 시절이었고, 내 삶의 첫 이루어짐이었고, 내가 그 맹약에 받아들여진 일이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나는 다시 싸우며 헤쳐 나가고, 그리움에 시달리고, 꿈을 꾸고, 혼자일 것이었다.

그런 어느 날, 이 예감이 너무도 강하게 덮쳐 와서 에바 부인을 향한 내 사랑이 갑자기 아프게 불타올랐다. 맙소사, 이제 곧 나는 부인을 더는 보지 못하고, 집 안을 걷는 부인의 단단하고 선한 발소리를 더는 듣지 못하고, 내 책상 위에서 부인이 놓아둔 꽃을 더는 찾지 못하리라! 그런데 나는 무엇을 이루었던가? 나는 부인을 얻으려 하지 않고, 부인을 두고 싸우지 않고, 부인을 영원히 내게로 낚아채지 않고, 그저 꿈을 꾸며 편안함 속에 몸을 흔들고 있었다! 부인이 참된 사랑에 대해 내게 들려준 모든 말이 떠올랐다. 섬세하게 일깨우던 백 마디 말, 나지막한 백 가지 꾐, 어쩌면 약속들까지.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던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온 의식을 한데 모으고 에바를 생각하며,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 부인이 내 사랑을 느끼게 하고 부인을 내게로 끌어당기고 싶었다. 부인은 와야 했고, 내 포옹을 갈망해야 했으며, 내 입맞춤은 부인의 무르익은 사랑의 입술 속을 끝없이 파고들어야 했다.

나는 서서 손가락과 발끝부터 싸늘해질 때까지 온몸을 팽팽히 당겼다. 내게서 힘이 흘러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몇 순간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 밝고 서늘한 것이 단단하고 좁게 오그라들었고, 잠깐 동안 나는 가슴속에 수정 하나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냉기가 가슴까지 차올랐다.

그 무시무시한 긴장에서 깨어났을 때, 무언가가 오리라는 것을 느꼈고, 죽을 만큼 지쳐 있었지만 에바가 불타오르며 황홀해하는 모습으로 방에 들어서는 것을 볼 채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긴 거리를 따라 두드리며 다가왔다. 소리는 가깝고 단단하게 울리다가 갑자기 멎었다. 나는 창가로 뛰어갔다. 아래에서 데미안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무슨 일이야, 데미안? 설마 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몹시 창백했고, 이마 양쪽에서 땀이 뺨으로 흘러내렸는데, 그는 달아오른 말의 고삐를 정원 울타리에 매고, 내 팔을 잡고 나와 함께 거리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벌써 무슨 소식 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데미안은 내 팔을 꽉 쥐고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어둡고 가엾어하는, 기이한 눈길이었다.

"그래, 이 녀석아, 이제 시작이야. 러시아와 크게 팽팽해져 있다는 건 너도 알았지…"

"뭐? 전쟁이 나나? 나는 그런 건 한 번도 믿어 본 적이 없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도 그는 나직이 말했다.

"아직 선포되지는 않았어. 하지만 전쟁이 날 거야. 믿어도 돼. 그 뒤로 이 일로 너를 귀찮게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새로운 징조를 세 번 보았어. 그러니까 세계의 종말도, 지진도, 혁명도 아니야. 전쟁이 될 거야. 그게 어떻게 터지는지 보게 될 거야! 사람들한테는 그게 환희일 거야. 벌써부터 다들 치고 나갈 날을 기다리며 신이 나 있어. 삶이 그만큼 그들에게 김빠진 게 되어 버린 거지. 하지만 두고 봐, 싱클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어쩌면 큰 전쟁이 될 거야. 아주 큰 전쟁이. 하지만

그것도 그저 시작일 뿐이야. 새것이 시작되고, 낡은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그 새것은 끔찍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어리둥절했다. 모든 것이 아직은 낯설고 믿기지 않게 들렸다.

"모르겠네. 너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동원령이 내리면 곧바로 입대해. 나는 소위거든."

"네가? 그런 건 한마디도 몰랐군."

"그래, 그것도 내가 세상에 맞춰 적응한 것 가운데 하나야. 알잖아, 나는 바깥으로 눈에 띄는 걸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고, 흠잡히지 않으려고 오히려 늘 조금 지나칠 만큼 애써 왔어. 아마 여드레 뒤면 벌써 전선에 서 있을 거야…"

"맙소사…"

"이런, 이 녀석아, 그걸 감상적으로 받아들일 건 없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는 게 사실 내게 즐거울 리는 없지. 하지만 그건 하찮은 일이 될 거야. 이제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그 커다란 바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너도야. 너도 틀림없이 징집될 거야."

"그럼 네 어머니는, 데미안?"

그제야 나는 15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다. 세상은 얼마나 달라져 버렸는가! 가장 달콤한 영상을 불러내려고 온 힘을 다 짜냈는데, 이제 운명은 갑자기 위협적이고 소름 끼치는 가면을 쓰고 새로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아, 어머니 걱정은 안 해도 돼. 어머니는 안전해. 오늘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안전하셔.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해?"

"알고 있었나, 데미안?" 그는 맑게, 아주 홀가분하게 웃었다.

"어린 녀석! 물론 알고 있었지. 우리 어머니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어머니를, 아니면 나를 불렀지, 그렇지?"

"그래, 불렀네… 에바 부인을 불렀어."

"어머니가 그걸 느끼셨어. 갑자기 나더러 너한테 가 봐야 한다고 나를 내보내셨지. 나는 막 어머니께 러시아 소식을 말씀드린 참이었어."

우리는 돌아섰고, 그 뒤로는 말을 별로 나누지 않았다. 그는 말을 풀어 올라탔다.

위층 내 방에 올라와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느꼈다. 데미안이 전한 소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전의 긴장 때문이 훨씬 더 컸다. 그래도 에바 부인은 내 소리를 들었다! 나는 생각으로 부인의 가슴에 가 닿았던 것이다. 부인은 몸소 왔을 것이다, 만약…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따지고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전쟁이 오려 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데미안은 그 일을 그토록 많이 미리 알고 있었다. 이제 세계의 흐름이 더는 어딘가에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갑자기 우리 가슴 한복판을 꿰뚫고 흐른다는 것, 모험과 사나운 운명들이 우리를 부르고, 지금 아니면 곧,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세계가 스스로 바뀌려 하는 순간이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가. 데미안의 말이 옳았다. 이것은 감상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었다. 기이한 것은 다만, 그토록 외로운 일인 "운명"을 이제 그토록 많은 사람과, 온 세상과 함께 겪게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좋다!

나는 채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에 시내를 지나갈 때, 구석구석이 커다란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다. 어디서나 "전쟁"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에바 부인의 집으로 갔고, 우리는 정원의 작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손님은 나 하나뿐이었다. 아무도 전쟁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늦게, 내가 떠나기 바로 전에 에바 부인이 말했다. "싱클레어, 오늘 나를 불렀지요. 내가 왜 직접 가지 않았는지는 알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요. 이제 부름을 아시지요. 언제든 표를 지닌 누군가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불러요!"

부인은 일어나 정원의 어스름 속을 앞서 걸어갔고, 그 신비로운 여인은 말 없는 나무들 사이로 크고 왕다운 걸음을 옮겼고, 그 머리 위에서는 수많은 별이 작고 여리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끝에 이른다. 일들은 빠른 길을 갔다. 곧 전쟁이 났고, 은회색 외투를 걸친 군복 차림이 기이하게 낯선 데미안은 떠나갔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드렸다. 곧 나도 부인과 작별했는데, 부인은 내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잠깐 나를 가슴에 안았으며, 그 커다란 눈이 가까이서 단단히 내 눈 속으로 타오르듯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된 것 같았다. 그들은 조국과 명예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한순간 가려지지 않은 얼굴을 들여다본 것은 운명이었다. 젊은이들이 병영에서 나와 기차에 올랐고, 나는 많은 얼굴에서 하나의 표를 보았는데, 우리의 표는 아니었지만 사랑과 죽음을 뜻하는 아름답고 위엄 있는 표였다. 나 또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안겼고, 나는 그 뜻을 알아듣고 기꺼이 그 포옹에 답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도취 속에서였지 운명의 의지에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도취는 거룩했고, 그들 모두가 운명의 눈 속을 이렇게 짧고 뒤흔드는 눈길로 들여다본 데서 비롯했다.

내가 전선에 나갔을 때는 벌써 거의 겨울이었다.

처음에 나는 총격전이 주는 자극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실망했다. 예전에 나는, 왜 이상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 그토록 드문가를 두고

많이 생각했다. 이제 보니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이상을 위해 죽을 줄은 알았지만, 다만 그 이상은 개인적인 것, 자유로운 것, 스스로 고른 것이어서는 안 되었고, 함께 지니고 물려받은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가 사람들을 얕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군 복무와 함께 겪는 위험이 아무리 그들을 똑같은 틀에 찍어 내도, 나는 살아 있는 사람이든 죽어 가는 사람이든 많은 이가 운명의 의지에 눈부시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이 돌격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목표 같은 것은 알지 못하고 엄청난 것에 온전히 몸을 내맡겼음을 뜻하는, 단단하고 먼 데를 보며 조금은 무엇에 사로잡힌 듯한 눈길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그들은 채비가 되어 있었고 쓸모가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미래가 빚어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세상이 전쟁과 영웅주의에, 명예와 다른 낡은 이상들에 더 굳게 맞춰진 것처럼 보일수록, 겉으로 인간다워 보이는 목소리가 모두 더 멀고 믿기지 않게 울릴수록, 그것은 다 겉면일 뿐이었다. 전쟁의 바깥 목표와 정치적 목표를 묻는 일이 겉면에 머물렀듯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다. 새로운 인간다움 같은 무언가가. 나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몇은 내 곁에서 죽었는데, 그들은 미움과 분노, 사람을 때려죽이고 없애는 일이 그 대상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낌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렇다, 그 대상들은 목표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우연이었다. 근원적인 감정들은, 가장 사나운 것까지도, 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일은 내면이, 제 안에서 둘로 쪼개진 영혼이 내뿜는 빛일 뿐이었고, 그 영혼은 새로 태어날 수 있으려고 날뛰고 죽이고, 없애고 죽고 싶어 했다. 거대한 새 한 마리가 알에서 나오려고 싸우고 있었고, 알은 세계였으며, 세계는 산산이 부서져야 했다.

이른 봄 어느 밤, 나는 우리가 차지한 농가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맥없는 바람이 변덕스럽게 불어 댔고, 플랑드르[1]의 높은 하늘 위로 구름의 군대가 말을 달렸으며, 그 뒤 어딘가에 달이 있을 듯한 기미가 비쳤다.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걱정이 나를 어지럽혔다. 이제 어두운 초소에 서서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영상들을, 에바 부인을, 데미안을 깊은 마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포플러 나무에 기대어 서서 일렁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에서 남몰래 깜빡이던 밝은 빛들은 곧 크게 솟구쳐 흐르는 영상들의 행렬이 되었다. 맥박이 이상하게 가늘어진 것으로, 살갗이 바람과 비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안에서 반짝이며 깨어 있는 정신으로, 나는 한 인도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구름 속에 큰 도시 하나가 보였다. 그 도시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떼를 지어 넓은 들판으로 퍼져 나갔다. 그들 한가운데로 신과 같은 힘찬 형상 하나가 들어섰다. 머리칼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박혀 있었고, 산맥처럼 컸으며, 에바 부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이 거대한 동굴로 들어가듯 그 형상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여신은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았고, 그 이마에서는 이마의 표가 밝게 빛났다. 꿈 하나가 여신을 사로잡은 듯했다. 여신은 눈을 감았고, 그 커다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갑자기 여신이 날카롭게 외쳤고, 그 이마에서 별들이, 빛나는 별 수천 개가 튀어나와 검은 하늘 위로 찬란한 아치와 반원을 그리며 휘돌아 날아갔다.

그 별들 가운데 하나가 밝은 소리를 내며 곧장 내게로 날아왔다. 나를 찾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그 별이 포효하며 수천 개의 불티로 터졌고, 무언가가 나를 위로 낚아챘다가 다시 땅에 내던졌으며, 세계가 천둥소리를 내며 내 위로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포플러 나무 가까이에서 흙에 덮이고 여러 군데 상처를 입은 나를 찾아냈다.

나는 어느 지하실에 누워 있었고, 머리 위에서 대포들이 웅웅 울렸다. 나는 수레에 누워 텅 빈 들판을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대개는 잠들어 있거나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깊이 잠들면 잠들수록,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다스리는 어떤 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더욱 강렬하게 느꼈다.

나는 어느 마구간의 짚 위에 누워 있었다. 어두웠고, 누군가 내 손을 밟고 지나갔다. 그러나 내 안의 무언가는 더 가려 했고, 더 강하게 나를 끌어갔다. 나는 다시 수레에 누워 있었고, 나중에는 들것인지 사다리인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어딘가로 오라는 명령을 받은 듯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거기에 이르고 싶다는 충동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나는 목적지에 와 있었다. 밤이었고, 나는 정신이 온전히 맑았으며, 방금 전까지도 내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과 충동을 강하게 느꼈는데, 이제 나는 어느 넓은 방 바닥에 깔린 잠자리에 누워 내가 부름을 받은 그곳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둘레를 둘러보니 내 매트리스 바로 옆에 다른 매트리스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 누운 누군가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표가 있었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도 말을 할 수 없었는지 하려 하지 않았는지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얼굴 위에, 그 위쪽 벽에 걸린 등불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가 내게 미소 지었다.

끝없이 긴 시간 동안 그는 줄곧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와, 우리 얼굴이 거의 닿을 듯했다.

"싱클레어!"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를 알아듣는다는 것을 눈짓으로 알렸다.

그가 다시 미소 지었다. 거의 가엾어하는 듯한 미소였다.

"어린 녀석!"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입술이 이제 내 입술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나직이 말을 이었다.

"프란츠 크로머, 아직 기억하니?" 그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눈을 깜빡여 보였고, 미소를 지을 수도 있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나야 할 거야. 너는 어쩌면 언젠가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크로머 같은 놈에 맞서야 할 때든, 다른 일로든. 그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더는 이렇게 거칠게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오지 않을 거야. 그때 너는 네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알겠어? 그리고 하나 더! 에바 부인이 그러셨어. 언젠가 네가 힘들어지면, 어머니가 내게 들려 보낸 입맞춤을 너한테 전해 주라고…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가벼운 입맞춤이 내 입술 위에 느껴졌다. 내 입술에는 언제나 피가 조금 맺혀 있었고, 그 피는 도무지 줄어들 줄을 몰랐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사람들이 나를 깨웠다. 붕대를 감아야 한다고 했다. 마침내 제대로 정신이 들자 나는 얼른 옆 매트리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거기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는 일은 아팠다. 그 뒤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 내 안으로 깊이 내려가면, 어두운 거울 속에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면,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모습이 보인다. 이제 그를, 내 벗이자 인도자인 그를 꼭 닮은 내 모습이.

1. 벨기에 서부와 프랑스 북부에 걸친 지방. 제1차 세계 대전 서부 전선의 격전지였다.

판권면

데미안

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날 이야기

원제 · Demian. Die Geschichte von Emil Sinclairs Jugend

지은이 ·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1877~1962)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919년, S. 피셔(베를린). 「에밀 싱클레어」 라는 가명으로 나왔고, 1920년 판부터 헤세의 이름을 달았다.

저본 · 1921년 S. 피셔판(베를린)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독일어 전자 텍스트. 독일어 원전에서 옮겼다.

분량 · 원문 47,275단어 · 서장과 8장 · 원문 793문단, 번역 793문단 · 옮긴이 주 13개

저작권 · 대한민국에서는 저자가 1962년에 사망해 구법의 사후 50년 기준으로 2012년 말 보호기간이 끝났으며,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사후 70년 연장은 이미 만료된 저작물에 소급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1919년에 출판된 저작물로서 퍼블릭도메인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저자 사후 70년을 적용하는 나라에서는 2032년 말까지 원저작물이 아직 보호된다.** 이 번역본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을 기준으로 공개하며, 그 밖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한국어 번역 ·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옮겼다.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2026년 10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대한민국·미국)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5